

KREI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황익식 외 15인



KREI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황익식 외 15인



연구 담당

황의식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이명기 | 연구위원 | 제1장 집필
순병민 | 부연구위원 | 제1장 집필, 연구자료 수집
서홍석 | 부연구위원 | 제1장 4. 농업부문 영향분석 집필
국승용 | 선임연구위원 | 제2장 1. 농산물 수급 집필
정학균 | 연구위원 | 제2장 2. 친환경농산물 집필
박기환 | 선임연구위원 | 제2장 3. 화훼산업 집필
엄진영 | 연구위원 | 제2장 4. 농업인력 집필
박미성 | 연구위원 | 제2장 5. 외식식품산업 집필
김병률 | 선임연구위원 | 제2장 6. 농식품 유통 집필
홍연아 | 부연구위원 | 제2장 7. 식품소비 집필
김경필 | 선임연구위원 | 제2장 8. 농식품 교역 분야 집필
안 석 | 부연구위원 | 제2장 9. 농촌 복지 집필
김광선 | 연구위원 | 제2장 10. 농촌 관광 집필
김미복 | 연구위원 | 제2장 11. 농업자금 및 농가경제 집필
우성희 | 연구위원 | 연구자료 수집

정책연구보고 D501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7.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I S B N | 979-11-6149-392-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

1. 검토배경 3

2. 대내외 여건 변화 5

3. 농업·농촌부문 코로나19 주요 영향 16

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29

5. 포스트 코로나19 농업·농촌부문 과제 60

제2장 분야별 영향과 대응

1. 농산물 수급 79

2. 친환경농산물 93

3. 화훼산업 101

4. 농업인력 113

5. 외식식품산업 143

6. 농식품 유통 164

7. 식품소비 167

8. 농식품 교역 분야 178

9. 농촌 복지(보건, 교육) 211

10. 농촌 관광 219

11. 농업자금 및 농가경제 228

참고문헌 243

제1장

〈표 1-1〉 2020년 국제 곡물가격(선물가격) 추이	11
〈표 1-2〉 2020년 주요 국제 곡물 수입량과 수입액 추이	11
〈표 1-3〉 2020년 주요 국제 곡물 수입단가 추이	12
〈표 1-4〉 농산물 구매와 조리 패턴 변화(1~2차)	17
〈표 1-5〉 농산물 구매와 조리 패턴 변화(3~5차)	18
〈표 1-6〉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1~2차)	19
〈표 1-7〉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3~5차)	19
〈표 1-8〉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1~2차)	20
〈표 1-9〉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3~5차)	21
〈표 1-10〉 온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1~2차)	21
〈표 1-11〉 온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3~5차)	22
〈표 1-1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4
〈표 1-1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성장 영향 추정치(World Bank)	31
〈표 1-14〉 IMF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32
〈표 1-1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시지표 전망치 가정	33
〈표 1-16〉 과거 경제 위기와 시나리오 전망별 경제지표 비교	36
〈표 1-17〉 농업생산액 영향	39
〈표 1-18〉 농가교역조건지수(2015=100) 영향	40
〈표 1-19〉 무역수지 및 자급률 영향	41
〈표 1-20〉 시나리오 1. 농업생산액 영향	43
〈표 1-21〉 시나리오 1. 농가판매가격지수(2015=100) 영향	43
〈표 1-22〉 시나리오 1. 농업구입가격지수(2015=100) 영향	44
〈표 1-23〉 시나리오 1. 영농경영비 영향	44

〈표 1-24〉 시나리오 1. 농식품 수출입 영향	45
〈표 1-25〉 시나리오 1. 자급률 영향	45
〈표 1-26〉 시나리오 2. 생산액 영향	47
〈표 1-27〉 시나리오 2. 농업구입가격지수(2015=100) 영향	47
〈표 1-28〉 시나리오 2. 총경영비 영향	48
〈표 1-29〉 시나리오 2. 농가판매가격지수(2015=100) 영향	48
〈표 1-30〉 시나리오 2. 농식품 수출입 영향	48
〈표 1-31〉 시나리오 2. 자급률 영향	49
〈표 1-32〉 시나리오 3. 생산액 영향	50
〈표 1-33〉 시나리오 3. 농업구입가격지수(2015=100) 영향	51
〈표 1-34〉 시나리오 3. 총경영비 영향	51
〈표 1-35〉 시나리오 3. 농가판매가격지수(2015=100) 영향	51
〈표 1-36〉 시나리오 3. 농식품 수출입 영향	52
〈표 1-37〉 시나리오 3. 자급률 영향	52
〈표 1-38〉 분석 시기별 거시지표 전망 가정	53
〈표 1-39〉 분석 시기별 농업생산액 파급영향 분석 결과	54
〈표 1-40〉 수입 제한 시나리오의 영향분석 품목 및 수출 감소 비중	56
〈표 1-41〉 수출 제한 시나리오의 영향분석 품목 및 수출 감소 비중	57
〈표 1-42〉 수입 제한 시나리오 영향분석 결과	57
〈표 1-43〉 수출 제한 시나리오 영향분석 결과	59
〈표 1-44〉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68
〈표 1-45〉 외환(IMF)위기 당시 경제지표와 농업생산 동향	70
〈표 1-46〉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지표와 농업생산 동향	72
〈표 1-47〉 전염병 사례별 영향	73

〈표 1-48〉 2003년 사스(SARS) 확산 때 경제지표와 농업생산 동향	74
〈표 1-49〉 2015년 메르스(MERS) 확산 때 경제지표와 농업생산 동향	76

제2장

〈표 2-1〉 주요 품목 평년대비 가격 증감률(1~4월 중순)	94
〈표 2-2〉 학교급식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변화	96
〈표 2-3〉 금융위기 시기의 주요 친환경농산물 가격 변화	98
〈표 2-4〉 소비자의 화훼 인식	102
〈표 2-5〉 경제 여건 변화 시 소비자의 화훼소비 증감 의향	102
〈표 2-6〉 주요 화훼류 2020년 1~3월 전년 대비 거래량 및 가격 변화	103
〈표 2-7〉 주요 화훼류의 2020년 4~12월 판매량 추정치 대비 변화 전망 (시나리오 1)	105
〈표 2-8〉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절화류 및 호접란 생산액 감소 영향 (시나리오 1)	106
〈표 2-9〉 주요 화훼류의 2020년 4~12월 판매량 추정치 대비 변화 전망 (시나리오 2)	106
〈표 2-10〉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절화류 및 호접란 생산액 감소 영향 (시나리오 2)	107
〈표 2-11〉 1999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내용	107
〈표 2-12〉 외환위기(1998년) 시 주요 화훼류 가격 전년 대비 등락률	108
〈표 2-13〉 소비심리 동향 및 지출전망	111
〈표 2-14〉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전국)	114
〈표 2-15〉 농업부문 제도별 외국인 근로자 주요 출신국 및 입국시기	115
〈표 2-16〉 작물재배업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2015년)	117

〈표 2-17〉 축산업 축종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2015년 농업총조사)	117
〈표 2-18〉 2020년 농림어업 전년 동월 대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	118
〈표 2-19〉 시나리오 1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 전망	122
〈표 2-20〉 시나리오 2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 전망	124
〈표 2-21〉 최근 5년 귀농(2014~2018)자의 귀농 이유	125
〈표 2-22〉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품목과 지역분포	127
〈표 2-23〉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세부품목	127
〈표 2-24〉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128
〈표 2-25〉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	129
〈표 2-26〉 품목별·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 (3월, 4월, 5월)	130
〈표 2-27〉 품목별 내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1순위, 2순위 중복응답)	131
〈표 2-28〉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에 따른 품목별 내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1순위, 2순위 중복응답)	133
〈표 2-29〉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3월, 4월)	133
〈표 2-30〉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어려움 정도 (3월, 4월)	134
〈표 2-31〉 품목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 ..	135
〈표 2-32〉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코로나19 발생 이후(3월, 4월) 근로자 지급 임금 변화	137
〈표 2-33〉 2007~2011년 전년 동월 대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	138
〈표 2-34〉 식품 제조업 출하 및 물가 동향	145
〈표 2-35〉 식품 제조업 고용 동향	146
〈표 2-36〉 식품제조업 과거 경제위기 비교 및 시나리오 전망	148

〈표 2-37〉 외식업 생산 및 물가 동향	151
〈표 2-38〉 외식업 고용 동향	153
〈표 2-39〉 일반음식점 창·폐업 동향	153
〈표 2-40〉 외식업 고객 수 감소율 시나리오 전망(발생 전 대비)	154
〈표 2-41〉 외식업 과거 경제위기 비교 및 시나리오 전망	155
〈표 2-42〉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공급 흐름	156
〈표 2-43〉 식품제조업의 원료별 사용량 및 구매금액	157
〈표 2-44〉 식품제조업의 국산 사용량 기준 원료(품목) 구분	158
〈표 2-45〉 외식업 품목별 식재료 구매형태 및 영향 전망	159
〈표 2-46〉 취약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174
〈표 2-47〉 코로나19 발생 이전/이후의 한 달 평균 전체 식품 구입비	175
〈표 2-48〉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 식품소비 지출액 변화	176
〈표 2-49〉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상시보다 소비를 크게 줄인 식료품	176
〈표 2-50〉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소비행태 변화	177
〈표 2-51〉 농식품 부류별 월별 수입 동향	178
〈표 2-52〉 농식품 주요 품목 월별 수입 동향	179
〈표 2-53〉 우리나라 농식품 부류별 월별 수출 동향	180
〈표 2-54〉 우리나라 농식품 품목별 월별 수출 동향	181
〈표 2-55〉 주요 수출시장 식품 수급 및 투입재 동향	181
〈표 2-56〉 주요국의 코로나19/애그플레이션 대응 농식품 수출제한조치 비교 ..	183
〈표 2-57〉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산 농식품 수출의 위기/기회 요인	190
〈표 2-58〉 신선농산물 2020년 1~4월 수입 동향	194
〈표 2-59〉 가공식품 2020년 1~4월 수입 동향	195
〈표 2-60〉 신선농산물 2020년 1~4월 수출 동향	196

〈표 2-61〉 가공식품 2020년 1~4월 수출 동향	197
〈표 2-62〉 주요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	198
〈표 2-63〉 코로나19 대응 국가별 농식품 수출제한조치현황	199
〈표 2-64〉 주요 작물의 파종 및 수확 작업에 대한 국제식량기구(FAO) 권장사항	200
〈표 2-65〉 주요 농식품의 운송방법별 수출 동향	201
〈표 2-66〉 주요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항만관리 대책	203
〈표 2-67〉 주요 농식품 공급 및 수출 현황(업체조사)	208
〈표 2-68〉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 추정	241

제1장

<그림 1-1> 20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의 월별 변동 추이 6

<그림 1-2> 20년 원-달러 환율 추이 7

<그림 1-3> 20년 국제유가 추이 8

<그림 1-4>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비교 9

<그림 1-5> 주요 곡물별 선물가격 추이 13

<그림 1-6> 농산물 구매와 조리 패턴 변화 18

<그림 1-7>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 19

<그림 1-8>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 20

<그림 1-9> 온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 22

<그림 1-10> 20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의 월별 변동 추이 31

<그림 1-11> 20년 환율 및 국제유가 추이 33

<그림 1-12>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른 파급영향 경로 37

<그림 1-13> GDP디플레이터변화율,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파급영향 경로 54

제2장

<그림 2-1> 주요 품목 평년 대비 가격 증감률 평균(1~4월 중순) 95

<그림 2-2> 소비자 절화류 구입 목적과 절화류 월별 가격 101

<그림 2-3> 1990~2000년 화훼·절화 생산액 추이 및 외환위기 영향 109

<그림 2-4> 농림어업 취업자 수 연 변화율: 1994~2019 119

<그림 2-5> 농업 고용인력(상용+임시) 변화 120

<그림 2-6> 귀농 및 귀촌 후 영농종사 가구 / 농업종사기간 6년 이상
 종사자 변화 120

〈그림 2-7〉 농림어업 고용인력 변화율 추이: 1994~2019	126
〈그림 2-8〉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 비교(전년 동기 대비) 139	
〈그림 2-9〉 식료품 출하지수와 식품 실질 출하액 추이	144
〈그림 2-10〉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145
〈그림 2-11〉 외식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150
〈그림 2-12〉 외식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151
〈그림 2-13〉 외식업 카드매출 주간 동향(기재부)	152
〈그림 2-14〉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식업계 영향체계도	153
〈그림 2-15〉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공급 흐름	156
〈그림 2-16〉 2015년 농림수산업,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 공급 흐름	160
〈그림 2-17〉 1회 평균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액 변화	168
〈그림 2-18〉 코로나19 이후 농식품의 국내 생산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168
〈그림 2-19〉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170
〈그림 2-20〉 코로나19와 메르스/신종플루 우려 정도 비교	170
〈그림 2-21〉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72
〈그림 2-22〉 코로나19 발병건수와 식품교역 제한국가 수 추이	182
〈그림 2-23〉 코로나19 항공 여객 수송 변동추이	210
〈그림 2-24〉 농촌관광객 변화 추세	219
〈그림 2-25〉 과거 농촌관광의 목적과 향후 수요	221
〈그림 2-26〉 연도별/월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 변화 추이	222
〈그림 2-27〉 정책금융 잔액 추이	229
〈그림 2-28〉 농가경제지표 추이	229
〈그림 2-29〉 판매금액별 고용원이 있는 농가 비중	231
〈그림 2-30〉 도농 소득비교	235

제1장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



1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

1. 검토배경

□ 검토 필요성

- 유례없는 감염병(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동제한, 국가 간 입국제한 등의 섣다운 조치가 강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위축상황이 발생, 경기 침체가 초래
 - 세계경제 위축,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도 급락하는 위기 발생

- 경기 침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농산물 소비가 많은 외식산업이 극심히 위축되고, 농업생산도 외국인 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
 - 학교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수요 축소, 농촌방문 자제 등 애로

- 코로나19의 농업·농촌부문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경영위험에 대비, 농업·농촌의 기반유지 보완대책 수립 필요

○ 정부도 3차에 걸친 추경대책, 한국판 뉴딜정책 등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 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등 보완대책을 추진

○ 코로나19의 향후 진행과 경제영향 전망은 어렵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농업·농촌부문 영향평가는 대책 수립의 기초

□ 코로나19 진행

○ 국내 확진자 수는 '20. 5. 4. 기준 10,801명으로 일일 확진자 수는 10명 내외

○ 국외 확진자 수는 '20. 5. 4. 기준 미국(1,157,687명)과 유럽(스페인(217,466명), 이탈리아(210,717명))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

□ 시나리오 설정

○ 국내외 코로나19 전염 지속기간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1: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 국외 확산 지속

- 시나리오 2: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2. 대내외 여건 변화

2.1.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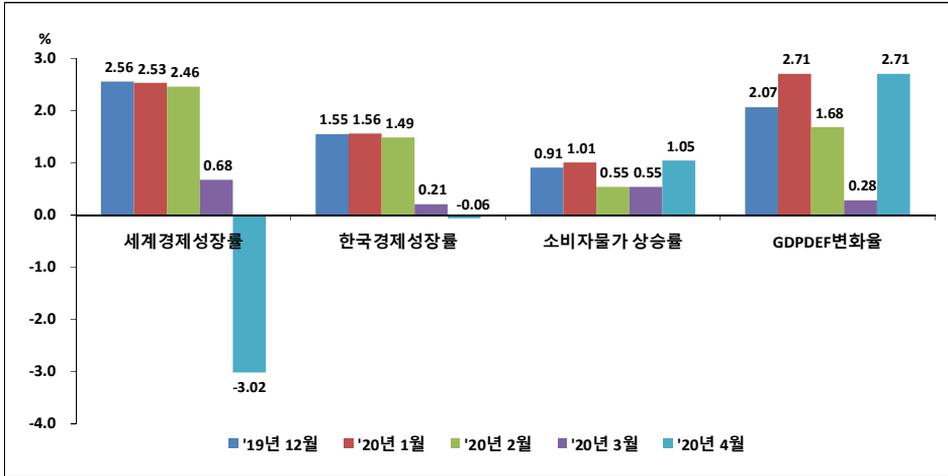
○ 중국, 한국 이외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이후 실물경기의 위축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심화

- Global Insight 전망: ('19. 12.) 2.56%→('20. 1.) 2.53→('20. 2.) 2.46→('20. 3.) 0.68→('20. 4.) -3.02%→('20. 5.) -5.49%로 계속 하향 조정
- IMF(4.14)는 세계경제성장률 3.3%→-3.0%, 중국경제 3.6→1.2, 미국은 2.0→-5.9, EU지역은 1.3→-7.5, 일본 0.7→-5.2, 신흥국 4.4→-1.0로 하향 조정

○ 한국경제성장률도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전망

- Global Insight 전망: ('19. 12.) 1.55%→('20. 1.) 1.56→('20. 2.) 1.49→('20. 3.) 0.21→('20. 4.) -0.062→('20. 5.) -0.94로 하향 조정
- IMF의 경우 한국경제성장률을 2.2% → -1.2로 하향 전망

그림 1-1 20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의 월별 변동 추이



자료: Global Insight.

○ (경기 침체 공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공포 수준의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 금융시장(환율 및 금리)

○ 세계경제 불황위험 전망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강세 지속, 원화 약세로 환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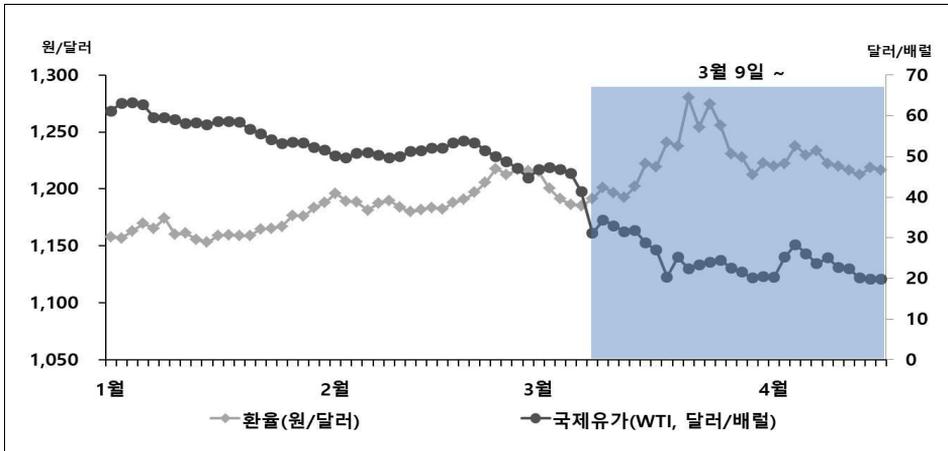
- 미국의 0%까지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QE)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 상승이 지속, 1,280원(3.20.)까지 상승 후 1,227원(5.4.)

○ 한-미 통화스와프(600억 달러) 체결, 코로나19 금융안정대책 효과, 금융정책의 국제적 공조 등으로 원화 환율은 1,220원 수준에서 안정

- 세계경제의 불황공포 확산, 중국의 기업부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 등은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전망

- 환율 상승은 수입곡물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입 감소와 농자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농산물 수출엔 긍정적 효과
- 5년 국고채 금리는 5월 4일 기준금리 인하(1.25%→0.75), 양적완화 및 채권 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1.215% 수준을 유지

그림 1-2 20년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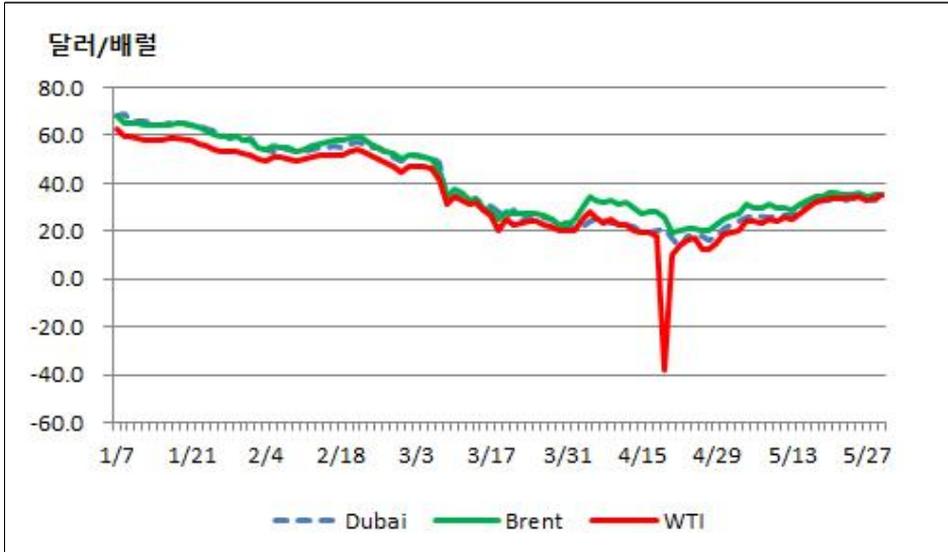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석유공사.

□ 국제유가 동향

-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세계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 OPEC+ 감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폭 상쇄 부족 우려로 전년 대비 하락세를 지속하다 5월 WTI는 회복세 전환
 - WTI (3월) 30.4달러/배럴 → (4월) 20.2달러/배럴 → (5월) 28.5달러/배럴
 - 브렌트유 (3월) 33.7달러/배럴 → (4월) 26.6달러/배럴 → (5월) 32.4달러/배럴
 - 두바이유 (3월) 33.7달러/배럴 → (4월) 20.3달러/배럴 → (5월) 30.4달러/배럴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0년 2/4분기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 가격을 전 분기 대비 각각 56.4%와 55.3% 하락한 배럴당 20.2달러와 22.8달러로 전망

그림 1-3 20년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 국제물류

- 선박·항공물류 감소, 국경봉쇄 및 이동제한 등에 따라 국가 간 물적·인적 교류의 위축으로 국제적 공급망(GSC)의 위기 직면
- 해운 전문분석기관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내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2020년 1분기 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 총합은 전년 동기 대비 600만 TEU¹⁾ 이상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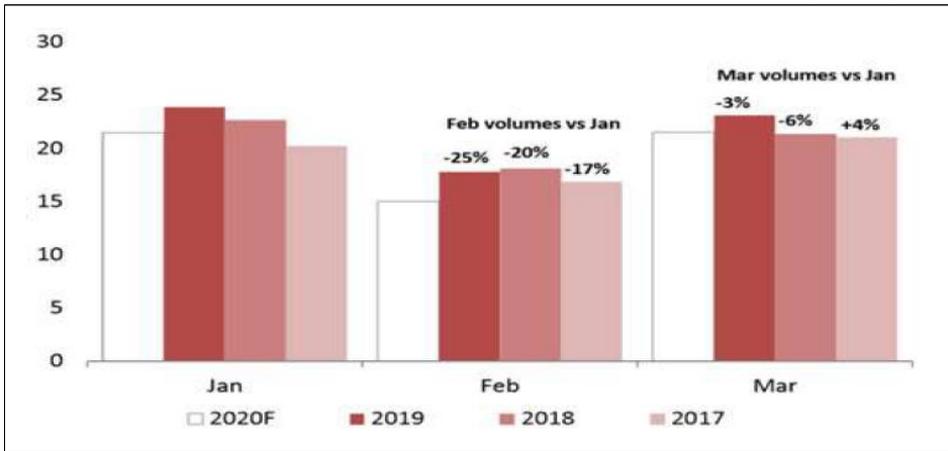
¹⁾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20피트 컨테이너를 의미함.

- 아시아-유럽 항로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의 감선·감편을 추정(한국 해양수산개발원, KMI동향분석 165호, 2020.02).

-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0.3~0.4%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곡물 수입은 대체로 파나마스선급 등 건화물선을 이용하여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양호, 곡물 수입에 큰 문제는 없으나 하역 및 선적 지체 영향은 발생
- 딸기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활용되는 항공은 또 다른 국제물류인 항공 결항으로 영향이 발생

그림 1-4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비교

단위: 백만 TEU



자료: Alphaliner(20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재인용).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항만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각국의 검역 절차가 강화되어 운송지연 우려가 존재

- (브라질) 입항 48시간 전 선원 건강 상태 기록 확인 후 입항 허가, 코로나19 증상 의심 선원 발생 시 선박 14일 격리 조치
- (아르헨티나) 4월 26일까지 사회적 격리 기간 연장, 농업 및 무역 관련업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
- (미국)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상운송 종사자는 필수근무인력으로 분류되어 정상 근무
- (인도네시아) 외국에서 입항한 선박들은 앵커리지에서 검사 후 입항 가능, 감염자 발생 시 격리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 본선은 잠복기인 14일간 작업 불가
- (중국) 중국에서의 선원 교체 및 하선은 불허, 불가피할 경우 항만청의 사전 승인 필수
- (베트남) 외국에서 입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검역관 승선 및 건강 상태 확인

2.2. 국제 곡물시장 동향

□ 국제 곡물시장 동향

○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 국제 곡물 선물가격은 품목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옥수수과 콩은 1월 부터 현재까지 하락하는 추세이며, 밀은 4월 소폭 상승하였으나 5월에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
- 밀의 경우, 3월 하순 밀가루, 빵, 면 등 밀 관련 제품 수요 급증 영향이 4월 초순에도 지속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시기(2008년)와 같은 애그플레이션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1-1 2020년 국제 곡물가격(선물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밀	208	202	197	199	188
옥수수	152	149	142	127	126
콩	337	325	319	311	310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CME.

○ 2020년 5월 국제 곡물 수입량은 품목별·용도별로 상이

- 사료용 곡물은 전월 대비 모든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밀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
- 식용의 경우 모든 품목들의 수입량이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옥수수는 증가

표 1-2 2020년 주요 국제 곡물 수입량과 수입액 추이

단위: 톤, 천 달러, %

구분		1월	2월	3월	4월(A)	5월(B)	증감률	
식용	밀	물량	195,259	249,992	217,804	199,919	169,802	-15.1
		금액	51,236	66,324	59,177	55,165	47,974	-13.0
	옥수수	물량	281,950	149,803	111,077	148,699	224,353	50.9
		금액	61,416	31,728	23,600	32,656	49,605	51.9
	식용 콩	물량	5,932	37,102	33,944	38,721	6,979	-82.0
		금액	3,842	20,788	20,934	22,477	4,955	-78.0
채유용 콩	물량	84,694	61,235	92,519	94,137	85,991	-8.7	
	금액	34,278	25,072	38,121	38,389	34,069	-11.3	
사료용	밀	물량	88,183	105,839	70,478	62,964	140,903	123.8
		금액	18,904	23,179	15,824	13,679	32,141	135.0
	옥수수	물량	759,210	846,527	744,468	783,391	810,313	3.4
		금액	152,699	172,088	153,194	164,367	173,113	5.3
	대두박	물량	136,560	154,088	147,890	142,682	162,845	14.1
		금액	51,624	57,991	54,310	52,434	60,109	14.6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2020년 5월 곡물 수입단가를 품목별·용도별로 살펴보면, 식용의 경우 채유용 콩은 전월 대비 하락, 밀과 식용콩, 옥수수는 상승하였고, 사료용의 경우, 모든 품목에서 전월 대비 상승
- 5월 곡물 수입단가는 식용 밀과 채유용 콩, 사료용 밀과 대두박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고, 다른 품목들은 모두 상승
- 국제 곡물가격 하락이 가격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대미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표 1-3 2020년 주요 국제 곡물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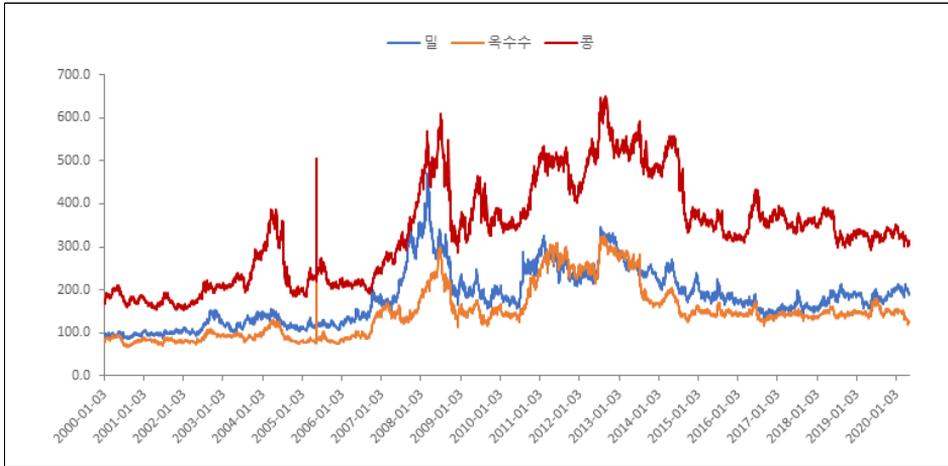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식용	밀	262 (-7.8%)	265 (-7.8%)	272 (-7.2%)	276 (-5.3%)	283 (-3.6%)
	옥수수	218 (0.5%)	212 (-3.2%)	212 (-3.9%)	220 (0.2%)	221 (2.5%)
	식용 콩	648 (27.9%)	560 (-6.5%)	617 (20.5%)	580 (-8.2%)	710 (36.4%)
	채유용 콩	405 (-2.5%)	409 (-0.6%)	412 (2.0%)	408 (1.1%)	396 (-0.2%)
사료용	밀	214 (-4.6%)	219 (-2.3%)	225 (-6.4%)	217 (-11.2%)	228 (-5.2%)
	옥수수	201 (-4.2%)	203 (-2.1%)	206 (0.0%)	210 (1.3%)	214 (3.4%)
	대두박	378 (-16.7%)	376 (-14.1%)	367 (-15.7%)	367 (-11.5%)	369 (-7.4%)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그림 1-5 주요 곡물별 선물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CME.

□ 국내공급 동향과 전망

○ 국제 곡물 수입은 식품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4월 식품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²⁾

- 식품 물가지수는 식용유, 국수, 두유, 과자류 등이 하락을 견인

○ 수입 곡물 실수요업체(제분, 전분, 채유, 사료 등)의 경우 현재 3/4분기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

- 3/4분기 국내 도착분에 대한 계약은 완료되었고, 업계 상황에 따라 4/4분기 국내 도착분에 대한 구매를 진행 중

- 식용 곡물을 취급하는 실수요업체들의 창고와 항만 보유량, 현재 운송 중인 물량까지 포함하면 식용 곡물은 1~3개월 사용분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²⁾ 4월 배합사료 물가지수는 5월 중순 이후로 발표됨.

○ 현재까지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곡물 수출 쿼터를 도입하거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발동되었으나,³⁾ 주요 곡물 수출국에서의 항구봉쇄 조치는 없는 상황으로 국내 곡물 도입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 한편, 곡물 수입은 주로 파나마스선급 등 건화물선을 이용하며, 벌크선 운송 흐름도 양호하여 해상물류에도 지장이 없음.

-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각국의 항구에서 검역을 강화하여 운송 지연 문제는 발생하는 상황

※ 우리나라는 사료용 밀과 식용 옥수수의 일부 물량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의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식용 밀(미국, 호주, 캐나다로 수입국 한정)의 경우와는 달리 원산지를 특정하지 않고 글로벌 공급사로부터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두 국가의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 등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항구봉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매입계약된 곡물도 항구봉쇄로 선박이 입출항하지 못하여 곡물 수입에 차질이 예상됨.

- 수입선 대체도 쉽지 않음. 수입 곡물 실수요업체들은 통상 국내 도착 기준 4~6개월 전 선 구매계약을 체결함. 만약 봉쇄조치를 염두에 두고 기계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업계 자금 융통 여건상 불가능하고, 봉쇄조치 직후 다른 국가를 통한 구매계약 및 선적이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해상운송에만 40일 전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대안이 없는 상황임.

³⁾ 러시아는 6월까지 곡물 수출을 700만 톤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수출 쿼터 소진 시 7월 1일까지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발표함. 4월 26일 기준 쿼터물량이 소진되어 신곡이 출하되는 7월까지 신규 수출 계약은 중단되고 쿼터 내 수출물량에 대한 선적작업만 이루어질 예정임. 베트남은 쌀 수출 쿼터 40만 톤을 설정하였으나 소진 속도가 빨라 50만 톤까지 증대하였고, 4월 28일에는 수출 쿼터를 철회하고 5월부터 쌀 수출을 완전히 재개한다고 발표함.

- 따라서 항구봉쇄 조치가 없는 현시점에서의 곡물 수입 불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미환율 상승에 따른 곡물 수입단가 상승이 예상되며, 향후 국내 식품 및 배합사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3. 농업·농촌부문 코로나19 주요 영향

3.1. 코로나19 소비영향 조사

3.1.1. 농업관측 소비자 패널 대상 코로나19의 농산물 소비 영향

□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이후의 소비행태 비교 조사(1차, 2차 조사)

- 1차(코로나19 대구·경북 확산 초기): 2. 21.(금) ~ 23.(일), 557명
- 2차(확진자 감소세 전환 초기): 3. 11.(금) ~ 15.(일), 661명

○ 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한 소비행태 조사(3차, 4차 조사)

- 3차(확진자 감소세 지속): 3. 31.(수) ~ 4. 2.(목), 623명
- 4차(확진자 감소세 지속): 4. 20.(월) ~ 22.(수), 617명
- 5차(확진자 감소세 지속): 5. 15.(금) ~ 18.(일), 609명

□ 구매·조리 패턴 변화

○ (1, 2차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음식점·매장 방문 빈도 감소와 가정조리 증가 추세 뚜렷

- (음식점 방문) 방문 빈도 감소 추세(감소 비중 81.8%에서 90.7%로 확대)
- (매장 방문)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매장 방문 빈도 감소 추세(감소 비중 66.9%에서 69.7%로 확대)
- (가정조리)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정조리 빈도 증가 추세(증가 비중 70.5%에서 81.8%로 확대)

- (배달음식) 코로나19 전후 배달음식 이용 빈도는 대체로 비슷
- (3~5차 조사 결과)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했을 때 음식점·매장 방문 비중은 회복세
 - (음식점 방문) ‘늘었음’의 비율 증가, ‘줄었음’의 비율 감소
 - (‘늘었음’: 0.6% → 9.7% → 21.2%, ‘줄었음’: 88.2% → 63.0% → 47.5%)
 - (매장 방문) 최근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매장 방문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늘었음’: 7.6% → 20.2% → 25.7%, ‘줄었음’: 55.6% → 32.5% → 25.4%)
 - (가정조리) 가정조리 빈도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
 - (‘늘었음’: 81.2% → 66.4% → 56.4%, ‘줄었음’: 0.5% → 3.2% → 6.1%)
 - (배달음식) 배달음식 이용 빈도는 대체로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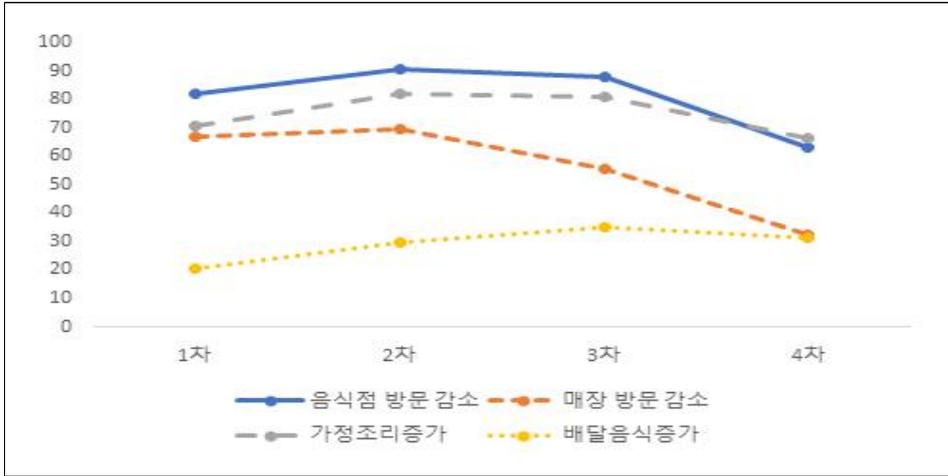
표 1-4 농산물 구매와 조리 패턴 변화(1~2차)

단위: %

구분	1차			2차			차이(%p)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음식점 방문	0.7	17.5	81.8	0.5	8.8	90.7	-0.2	-8.7	8.9
매장 방문	1.6	31.4	66.9	5.0	25.3	69.7	3.4	-6.1	2.8
가정조리	70.5	27.2	2.3	81.8	16.9	1.3	11.3	-10.3	-1.0
배달음식	20.4	51.5	28.2	29.9	40.4	29.7	9.5	-11.1	1.5

주: 매장 방문은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을 의미.
 자료: KREI 조사 결과.

그림 1-6 농산물 구매와 조리 패턴 변화



자료: KREI 조사 결과.

표 1-5 농산물 구매와 조리 패턴 변화(3~5차)

단위: %

구분	3차			4차			5차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음식점 방문	0.6	11.1	88.2	9.7	27.4	63.0	21.2	31.3	47.5
매장 방문	7.6	36.8	55.6	20.2	47.4	32.5	25.7	48.8	25.4
가정조리	81.2	18.4	0.5	66.4	30.4	3.2	56.4	37.5	6.1
배달음식	35.3	43.5	21.2	31.4	50.2	18.3	27.9	54.2	17.9

주: 매장 방문은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을 의미.

자료: KREI 조사 결과.

□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

○ (1, 2차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병 이전 대비 축산물 외식 빈도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

- 1차 대비 2차 축산물 외식 빈도 감소(쇠고기 14.1%p, 돼지고기 10.5%p 감소)

표 1-6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1~2차)

단위: %

구분	1차			2차			차이(%p)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쇠고기	4.0	47.9	48.1	6.4	31.4	62.2	2.4	-16.5	14.1
돼지고기	4.0	47.1	49.0	13.7	26.7	59.5	9.7	-20.4	10.5
닭고기	5.9	45.7	48.4	9.8	29.8	60.4	3.9	-15.9	12.0
오리고기	1.7	42.3	56.1	3.5	29.2	67.3	1.8	-13.1	11.2

자료: KREI 조사 결과.

- (3~5차 조사 결과) 최근 축산물 외식 빈도 감소세가 줄어드는 추세
- 3차 조사 대비 4차와 5차 축산물 외식 빈도는 ‘비슷함’으로 전향(‘늘었음’ 비중 소폭 증가, ‘줄었음’ 비중 감소, ‘비슷함’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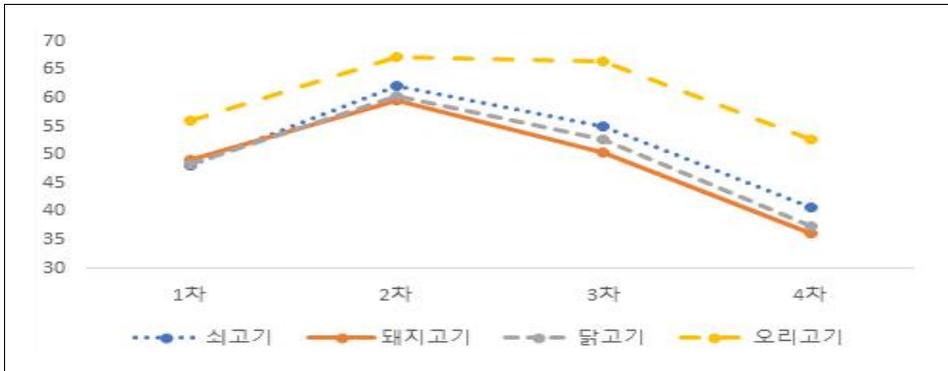
표 1-7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3~5차)

단위: %

구분	3차			4차			5차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쇠고기	11.1	34.0	54.9	11.1	48.2	40.8	15.3	55.7	29.1
돼지고기	19.6	30.0	50.4	24.3	39.5	36.2	26.9	46.2	26.9
닭고기	12.2	35.3	52.6	14.9	47.6	37.4	16.7	55.4	27.9
오리고기	4.4	29.2	66.4	4.8	42.6	52.7	5.1	57.3	37.6

자료: KREI 조사 결과.

그림 1-7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



자료: KREI 조사 결과.

□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

○ (1차, 2차 조사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 구입한 횟수는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

-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 시 매장 방문 빈도 증가
- 신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류와 계란 및 유제품의 오프라인 이용 비율 회복세가 여타 농산물 대비 빠름(육류: 16.9%p, 계란 및 유제품: 16.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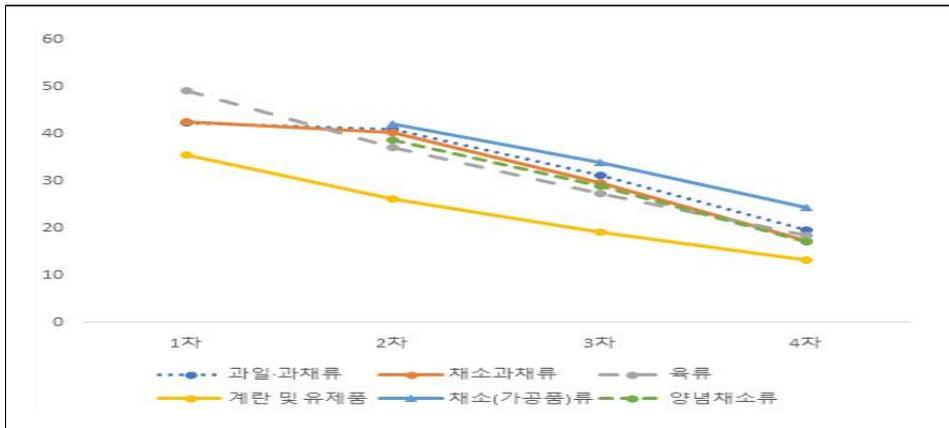
표 1-8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1~2차)

단위: %

구분	1차			2차			차이(%p)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과일·과채류	9.9	47.7	42.4	18.0	41.1	40.9	8.1	-6.6	-1.5
채소과채류	7.9	49.5	42.6	16.9	42.7	40.4	9.0	-6.8	-2.2
육류	8.5	42.3	49.2	25.4	37.4	37.2	16.9	-4.9	-12.0
계란 및 유제품	14.9	49.5	35.6	31.0	42.8	26.2	16.1	-6.7	-9.4
채소(가공품)류	-	-	-	16.8	41.1	42.1	-	-	-
양념채소류	-	-	-	16.1	45.1	38.8	-	-	-

주: 2월 1차 조사 당시 채소(가공품)류 및 양념채소류 항목은 조사하지 않음.
자료: KREI 조사 결과.

그림 1-8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



주: 2월 1차 조사 당시 채소(가공품)류 및 양념채소류 항목은 조사하지 않음.
자료: KREI 조사 결과.

표 1-9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3~5차)

단위: %

구분	3차			4차			5차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과일·과채류	26.0	42.9	31.1	30.3	50.1	19.6	34.8	49.7	15.5
채소과채류	22.4	48.0	29.6	33.7	49.0	17.3	39.8	47.9	12.3
육류	27.3	45.4	27.3	33.7	47.9	18.4	34.2	52.4	13.4
계란 및 유제품	36.8	44.0	19.2	42.6	44.2	13.2	42.1	49.4	8.5
채소(가공품)류	15.8	50.2	34.0	23.1	52.6	24.4	23.6	57.1	19.3
양념채소류	20.0	51.1	28.9	27.0	55.8	17.1	29.4	55.6	15.1
곡물류	-	-	-	-	-	-	27.9	58.9	13.3

자료: KREI 조사 결과.

○ (3~5차 조사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 구입한 횟수는 이전 차수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회복)하는 추세

- 3차 조사에 비해 4차와 5차 조사 시 매장 방문 빈도 ‘늘었음’ 응답자 비율 증가, ‘줄었음’ 응답자 비율 감소(계란 및 유제품만 ‘늘었음’ 비율이 소폭 감소)
- 3~5차 조사 시 매장 방문 빈도 ‘비슷함’ 응답자가 가장 많음.

□ 온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

○ (1차, 2차 조사 결과) 온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빈도는 대체로 증가

- 과일·과채류의 구매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늘었음’: 15.6%p 증가)

표 1-10 온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1~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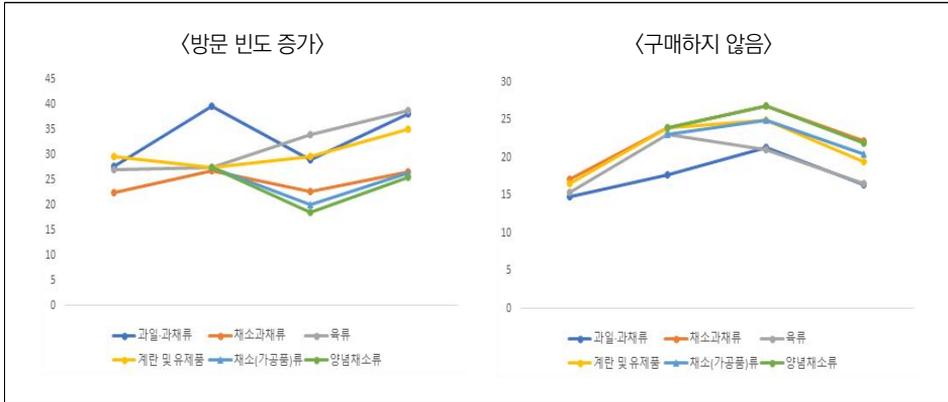
단위: %

구분	1차			2차			차이(%p)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과일·과채류	32.4	57.9	9.7	48.0	42.2	9.8	15.6	-15.7	0.1
채소과채류	27.2	62.2	10.7	35.2	54.6	10.2	8.0	-7.6	-0.5
육류	31.8	53.5	14.7	47.1	42.9	10.0	15.3	-10.6	-4.7
계란 및 유제품	35.3	56.3	8.4	45.0	47.8	7.1	9.7	-8.5	-1.3
채소(가공품)류	-	-	-	35.7	53.7	10.6	-	-	-
양념채소류	-	-	-	36.1	53.0	10.9	-	-	-

주: 2월 1차 조사 당시 채소(가공품)류 및 양념채소류 항목은 조사하지 않음.

자료: KREI 조사 결과.

그림 1-9 온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



자료: KREI 조사 결과.

○ (3~5차 조사 결과) 이전 차수에 비해 온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빈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감소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3차 조사 대비 4차, 5차 조사에서 '늘었음' 응답자 감소
- 3차 조사 대비 4차 조사에서는 과일·과채류를 제외하고 '줄었음' 응답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5차 조사에서 큰 폭으로 증가(과일·과채류의 경우 4차 조사에서 '줄었음' 비율이 0.5%p 감소했으나, 5차에서 10.7%p 증가)

표 1-11 온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3~5차)

단위: %

구분	3차			4차			5차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과일·과채류	45.4	44.0	10.6	36.9	53.0	10.1	26.0	53.1	20.8
채소과채류	34.1	55.9	10.0	31.0	58.1	10.9	25.3	54.8	19.9
육류	46.4	45.0	8.6	43.0	47.2	9.9	31.6	53.0	15.4
계란 및 유제품	43.5	49.6	6.9	39.4	52.2	8.4	34.0	51.5	14.5
채소(가공품)류	33.2	54.6	12.2	26.6	61.1	12.3	20.0	56.8	23.2
양념채소류	32.6	56.6	10.7	25.5	62.3	12.3	22.0	58.0	20.0
곡물류	-	-	-	-	-	-	28.5	57.8	13.7

자료: KREI 조사 결과.

□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장 방문과 외식은 감소하고, 가정조리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최근 점차 회복하는 추세
 - 1, 2차 조사 결과 매장 방문, 외식은 감소하고, 가정조리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3~5차 조사 결과에서 가정조리 비중은 감소하고 매장 방문, 외식 비중이 증가

-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는 코로나 발병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증가하는 추세
 - 1, 2차 조사 결과 매장 방문 빈도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3~5차 조사에서 '늘었음' 응답자 비중 증가 추세

- 온라인 매장을 이용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확산 초기에 증가했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
 - 코로나19 여파로 비접촉·비대면 소비 트렌드로 변화
 - 코로나19 여파가 주춤한 3~5차 조사에서 '늘었음' 응답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조사에 비해 5차 조사에서 '줄었음'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3.1.2. 코로나19 영향 관련 도시민 설문조사

□ 조사개요: 전화조사

- 조사방법: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를 활용한 전화조사
- 조사시기: 2020년 4월 25일 ~ 4월 27일
-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남녀로 총 1,011명이 응답하였음. 주요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1-1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1,011	100.0
지역별	서울	251	24.8
	인천/경기	357	35.3
	부산/경남/울산	137	13.6
	대구/경북	81	8.0
	광주/전라	71	7.0
	대전/충청	84	8.3
	제주/강원	30	3.0
성별	남자	517	51.1
	여자	494	48.9
연령	19~29세	195	19.3
	30대	175	17.3
	40대	219	21.7
	50대	240	23.7
	60대	182	18.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61	6.0
	고졸	248	24.5
	대재 이상	701	69.3
	무응답	1	.1
월평균 가구소득별	200만 원 미만	119	11.8
	200만~300만 원 미만	131	13.0
	300만~400만 원 미만	149	14.7
	400만~500만 원 미만	142	14.0
	500만 원 이상	368	36.4
	무응답	102	10.1

자료: KREI 조사 결과.

□ 주요 조사 결과

○ (외식감소 정도는 약 60% 이상)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79.5%였으며, 이들은 외식 횟수(석 달 평균)가 평균 63.6% 감소했다고 답했음.

○ (농축산물 구매 시 국산 선호) ‘코로나19 이후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로 '구매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14.1%)보다 높은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로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32.1%)보다 낮았음.

*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 증가 응답 비중(27.1%) > 감소 응답 비중(14.1%)

*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 증가 응답 비중(7.0%) < 감소 응답 비중(32.1%)

○ (친환경농산물 구매 증가, 화훼 구매 감소) 코로나19 이후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은 증가한 반면, 꽃(절화), 화분 구입량은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았음.

* 친환경농산물 구매량: 감소 응답 비중(8.1%) < 증가 응답 비중(21.2%)

* 꽃(절화) 구매량: 감소 응답 비중(33.2%) > 증가 응답 비중(6.0%)

* 화분 구매량: 감소 응답 비중(25.3%) > 증가 응답 비중(10.7%)

○ (농업·농촌인식) 도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중요성 높아졌다'고 응답

-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9.5%,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74.9%였음.

-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욱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은 48.6%로, '덜 고려한다'는 응답(1.6%)보다 높았음.

-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은 20.3%였으며, '귀농·귀촌 의향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8.2%였음.

○ (양면적 농촌관광 전망) '코로나19 종식 후 연간 농촌관광 횟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44.5%)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12.9%)보다 높았음.

-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인원 중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평균 46.8% '늘

어날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감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평균 47.1% '줄어들 것이다'라고 답해 장단기 영향은 $\pm 50\%$ 정도로 판단됨.

□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공익적 기능, 식량안보, 귀농·귀촌 증가 등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장 방문과 외식은 감소하고, 가정조리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초기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
 - 1, 2차 조사 결과 매장 방문, 외식은 감소하고, 가정조리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3, 4차 조사 결과에서 가정조리 비중은 감소하고 매장 방문, 외식 비중이 증가
 - 코로나19 이후 일반음식점 농식품 공급경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안정적 수요 기반 구축이 필요
-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는 큰 폭 감소하였고, 온라인 매장을 이용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증가 추세
 - 코로나19 여파로 비접촉·비대면 소비 트렌드로 변화
 - 품목별로 차별적 변화 양상을 보임. 특히 '과일·과채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화훼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
 - 국내산 농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은 증가한 반면, 화훼 구입량이 감소했음. 꽃(절화), 화분 수요 증대를 위한 대책 필요

- 코로나19 종식 후 농촌관광 수요 확대 및 마이크로 투어리즘 등 관광양태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농촌관광정책 요구

3.2. 농업·농촌부문 코로나19 주요 영향

- 외식업수요 급감, 학교급식 중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은 생필품이라는 특성상 단기적으로 영향은 미미한 수준(화훼 예외)
 - 가정 내 소비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구매, HMR식품, 밀키트식품 등은 수요가 증가(식품산업의 성장 촉진), 외식업 침체
 - 과거 사례(금융위기 등)로 볼 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농식품 수요도 감소하여 농가경제 소득 감소가 발생
-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고랭지 농업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일손 부족의 문제가 발생
 - 2020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3,052명 입국 지연 및 고용 허가제(E-9)도 6,400명 중 720명만 입국
 - 도시부문의 실업과 공공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자 농업부문 일시 취업이 확대되고 3월 농업부문 고용이 증가, 노동력의 질은 하락
- 국제 곡물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국제물류 차질, 수출제한 조치 강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등의 우려는 상존
 - 국제 곡물 제고 수준이 적정하여 수입단가는 안정적으로 유지

- 농식품 수출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난대비용 식품(라면, 즉석밥 등) 및 면역개선 식품(인삼 등) 수출이 성장
 - 농식품 수출액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누계): (1월 2주) $\Delta 12.8 \rightarrow$ (2월 2주) $\Delta 2.2 \rightarrow$ (3월 2주) 4.1 \rightarrow (4월 2주) 2.7

- (농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등으로 농촌경제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농촌관광도 위축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전년 동기(4월 기준) 대비 $\Delta 78\%$ (33.5만 명), 매출액 $\Delta 73\%$ (20.5억 원)
 - 농촌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는 위기

- (농업·농촌 가치) 저밀도지역인 농촌지역의 가치가 증가하여 귀촌이 증가하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국민의식조사)

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4.1. 분석의 개요

4.1.1. 분석모형

- (모형)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08년 개발하고, 현실 설명력과 전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한 KREI-KASMO 모형을 이용함.
- (모형 범위) KREI-KASMO 모형은 국내농업부문 중심 부분균형모형으로 운용이 되며 해외농업수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율 및 유가 변동에 의한 국내 국제 곡물수입 영향, 해외 소비 위축 및 생산·수출 차질로 인한 국내 수출입 영향 등의 해외 수급과 생산에서 유통까지 국내 공급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가정을 통해 국내농업영향을 분석함.
- (거시경제지표) 모형 내에 거시경제지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거시경제가정을 외생적으로 모형에 반영함.
 - 과거 경제위기 지표와 현재 상황을 반영한 거시경제지표를 모형에 반영함 (참고 부록).
 - 과거에 없던(abnormal) 경기 침체를 모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향후 과제) 향후 국내외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국내외 경제

성장률, 환율, 유가 등을 모형에 반영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해외수급 및 시장 불확실성을 반영한 모형 개발도 필요

4.1.2. 시나리오 구성

□ 베이스라인

- 『농업전망 2020』('20. 1. 22.)의 농업총량 및 농가경제 전망치 산출에 사용된 당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 한국은행(한국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EIA(유가), IMF, World Bank(세계경제성장률), Global Insight(기타)

□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 (가정) 시나리오 1은 국외 확산은 지속되나 국내는 6월 말 이후 안정화하고, 시나리오 2는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 (세계 및 한국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후 World Bank, Global Insight, IMF에서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준용하여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설정
- (World Bank) 코로나19의 7가지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국가별 경제성장 영향 추정치 발표('20. 3. 30)
 - (Global Insight) '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표한 '20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었던 3월부터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
 - * 세계경제성장률: ('19.12.) 2.56% → ('20.1.) 2.53 → ('20.2.) 2.46 →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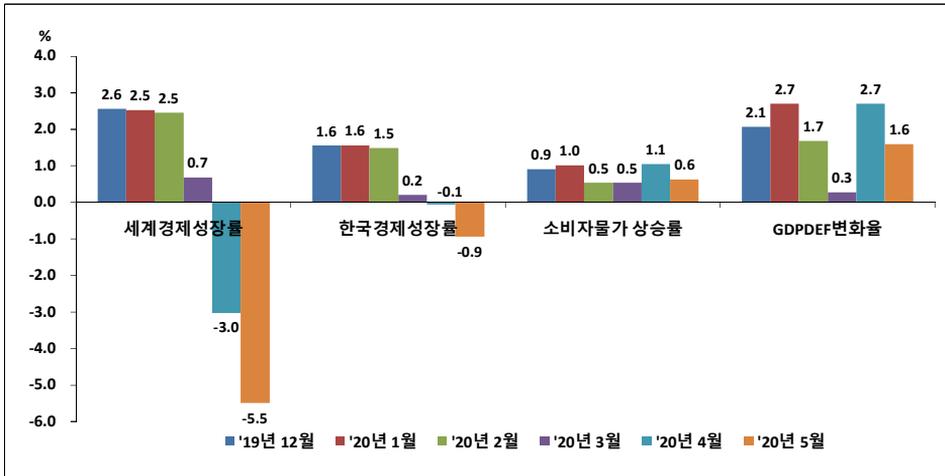
- 0.68 → ('20.4.) △3.02 → ('20.5.) △5.49
- * 한국경제성장률: ('19.12.) 1.55% → ('20.1.) 1.56 → ('20.2.) 1.49 → ('20.3.) 0.21 → ('20.4.) △0.06 → ('20.5.) △0.94
 - * 소비자물가상승률: ('19.12.) 0.91% → ('20.1.) 1.01 → ('20.2.) 0.55 → ('20.3.) 0.55 → ('20.4.) 1.05 → ('20.5.) 0.63
 - * GDPDEF변화율: ('19.12.) 2.07% → ('20.1.) 2.71 → ('20.2.) 1.68 → ('20.3.) 0.28 → ('20.4.) 2.71 → ('20.5.) 1.60

표 1-1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성장 영향 추정치(World Bank)

국가	국내 안정 (global pandemic)	세계 확산 (Amplified Global Pandemic)
World	-2.09%p	-3.86%p
한국	-2.44%p	-4.89%p
미국	-1.67%p	-3.40%p

주: 영향은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임.
 자료: World Bank(2020).

그림 1-10 20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의 월별 변동 추이



자료: Global Insight.

표 1-14 IMF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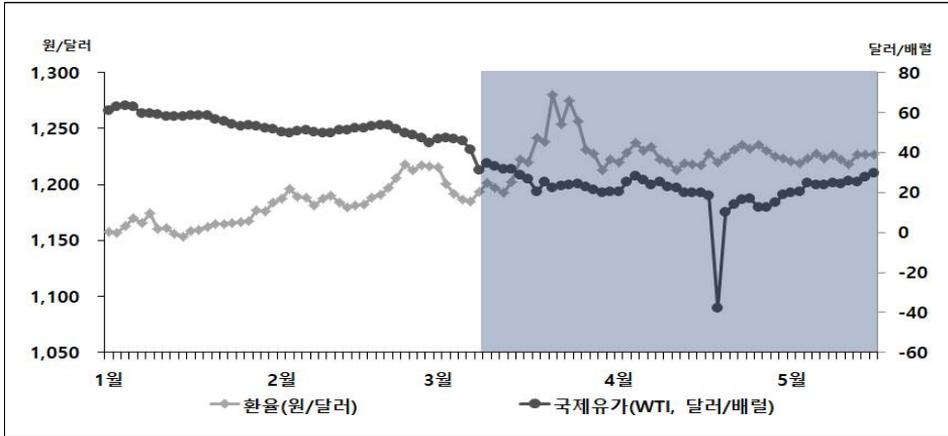
국가	2019	2020	
		기존 전망치	수정 전망치
World	2.9	3.3	-3.0(-6.3%p)
한국	2.0	2.2	-1.2(-3.0%p)
미국	2.3	2.0	-5.9(-7.9%p)

주: ()는 1월 전망치 대비 변화율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국제통계 국제구별통계 IMF 환율. 검색일: 2020. 4. 14.

- (IMF)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4월 14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
-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설정) 세계경제성장률은 Global Insight의 최근 전망치('20. 5. 15.)인 $\Delta 5.49\%$ 로 설정
 - 한국경제성장률은 가장 부정적인 World Bank($\Delta 2.59\%$) 전망치를 시나리오 2로, 가장 긍정적인 Global Insight($\Delta 0.94\%$) 전망치를 시나리오 1로 설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GDP디플레이터, 이자율은 Global Insight의 최근 전망치('20. 5. 15.)로 설정
- (유가·환율)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과 환율의 급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3월 9일~) 평균과 올해(1월 1일~) 평균을 범위로 설정
 - 국제유가와 환율은 변동성이 커 거시지표 전망치를 구간으로 설정
 - * 환율 변화율: 3.8% (3.9. 이전) 1,180.9원/달러 \rightarrow (3.9. 이후) 1,225.9
 - * 유가 변화율: -59.3% (3.9. 이전) 53.3달러/배럴 \rightarrow (3.9. 이후) 21.7

그림 1-11 20년 환율 및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표 1-1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시지표 전망치 가정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비고
세계 경제성장률(%)	2.80	-5.49		GI 전망치
한국 경제성장률(%)	2.30	-0.94	-2.59	World Bank, GI 전망치
소비자물가상승률(%)	1.00	0.63		GI 전망치
GDP디플레이터 변화율(%)	2.07	1.60		GI 전망치
환율(원/달러)	1167.7	1204.4~1227.0		최근 추이 반영
국제유가(달러/배럴)	59.25	21.7~39.8		최근 추이 반영
이자율(%)	1.54	1.35		GI 전망치

자료: World Bank(20.3.30.); Global Insight(20.5.15.); 한국석유공사; IMF(20.4.14.).

□ 시나리오 3

- (가정)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과 국산 농산물 수출량 고정
- (근거) 이론적으로는 환율 상승효과로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해외수출 항공편의 중단·감축 운행과 해외 유통매장 방문객의 감소로 현실적으로는 수출확대 가능성 미미
- 시나리오 2의 거시지표 전망치를 준용하되, 수출량 전망치가 베이스라인 대비 증가하는 경우 베이스라인(『농업전망 2020』)으로 고정

□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가정**

○ (노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인력 수급 어려움으로 인건비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노임은 베이스라인 대비 2.7~5.5%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관측본부의 표본농가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금 상승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밭작물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노임의 상승폭을 면밀히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구간으로 설정

○ (육류 수입단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의 육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육류 교역가격이 상승. 이를 반영하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단가는 베이스라인 대비 각각 3.0%, 8.5%, 2.6%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전년 동월 대비 수입가격 변화율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전인 1~2월과 확산 이후인 3~4월을 비교하면, 쇠고기(냉동)는 4.3%에서 7.1%로, 쇠고기(냉장)는 1.8%에서 4.4%로 확대. 돼지고기는 13.9%에서 22.4%로, 닭고기는 10.6%에서 13.2%로 확대

○ (육류 수요) 외출 자제로 가정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육류 수요가 크게 증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육류 수요는 베이스라인 대비 0.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과거 경제 위기 거시지표와 비교) 경제성장률, 환율, 국제유가 등의 절댓값을 과거 경제 위기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

○ 외환위기는 1997년 여름 아시아의 금융위기, 4/4분기 국내 기업 부도와 구제금융 신청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다음 해에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 금융위기는 2007년 4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 신청 등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촉발됨. 메르스는 5월 발생하여 7월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1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영향이 국내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적 영향이 상이할 것임.

-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금융위기(2008년) 시기의 2.8%나, 전년 대비 0.8%p 감소한 메르스 시기의 2.6%보다 기초 경제성장률 전망치(2.3%)가 낮은 경제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시나리오 1의 경제성장률 전망치($\Delta 0.94\%$)와 시나리오 2의 전망치($\Delta 2.59\%$)는 외환위기 발생 다음해(1998년 $\Delta 5.5\%$)에 이어 두번째로 낮음.
- 환율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가치가 증가했던 2008~2009년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이자율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함.
- 2008년은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국제 곡물가가 급등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시기임. 최근 상황은 셰일 오일 생산에 따른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실패에 따른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가는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 나타난 유가하락의 요인은 다양한데, 이 중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원유 수요 감소 효과를 다른 요인과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표 1-16 과거 경제 위기와 시나리오 전망별 경제지표 비교

구분	IMF		금융위기		메르스	기초전망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1998	1999	2008	2009	2015	2020	2020	2020
경제성장률 (%p)	-5.47 (-11.40)	11.30 (16.80)	2.80 (-2.70)	0.70 (-2.10)	2.60 (-0.79)	2.30 (0.30)	-0.94 (-3.24)	-2.59 (-4.89)
소비자물가 상승률(%p)	7.50 (3.10)	0.80 (-6.70)	4.70 (2.10)	2.80 (-1.90)	0.70 (-0.57)	1.00 (0.60)	0.63 (-0.37)	
이자율 (%p)	13.20 (1.00)	8.60 (-4.60)	5.40 (0.10)	4.60 (-0.70)	2.00 (-0.86)	1.54 (-0.06)	1.35 (-0.19)	
환율 (%)	1401.4 (47.3)	1188.8 (-15.2)	1102.1 (19.0)	1276.9 (16.0)	1131.2 (7.0)	1167.7 (0.1)	1204.4~1227.0 (0.03)~(0.05)	
국제유가 (%)	14.5 (-30.0)	19.3 (33.0)	99.6 (38.0)	61.7 (-38.0)	48.7 (-48.0)	59.3 (3.9)	21.7~36.8 (-59.3)~(-37.9)	
GDP 디플레이터 (%p)	4.5 (0.5)	-1.2 (-5.7)	2.8 (0.4)	3.6 (0.8)	3.2 (2.3)	2.1 (3.0)	1.6 (-0.5)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변화율(% 또는 %p).

자료: Global Insight; IMF; World Bank.

4.1.3. 거시지표 변동의 파급영향 경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개별 거시지표의 영향 경로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혼재

- (세계경제 위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국산 농산물의 해외시장 소비가 위축되며, 이로 인한 수출량 감소 및 총수요 감소가 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
- (한국경제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영향으로 가치분소득이 감소하며, 국내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
- (물가지수 하락) 가격지수 하락에 따른 실질가격 상승효과가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국내 수요가 감소하며, 이는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

4.1.4. 분석 결과 요약

□ (농업생산액) 수요 감소 영향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0.4~1.0% 감소

- (시나리오 1) 국내외 경제위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수요 감소 영향이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가격 상승 영향보다 커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
- (시나리오 2) 코로나19가 연중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폭이 커져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9% 감소
- (시나리오 3) 수출 제한으로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1.0% 감소
- (부류별) 화훼류의 생산액 감소폭이 가장 크고,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감소하고, 우제류와 과실류는 증가
 - (화훼류) 생필품이 아니라 기호품의 성격이 강하여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3월 성수기 소비 부진으로 생산액 감소는 베이스라인 대비 5.7~7.0% 감소
 - * 2월 졸업식·밸런타인데이, 3월 입학식·화이트데이 등 행사 취소로 특수기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
 - (과실류) 수입과일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와 국산과일의 수요 증가 효과가 경제위축의 수요 감소 효과보다 커 생산액 증가
 - (우제류) 수입량 감소와 국내 수요 증가로 생산액 증가

표 1-17 농업생산액 영향

단위: 십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농업 총생산액	50,428.4	50,438	-0.4%	-0.9%	-1.0%
재배업	30,705.4	30,572	-1.1%	-1.3%	-1.4%
곡물류	10,829.6	10,974	-1.1%	-1.4%	-1.4%
채소류	11,389.6	10,968	-1.4%	-1.9%	-2.0%
과실류	4,705.8	4,821	0.4%	0.9%	0.9%
화훼류	524.5	522	-5.7%	-6.7%	-7.0%
축산업	19,722.9	19,866	0.7%	-0.2%	-0.4%
우제류	14,322.6	14,394	1.5%	0.6%	0.5%
가금류	4,887.1	4,955	-1.1%	-2.5%	-3.0%

주: %는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 (교역조건) 유가 하락에 따른 구입가격 하락폭이 수요 감소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폭보다 커 베이스라인 대비 1.5~3.4% 개선

○ (판매가격) 코로나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0.5~1.0% 하락

- 수입 농산물은 감소하나 국산 농산물의 국내 및 해외 수요 감소로 농축산물 대부분은 하락

* 가격 하락폭: 화훼류 > 채소류 > 곡물류

* 축산물은 육류 수입량 감소와 가정 내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

○ (구입가격) 영농광열, 영농자재 등 경상재 가격이 큰 폭 하락하여 베이스라인 대비 2.0~4.2% 하락

- 영농광열비 19.5~38.1%, 영농자재비 3.8~7.7%, 비료 2.7~5.2% 하락

- 노임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2.6~5.2% 상승

표 1-18 농가교역조건지수(2015=100) 영향

구분	2019년	2020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교역조건	106.3	105.8	1.5%	3.4%	3.4%
농가판매가격지수	108.2	109.0	-0.5%	-0.9%	-1.0%
농산물	113.4	116.0	-1.3%	-1.4%	-1.4%
곡물류	118.5	117.8	-1.0%	-1.3%	-1.3%
청과류	112.6	117.0	-0.4%	-0.3%	-0.4%
채소류	100.5	105.0	-1.1%	-1.3%	-1.4%
과실류	131.4	135.6	0.4%	0.8%	0.8%
화훼류	109.2	112.9	-10.4%	-10.7%	-11.5%
축산물	99.4	97.2	1.0%	0.1%	0.0%
농업구입가격지수	101.7	103.0	-2.0%	-4.2%	-4.2%
투입재	97.8	99.3	-3.8%	-7.4%	-7.4%
경상재	95.2	96.7	-5.6%	-11.1%	-11.1%
종자	112.6	113.9	0.0%	0.0%	0.0%
비료	72.6	73.4	-2.7%	-5.2%	-5.2%
영농광열	103.8	106.5	-19.5%	-38.1%	-38.1%
영농자재	97.7	99.8	-3.8%	-7.7%	-7.7%
노임	119.2	122.5	2.6%	5.2%	5.2%
임차료	109.3	110.5	-0.1%	0.1%	0.1%
사료	98.2	99.3	0.0%	0.0%	0.0%

주 1)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2) 농업구입가격지수는 농가의 생계에 필요한 가계용품비(자동차 관리비, 유류비, 식사비, 핸드폰 요금 등)를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3) %는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무역수지) 환율 상승 영향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4.4~7.6% 개선

○ 모든 시나리오에서 수입 감소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커 무역수지 큰 폭으로 개선

○ (수입액) 환율 상승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3.4~5.5% 감소

- 오렌지 및 열대과일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채소류, 축산물, 곡물류 순

○ (수출액) 환율 상승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0.0~1.4% 증가

-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를 제거(시나리오 3)하면 수출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2.5% 감소

○ (자급률) 수입량 3.1~4.8% 감소로 자급률은 0.3~0.4%p 확대

표 1-19 무역수지 및 자급률 영향

단위: 억 달러, 천 톤

구분	2019년	2020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무역수지 적자(B-A)	210.5	222.6	-4.4%	-7.6%	-6.4%
총수입액(A)	276.6	290.2	-3.4%	-5.5%	-5.5%
7대 곡물	41.8	42.6	-0.7%	-1.1%	-1.1%
5대 채소	1.8	2.3	-3.9%	-5.8%	-5.8%
과일	12.9	13.3	-4.4%	-6.8%	-6.8%
6대 과일	1.6	1.6	-2.7%	-4.1%	-4.1%
오렌지·열대과일	11.3	11.7	-4.7%	-7.2%	-7.2%
5대 축산물	59.7	66.7	-0.3%	-2.2%	-2.3%
총수출액(B)	66.1	67.6	0.0%	1.4%	-2.5%
7대 곡물	0.0	0.0	-0.2%	0.5%	-1.6%
5대 채소	1.6	1.3	-2.4%	-2.4%	-3.0%
6대 과일	1.2	1.2	-1.7%	-0.9%	-1.8%
5대 축산물	1.9	1.8	-1.9%	-0.7%	-3.5%
기타가공품	52.3	53.8	0.3%	2.0%	-2.5%
총수입량	37,188	38,037.7	-3.1%	-4.8%	-4.8%
총수출량	3,399	3,409.0	1.0%	3.1%	-1.0%
농산물 자급률	71.0%	70.8%	0.3%p	0.4%p	0.4%p
곡물류 자급률	45.2%	45.4%	0.2%p	0.2%p	0.2%p
육류 자급률	62.8%	64.7%	1.1%p	1.5%p	1.5%p

주 1) 7대 곡물은 쌀, 콩, 옥수수, 밀, 감자, 고구마, 보리이며, 5대 채소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6대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5대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임.

2)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 소비량×100)으로 산출되며, 곡물류와 농산물 자급률은 사료용이 제외됨.

3) %는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

4.2.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4.2.1. 시나리오 1

□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결과

- (농업생산액) 국내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 정도가 상황이 아주 악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경기 침체는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농업 총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화훼류 생산액의 감소폭이 5.7%로 가장 크고, 채소류, 곡물류, 가금류 순으로 감소하며, 우제류, 과일류는 각각 1.5%, 0.4% 증가

- (농가판매가격) 2020년 농가판매가격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화훼류는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인 1~3월 코로나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하락폭(△10.4%)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하락하며, 축산물, 과일류는 상승

- (농업구입가격지수) 주요 산유국 감산 합의 무산 및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농광열비는 19.5% 하락하고, 이에 따른 비료비(△2.7%), 영농자재비(△3.8%)가 하락함에 따라 농업구입가격지수는 2.0% 하락

- (경영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농광열비 하락 등으로 1.1% 감소

- (수출입) 환율상승 영향으로 총수입량은 3.1%, 총수입액은 3.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오렌지 및 열대과일이 4.7%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5대 채소류, 7대 곡물류 순으로 나타남. 총수출량은 1.0%, 총수출액은 베이스라인과

비슷하며, 5대 채소류, 5대 축산물, 6대 과일류, 7대 곡물류 순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타가공품은 증가

○ (무역수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수출 증가로 4.4% 개선

○ (자급률) 농산물 자급률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0.3%p 상승. 육계 및 한육우를 중심으로 육류 자급률은 1.1%p, 감자를 중심으로 곡물류 자급률 0.2%p 상승

표 1-20 시나리오 1. 농업생산액 영향

단위: 십억 원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변화율(변화분)
농업 총생산액	50,438.4	50,249.7	-0.4% (-188.7)
재배업	30,572.4	30,236.9	-1.1% (-335.4)
곡물류	10,974.0	10,855.5	-1.1% (-118.4)
채소류	10,968.2	10,811.4	-1.4% (-156.9)
과실류	4,821.0	4,841.9	0.4% (20.8)
화훼류	522.1	492.3	-5.7% (-29.8)
축잡업	19,866.1	20,012.8	0.7% (146.7)
우제류	14,394.1	14,607.6	1.5% (213.5)
가금류	4,955.4	4,898.5	-1.1% (-56.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표 1-21 시나리오 1. 농가판매가격지수(2015=100) 영향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변화율
농축산물	109.0	108.4	-0.5%
농산물	116.0	114.5	-1.3%
곡물류	117.8	116.6	-1.0%
청과류	117.0	116.5	-0.4%
채소류	105.0	103.9	-1.1%
과실	135.6	136.2	0.4%
화훼류	112.9	101.2	-10.4%
축산물	97.2	98.2	1.0%

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표 1-22 시나리오 1. 농업구입가격지수(2015=100) 영향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변화율
농업구입가격지수	103.0	100.9	-2.0%
투입재	99.3	95.5	-3.8%
경상재	96.7	91.3	-5.6%
종자	113.9	113.9	0.0%
비료	73.4	71.4	-2.7%
농약	97.4	97.5	0.1%
영농광열	106.5	85.7	-19.5%
영농자재	99.8	96.0	-3.8%
농기구	106.2	107.0	0.8%
노임	122.5	125.6	2.6%
임차료	110.5	110.3	-0.1%
사료	99.3	99.3	0.0%
가축	125.2	127.8	2.1%

주: 농업구입가격지수는 농가의 생계에 필요한 가계용품비(자동차 관리비, 유류비, 식사비, 핸드폰 요금 등)를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자료: 통계청.

표 1-23 시나리오 1. 영농경영비 영향

단위: 십억 원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변화율
총경영비	29,234	28,906	-1.1%
재배업	11,664	11,502	-1.4%
축잡업	17,570	17,404	-0.9%

주: 한국은행의 생산액 자료(부가가치 산출을 위한 내부자료)와 농림업 생산지수 가중치,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집의 품목별 경영비목별 비중을 이용하여 계상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2019).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24 시나리오 1. 농식품 수출입 영향

단위: 억 달러, 천 톤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변화율
총수입량	38,037.7	36,843.1	-3.1%
총수입액(A)	290.2	280.5	-3.4%
7대 곡물	42.6	42.3	-0.7%
5대 채소	2.3	2.2	-3.9%
과일	13.3	12.7	-4.4%
6대 과일	1.6	1.5	-2.7%
오렌지 및 열대과일	11.7	11.2	-4.7%
5대 축산물	66.7	66.5	-0.3%
총수출량	3,409.0	3,442.1	1.0%
총수출액(B)	67.6	67.5	0.0%
7대 곡물	0.0	0.0	-0.2%
5대 채소	1.3	1.3	-2.4%
6대 과일	1.2	1.2	-1.7%
5대 축산물	1.8	1.8	-1.9%
기타가공품	53.8	54.0	0.3%
무역수지 적자(B-A)	222.6	212.9	-4.4%

주: 7대 곡물은 쌀, 콩, 옥수수, 밀, 감자, 고구마, 보리이며, 5대 채소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6대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5대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

표 1-25 시나리오 1. 자급률 영향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변화율
농산물 자급률	70.8%	71.1%	0.3%p
곡물류 자급률	45.4%	45.5%	0.2%p
육류 자급률	64.7%	65.7%	1.1%p

주: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 소비량×100)으로 산출되며, 곡물류와 농산물 자급률은 사료용이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4.2.2. 시나리오 2

□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결과

- (농업생산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국내외 소비 위축에 따라 농업 총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화훼류 생산액의 감소폭이 6.7%로 가장 크고,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감소하며, 과실류와 우제품류는 각각 0.9%, 0.6% 증가
- (농가판매가격) 시나리오 2 전망에 따라 2020년 농가판매가격은 0.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과실은 수입 과일 수요 감소로 0.8% 상승하는 반면, 화훼류가 10.7%로 하락폭이 가장 크고,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요 증가로 0.1% 상승
- (농업구입가격지수) 원유 추가 감소 합의 무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유가를 1997년 수준(배럴당 20.6달러)인 21.7달러로 가정하였을 때, 영농광열비는 38.1% 하락하고, 비료비(△5.2%), 영농자재비(△7.7%) 하락함에 따라 농업구입가격지수는 4.2% 하락
- (경영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농광열비 하락과 영농자재비 등 요소별 구입가격 하락으로 2.2% 감소
- (수출입) 환율상승에 따라 총수입량은 4.8%, 총수입액은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오렌지 및 열대과일의 수입액 감소율이 7.2%로 가장 크며, 5대 채소, 6대 과일, 5대 축산물, 7대 곡물류 순으로 나타남. 총수출량은 3.1%, 총수출액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5대 채소, 6대 과일, 5대 축산물 순으로 감소하고, 7대 곡물과 기타가공품은 증가

○ (무역수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는 7.6% 감소

○ (자급률) 농산물 자급률은 수입량 감소에 따라 0.4%p 상승. 육계 및 한육우를 중심으로 육류 자급률은 1.5%p, 감자를 중심으로 곡물류 자급률은 0.2%p 상승

표 1-26 시나리오 2. 생산액 영향

단위: 십억 원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2	변화율(변화분)
농업 총생산액	50,438.4	49,986.0	-0.9% (-452.5)
재배업	30,572.4	30,168.0	-1.3% (-404.3)
곡물류	10,974.0	10,821.4	-1.4% (-152.6)
채소류	10,968.2	10,764.7	-1.9% (-203.6)
과실류	4,821.0	4,866.3	0.9% (45.3)
화훼류	522.1	486.9	-6.7% (-35.2)
축산업	19,866.1	19,817.9	-0.2% (-48.1)
우제류	14,394.1	14,485.2	0.6% (91.2)
가금류	4,955.4	4,833.7	-2.5% (-12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표 1-27 시나리오 2. 농업구입가격지수(2015=100) 영향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2	변화율
농업구입가격지수	103.0	98.7	-4.2%
투입재	99.3	91.9	-7.4%
경상재	96.7	86.0	-11.1%
종자	113.9	113.9	0.0%
비료	73.4	69.6	-5.2%
농약	97.4	97.3	-0.1%
영농광열	106.5	65.9	-38.1%
영농자재	99.8	92.1	-7.7%
농기구	106.2	108.1	1.8%
노임	122.5	128.9	5.2%
임차료	110.5	110.5	0.1%
사료	99.3	99.3	0.0%
가축	125.2	126.3	0.9%

주: 농업구입가격지수는 농가의 생계에 필요한 가계용품비(자동차 관리비, 유류비, 식사비, 핸드폰 요금 등)를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자료: 통계청.

표 1-28 시나리오 2. 총경영비 영향

단위: 십억 원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2	변화율
총경영비	29,234	28,586	-2.2%
재배업	11,664	11,355	-2.6%
축잡업	17,570	17,231	-1.9%

주: 한국은행의 생산액 자료(부가가치 산출을 위한 내부자료)와 농림업 생산지수 가중치,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집의 품목별 경영비목별 비중을 이용하여 계산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2019).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29 시나리오 2. 농가판매가격지수(2015=100) 영향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2	변화율
농축산물	109.0	108.0	-0.9%
농산물	116.0	114.4	-1.4%
곡물류	117.8	116.2	-1.3%
청과류	117.0	116.6	-0.3%
채소류	105.0	103.7	-1.3%
과실	135.6	136.8	0.8%
화훼류	112.9	100.8	-10.7%
축산물	97.2	97.3	0.1%

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표 1-30 시나리오 2. 농식품 수출입 영향

단위: 억 달러, 천 톤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2	변화율
총수입량	38,037.7	36,220.8	-4.8%
총수입액(A)	290.2	274.3	-5.5%
7대 곡물	42.6	42.1	-1.1%
5대 채소	2.3	2.1	-5.8%
과일	13.3	12.4	-6.8%
6대 과일	1.6	1.5	-4.1%
오렌지 및 열대과일	11.7	10.9	-7.2%
5대 축산물	66.7	65.2	-2.2%
총수출량	3,409.0	3,514.7	3.1%
총수출액(B)	67.6	68.5	1.4%
7대 곡물	0.0	0.0	0.5%
5대 채소	1.3	1.3	-2.4%
6대 과일	1.2	1.2	-0.9%
5대 축산물	1.8	1.8	-0.7%
기타가공품	53.8	54.9	2.0%
무역수지 적자(B-A)	222.6	205.7	-7.6%

주: 7대 곡물은 쌀, 콩, 옥수수, 밀, 감자, 고구마, 보리이며, 5대 채소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6대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5대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

표 1-31 시나리오 2. 자급률 영향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2	변화율
농산물 자급률	70.8%	71.2%	0.4%p
곡물류 자급률	45.4%	45.6%	0.2%p
육류 자급률	64.7%	66.2%	1.5%p

주: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 소비량×100)으로 산출되며, 곡물류와 농산물 자급률은 사료용이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4.2.3. 시나리오 3

□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결과

- (농업생산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국내외 소비 위축에 따라 농업 총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화훼류 생산액의 감소폭이 7.0%로 가장 크고,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감소하며, 우제류와 과실류는 각각 0.5%, 0.9% 증가
- (농가판매가격) 교역제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20년 농가판매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화훼류는 11.5% 하락하여 하락 폭이 가장 크고,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나타남. 과실은 수입 과일 수요 감소로 0.8% 상승하고, 축산물은 수요 증가로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어 베이스라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
- (농업구입가격지수) 원유 추가 감산 합의 무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유가를 1997년 수준(배럴당 20.6달러)인 21.7달러로 가정하였을 때, 영농광열비는 38.1% 하락하고, 비료비(△5.2%), 영농자재비(△7.7%) 하락함에 따라 농업구입가격지수는 4.2% 하락
- (경영비) 국제유가 및 영농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국내 농업구입가격 하락으로 2.2% 감소

- (수출입) 환율상승에 따라 총수입량은 4.8%, 총수입액은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열대과일이 7.2%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5대 채소, 5대 축산물 순으로 나타남. 교역이 제한 될 경우, 총수출액은 2.5% 감소함. 축산물이 3.5%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5대 채소, 6대 과일, 7대 곡물류 순
- (무역수지) 수출제한에 따른 수출액 감소로 무역수지는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대비 1.2%p 악화
- (자급률) 농산물 자급률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0.4%p 상승한 71.2%. 육계 및 한육우를 중심으로 육류 자급률은 1.5%p, 감자를 중심으로 곡물류 자급률은 0.2%p 상승

표 1-32 시나리오 3. 생산액 영향

단위: 십억 원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3	변화율(변화분)	
농업 총생산액	50,438.4	49,925.1	-1.0%	(-513.3)
재배업	30,572.4	30,147.4	-1.4%	(-424.9)
곡물류	10,974.0	10,821.4	-1.4%	(-152.6)
채소류	10,968.2	10,751.9	-2.0%	(-216.4)
과실류	4,821.0	4,865.3	0.9%	(44.3)
화훼류	522.1	485.7	-7.0%	(-36.4)
축잡업	19,866.1	19,777.6	-0.4%	(-88.4)
우체류	14,394.1	14,470.7	0.5%	(76.6)
기금류	4,955.4	4,808.6	-3.0%	(-146.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표 1-33 시나리오 3. 농업구입가격지수(2015=100) 영향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3	변화율
농업구입가격지수	103.0	98.7	-4.2%
투입재	99.3	91.9	-7.4%
경상재	96.7	86.0	-11.1%
종자	113.9	113.9	0.0%
비료	73.4	69.6	-5.2%
농약	97.4	97.3	-0.1%
영농광열	106.5	65.9	-38.1%
영농자재	99.8	92.1	-7.7%
농기구	106.2	108.1	1.8%
노임	122.5	128.9	5.2%
임차료	110.5	110.5	0.1%
사료	99.3	99.3	0.0%
가축	125.2	126.1	0.7%

주: 농업구입가격지수는 농가의 생계에 필요한 가계용품비(자동차 관리비, 유류비, 식사비, 핸드폰 요금 등)를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자료: 통계청.

표 1-34 시나리오 3. 총경영비 영향

단위: 십억 원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3	변화율
총경영비	29,234	28,577	-2.2%
재배업	11,664	11,355	-2.6%
축산업	17,570	17,222	-2.0%

주: 한국은행의 생산액 자료(부가가치 산출을 위한 내부자료)와 농림업 생산지수 가중치,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집의 품목별 경영비목별 비중을 이용하여 계산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2019).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35 시나리오 3. 농가판매가격지수(2015=100) 영향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3	변화율
농축산물	109.0	107.9	-1.0%
농산물	116.0	114.3	-1.4%
곡물류	117.8	116.2	-1.3%
청과류	117.0	116.5	-0.4%
채소류	105.0	103.5	-1.4%
과실	135.6	136.8	0.8%
화훼류	112.9	99.9	-11.5%
축산물	97.2	97.2	0.0%

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표 1-36 시나리오 3. 농식품 수출입 영향

단위: 억 달러, 천 톤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3	변화율
총수입량	38,037.7	36,218.6	-4.8%
총수입액(A)	290.2	274.2	-5.5%
7대 곡물	42.6	42.1	-1.1%
5대 채소	2.3	2.1	-5.8%
과일	13.3	12.4	-6.8%
6대 과일	1.6	1.5	-4.1%
오렌지 및 열대과일	11.7	10.9	-7.2%
5대 축산물	66.7	65.1	-2.3%
총수출량	3,409.0	3,409.0	-1.0%
총수출액(B)	67.6	65.8	-2.5%
7대 곡물	42.6	0.0	-1.6%
5대 채소	2.3	1.3	-3.0%
6대 과일	1.6	1.2	-1.8%
5대 축산물	66.7	1.7	-3.5%
기타가공품	53.8	52.5	-2.5%
무역수지 적자(B-A)	222.6	208.3	-6.4%

주: 7대 곡물은 쌀, 콩, 옥수수, 밀, 감자, 고구마, 보리이며, 5대 채소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6대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5대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

표 1-37 시나리오 3. 자급률 영향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3	변화율
농산물 자급률	70.8%	71.2%	0.4%p
곡물류 자급률	45.4%	45.6%	0.2%p
육류 자급률	64.7%	66.2%	1.5%p

주: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 소비량×100)으로 산출되며, 곡물류와 농산물 자급률은 사료용이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4.2.4. 시기별 분석 종합

□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기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변동에 따른 농업생산액 파급 영향 분석 결과를 정리

- 3월 이후 파급영향 분석에 이용한 월별 거시경제지표는 다음과 같음.
 - Global Insight에서 매월 15일 발표한 전망치와 IMF, World Bank에서 발표한 수정 전망치 준용
 - 유가와 환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표 1-38 분석 시기별 거시지표 전망 가정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세계 경제성장률(%)	2.80	0.68	-3.0	-5.5	0.68	-3.0	-5.5
한국 경제성장률(%)	2.30	1.26	-0.06	-0.94	0.21	-2.59	-2.59
소비자 물가상승률(%)	1.00	0.78	1.05	0.63	0.55	1.05	0.63
GDP디플레이터 변화율(%)	2.07	1.18	2.71	1.60	0.28	2.71	1.60
환율(원/달러)	1,167.7	1,192.1	1,197.8	1,204.4	1,228.6	1,225.5	1,227.0
국제유가(달러/배럴)	59.25	47.5	42.7	39.8	27.5	25.0	21.7
이자율(%)	1.54	1.35	1.35	1.35	1.35	1.35	1.35

자료: Global Insight; IMF; World Bank.

-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3월 이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육류의 국제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증가를 반영한 5월 영향분석 결과 농업생산액 감소폭은 3월 $\Delta 0.8 \sim \Delta 1.2\%$ 에서 5월 $\Delta 0.4 \sim \Delta 1.0\%$ 로 축소
- (긍정적 시나리오) 시기별 농업생산액 영향분석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4월 생산액 감소폭이 3월보다 축소(3월 $\Delta 0.8\% \rightarrow$ 4월 $\Delta 0.5\%$), 4월 GDP디플레이터 변화율 전망치가 3월 전망치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3월 1.18% \rightarrow 4월 2.71%)되어 나타난 국내수요 증가 효과가 경제성장률 하락(3월 1.26% \rightarrow 4월 $\Delta 0.06\%$) 전망으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보다 크기 때문(<그림 1-13> 참고)

- (부정적 시나리오) 분석 시기별 생산액 영향분석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4월은 3월보다 생산액 감소폭이 확대(3월 $\Delta 1.2\%$ → 4월 $\Delta 1.5\%$)되었으나 5월은 코로나 영향에 따른 국내 육류 수요 증가와 수입량 감소 영향을 추가 고려하면서 생산액 감소폭 축소(4월 $\Delta 1.5\%$ → 5월 $\Delta 1.0\%$)

표 1-39 분석 시기별 농업생산액 파급영향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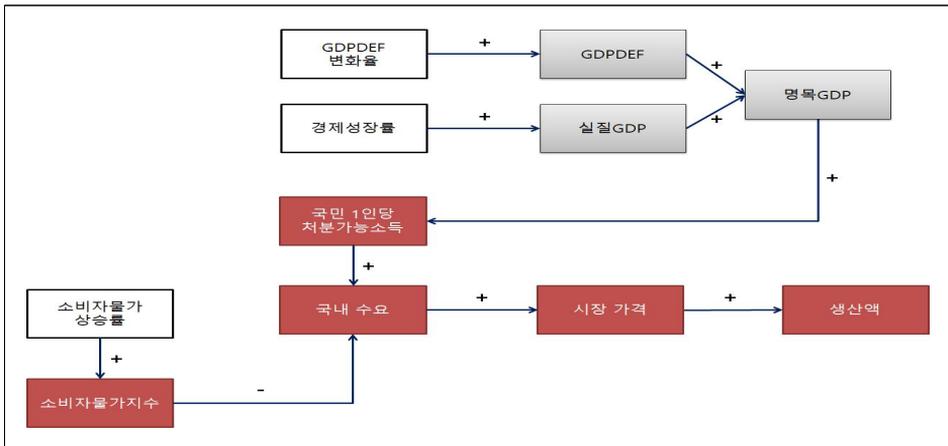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구분	베이스라인	긍정적			부정적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농업 총생산액	50,438	-0.8%	-0.5%	-0.4%	-1.2%	-1.5%	-1.0%
재배업	30,572	-0.6%	-0.3%	-1.1%	-0.8%	-0.8%	-1.4%
곡물류	10,974	-0.7%	-0.4%	-1.1%	-1.0%	-0.9%	-1.4%
채소류	10,968	-0.7%	-0.4%	-1.4%	-1.3%	-1.2%	-2.0%
과실류	4,821	0.5%	0.8%	0.4%	1.6%	1.3%	0.9%
화훼류	522	-4.5%	-4.3%	-5.7%	-5.9%	-5.9%	-7.0%
축잡업	19,866	-1.1%	-0.8%	0.7%	-1.9%	-2.5%	-0.4%
우제류	14,394	-0.8%	-0.5%	1.5%	-1.3%	-2.0%	0.5%
가금류	4,955	-1.9%	-1.6%	-1.1%	-3.5%	-3.8%	-3.0%

주: %는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그림 1-13 GDP디플레이터변화율,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파급영향 경로



주: 그림에 표시된 연산기호는 파급영향의 방향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4.3. 교역 제한 영향

□ 목적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농산물 교역 중단으로 수입·수출이 제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설정 시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

□ 시나리오 설정

- (베이스라인) 『농업전망 2020』(’20. 1. 22.)의 주요 품목별 유통연도 20/21년의 수급(수출 포함) 및 가격 전망치
 - KASMO 모형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의 연간 단위로 설계
- (시나리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지속으로 2020년 7~12월까지 외국 농산물 수입과 국내 농산물 수출이 100% 제한되는 경우로 설정
 - 항공운송에 비해 해운항만 물류의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최악의 상황 상정 시 파급영향 파악을 위해 100% 제한으로 시나리오 설정
 - (수입 제한) 자급률이 매우 낮고 수입 제약으로 인해 국내 농식품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밀, 옥수수, 콩, 보리, 참깨, 땅콩, 키위, 당근, 건고추,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선정
 - (수출 제한) 국내 농산물 중 수출 비중이 크고 수출 제약으로 인해 국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파프리카, 인삼, 배, 토마토, 딸기, 버섯, 김치(배추)를 선정
 - ※ 모형 구조상 파급영향 계측이 불가능한 라면, 음료는 제외
 - (방법) ’19년 7~12월 수입·수출 비중을 이용하여 20/21 유통연도의 수입량·수출량 감소량을 추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여 파급영향 계측

- (수입 감소 영향) 품목별 총수요량은 유지되는 데 반해 수입 감소량만큼 총 공급량이 감소하여 초과수요 상황이 나타나 국내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 초래

※ 수입 감소 → 총공급 감소 → 국내가격 상승 → 물가 상승

- (수출 감소 영향) 품목별 총공급량은 유지되는 데 반해 수출 감소량만큼 총 수요량이 감소하여 초과공급 상황이 나타나 국내가격 하락, 농업생산액 감소, 농가소득 감소 등 초래

※ 수출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내가격 하락 → 생산액(소득) 감소

표 1-40 수입 제한 시나리오의 영향분석 품목 및 수출 감소 비중

단위: 천 톤

품목	국내생산 대비 수출 비중 (20/21년 베이스라인 기준)			7~12월 수출 비중 (19/20년 기준, %)
	생산량(A)	수입량(B)	비율(B/A, %)	
밀	12.7	3,659.1	28,774.7	48.7
옥수수	73.5	11,635.8	15,833.4	50.7
콩	108.2	1,363.9	1,260.7	53.7
참깨	12.3	78.5	640.4	49.2
땅콩	8.6	32.9	384.5	47.7
보리	112.7	259.5	230.3	56.5
키위	21.9	41.0	187.3	51.6
쇠고기	258.8	444.1	171.6	47.7
당근	70.6	100.3	142.2	56.9
건고추	76.8	46.6	60.6	47.1
돼지고기	957.7	464.4	48.5	48.3
포도	166.9	62.8	37.6	74.4
닭고기	645.2	170.8	26.1	50.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

표 1-41 수출 제한 시나리오의 영향분석 품목 및 수출 감소 비중

단위: 천 톤

품목	국내생산 대비 수출 비중 (20/21년 베이스라인 기준)			7~12월 수출 비중 (19/20년 기준, %)
	생산량(A)	수출량(B)	비율(B/A, %)	
파프리카	75.7	34.1	45.1	44.2
인삼	25.0	5.9	23.7	54.2
배	213.6	35.5	16.6	22.7
토마토	392.6	19.8	5.1	52.3
딸기	209.9	5.8	2.8	57.4
농산버섯	141.8	21.5	15.2	53.5
배추(김치)	2,128.5	29.9	1.4	21.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

□ 수입 제한 시나리오 영향분석 결과

- (전체) 분석대상(13개 품목)의 20년 하반기 수입이 차단될 경우 전체 소비자 물가는 1.2% 상승, 농축산물 부류의 소비자물가는 17.4% 상승
 - 농가판매가격지수 기준으로는 17.6% 상승

표 1-42 수입 제한 시나리오 영향분석 결과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판매가격지수 가중치	국내가격 변화율(%)
	전체	농축산물		
밀	0.1	1.53	-	52.6
옥수수	0.4	6.11	7.4	63.3
콩	0.4	6.11	11.7	52.7
참깨	0.5	7.63	6.3	7.1
땅콩	0.1	1.53	2.6	84.7
보리	0.2	3.05	9.1	6.0
키위	0.4	6.11	-	13.8
쇠고기	7.6	116.03	145.9	70.5
당근	0.3	4.58	1.4	151.9
건고추	1.6	24.43	30.4	20.9
돼지고기	9.2	140.46	66.5	38.0
포도	1.2	18.32	12.9	35.0
닭고기	1.5	22.90	17.7	48.7
전체	1000.0	1000.0	1000.0	

(계속)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판매가격지수 가중치	국내가격 변화율(%)
	전체	농축산물		
전체 소비자물가 변화율				1.2%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변화율				17.4%
농가판매가격지수 변화율				17.6%

주 1)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을 산출함.

2) 밀은 밀가루의 소비자물가 가중치를 이용하였고 옥수수는 혼식곡 가중치를 이용함. 밀과 키위는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산출 품목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아 가중치가 없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

○ (품목별) 수입 의존도가 큰 당근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크고 땅콩, 쇠고기, 옥수수, 콩, 밀의 가격이 베이스라인 대비 50% 이상 상승

- (당근) 생산량의 142%를 수입에 의존하는 당근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베이스라인 대비 15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수입 당근을 주로 취급하는 외식업의 부담 가중이 예상

- (땅콩) 자급률이 낮은 품목(생산량 대비 12.6배 수입)으로 수입 제한 시 85% 수준으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필수재가 아닌 기호식품이지만 가격 안정에 유의 필요

- (쇠고기)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으로 한우 가격 상승폭은 70% 수준으로 분석

※ KREI-KASMO 모형은 외국산 쇠고기와 한우(국산)를 동질재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영향분석 결과의 과대 추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 (밀·옥수수·콩) 수입량의 상당 비중이 사료용이나, 가공에 이용되는 수입량 감소로 가격 상승폭은 50%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

□ 수출 제한 시나리오 영향분석 결과

○ (전체) 분석대상(7개 품목)의 20년 하반기 수출 제한 시 국내 농산물 가격은 농가판매가격지수 기준으로 1.2% 하락하고 농업생산액은 3,905억 원 감소

○ 감소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0.8% 수준

○ (품목별) 생산액 규모가 큰 인삼과 수출수요가 타 품목에 비해 큰 파프리카의 생산액 피해가 가장 크고 토마토, 버섯, 딸기, 배추, 배 순으로 생산액 감소

- (파프리카) 하반기 수출 제한으로 연평균 국내가격은 58.3% 하락, 생산액은 1,284억 원 감소
- (인삼) 연평균 국내가격은 15.0% 하락, 생산액은 1,450억 원 감소
- (배) 연평균 국내가격은 2.4% 하락, 생산액은 97억 원 감소
- (토마토) 연평균 국내가격은 4.1% 하락, 생산액은 324억 원 감소
- (딸기) 연평균 국내가격은 1.1% 하락, 생산액은 280억 원 감소
- (버섯) 연평균 국내가격은 7.8% 하락, 생산액은 297억 원 감소
- (배추) 김치 수출 감소 영향으로 배추의 연평균 국내가격은 2.0% 하락, 생산액은 175억 원 감소

표 1-43 수출 제한 시나리오 영향분석 결과

품목	판매가격지수 가중치	수출량 변화율(%)	국내가격 변화율 (%)	생산액 감소 (억 원)
파프리카	9.9	-44.2	-58.3	-1,283.9
인삼	21.4	-54.2	-15.0	-1,450.0
배	11.5	-22.7	-2.4	-97.4
토마토	17.7	-52.3	-4.1	-323.5
딸기	18.2	-57.4	-1.1	-277.9
농산버섯	12.4	-53.5	-7.8	-297.1
배추(김치)	23.6	-21.4	-2.0	-175.0
전체	1000.0	-	-1.2	-3,904.8

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품목별 농가판매가격지수 산출 가중치를 KREI-KASMO 모형 내 반영 품목 기준으로 재산정한 가중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

5. 포스트 코로나19 농업·농촌부문 과제

□ 포스트 코로나19(AC) 사회·경제 패러다임 변화

- 팬데믹 전염병사태 이후에는 그 이전사회(BC)로 회귀하지 못하고 장기 경기 불황 극복과제만이 아니라 전염병 팬데믹 위험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 패러다임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 4차산업혁명기술 및 5G 통신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원격의료 및 교육의 활성화, 데이터 경제의 강화 등
- 새로운 패러다임은 언택트(Untact)라는 점이 강조되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질서가 확립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 사람이 대변하고 교류하며 공감하는 관계의 변화, 저밀도 사회 선호
 - 전염위험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류의 경제구조, 재택근무, 온라인 구매 등 온라인·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의 증가, 저밀도 생활방식으로 변화에 따른 산업의 재편을 초래
 - 비대면 원격의료·건강, 에듀테크 교육, 농식품거래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이 심화
 - 그에 따라 세계화라는 사조가 약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혁명이 더욱 촉진되는 산업구조로의 변혁이 발생
-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가속화와 급격한 고용위기 도래
 - 이동제한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최소화, 비대면, 디지털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AI(인공지능)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여 급격한 일자리 감소의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일수록 삶의 위기 직면

○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R의 공포)는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3년 정도 회복기간이 요구될 것이라는 전망

○ 생필품인 농식품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미미하지만, 중기적으로 경제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직면하는 위험이 발생

○ 글로벌 가치사슬 및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초래

- Global Supply, Value Chain 변화: 세계화에서 필수품에 대해서는 확보 불가라는 위험을 축소하는 자국 내 생산을 강화

-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대별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 및 위기에 직면하면서 생필품, 국가전략품목 중심으로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공급망의 로컬화가 촉진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 팬데믹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나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영향이라는 인식으로 환경·건강·안전의 가치관 확산

- 건강에 대한 인식 강화 등 새로운 소비구조의 변화: 건강식품 수요, 안전성 관리 강화, 게임산업의 성장 등

- 만성적 대량실업사회의 도래, 효과적 전염병 대응 등을 위해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체·삶의 질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

□ 포스트 코로나19(AC) 농업·농촌사회도 패러다임 변화 초래

○ 우리 농업·농촌에서 Untact의 영향은 생산, 유통, 소비, 식량안보, 농촌주민 삶의 질 등 전 부문에서 걸쳐 발생

- 경제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2~3년 내 농가경제가 악화되는 위험이 존재
- 농산물 유통혁신 변화와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요구
- 온라인 도매시장 도래, 온라인 유통시장의 시장점유비중의 증가
- 비대면에서도 농식품 가치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 개발
- 농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요구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
- 농식품 소비패턴의 변화
- 건강 중시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기능성 식품의 소비 증가
- 가정 내 조리 확대로 HMR식품, 밀키트 식품의 수요 증가
- 농식품 반가공식품산업의 성장으로 농산물 판매방식의 변화
- 농업노동력 공급 중단 위험에 대응한 농업생산시스템의 변화
-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생산의 스마트화 촉진: 자동환경제어,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확산 등
-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에 적합한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
- 농식품의 Global Supply Chain 변화로 자국 내 생산기반 강화

- 식량안보의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농식품공급 리스크를 관리하는 국가 역할 강조: 국내농업생산 확대 및 비축시설의 확대
- 과거와 다른 유형의 국제교역 부문 위험이 증가한 것은 국민의 식량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내포
- 정부의 역할에서 국민에 대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중심의 먹거리 보장의 역할이 중요: Food bank, Food Stamp, WIC 등 식품지원사업 강화
- 저밀도 사회인 농촌지역의 수요 증대와 함께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대면 교환방식의 강화
- 5G 통신의 활용한 원격의료, 원격교육,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시설확충(공유경제)과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급
- AR,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반 강화
-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공간의 구축이 중요
- 농촌지역의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 과제**

- ① (식량안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식량안보 위험에 대응력 제고
 -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 농업생산기반 확대 및 주요 농산물 비축 확대, 남북 농업협력 추진

- 식량안보 강화,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확대 등 곡물 자급률 제고방안 추진,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
 - * 타 산업분야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로컬라이제이션, 리쇼어링, 적정 재고 유지 등)할 것으로 전망
- 안정적 국제 곡물조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쌀 이외에도 국내 비축규모 확대와 이를 위한 비축시설 투자 확대
- 장기적으로 한반도 식량안보와 안정적 공급시설 구축 측면에서 남북농업 협력 촉진

② (농업·농촌 그린뉴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의 글로벌 위협, 환경문제의 악화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로의 농촌 에너지 전환(농촌태양광시설), 저(제로)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농업 생산·유통·물류 체계의 전환
 - * 예를 들어, 저(제로)탄소를 위한 농산물 유통·물류 시스템이 무엇인지 분석·제시하고, 유통·물류 제도를 마련하여 뒷받침
- 기후변화 대응 농업·농촌 환경보전(공익형 직불제, 환경농업프로그램) 강화, 자원 절약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
- 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 노후화된 저수지 개보수 등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역사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③ (농업·농촌부문 디지털 경제 추진) 비대면 경제사회시스템의 확산, 4차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 농업·농촌부문 디지털경제 강화

- 정부도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인프라 구축(데이터 수집, 활용기반구축, 5G 네트워크 고도화, AI), 비대면 산업육성(온라인 농업컨설팅) 및 SOC 디지털화(디지털 물류서비스) 추진

- 농업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스마트농업기반(자율주행, 농업로봇, 이미지 생육정보 수집 등 생산시스템)과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 비대면 원격의료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교육시스템 등 농촌지역 5G 인프라 구축

④ (온라인 농식품 디지털 유통시스템 구축) 비대면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온라인 비대면 유통확산에 대응한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농축식품의 디지털유통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추진

-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농축산물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문제 해소
- 산지농산물 정보의 디지털화 추진(이미지 데이터, 생육관측정보), POS데이터 등 농식품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 산지유통센터 및 도매시장의 디지털 물류서비스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성 강화
- 온라인 거래소, 이미지경매체계의 구축으로 경쟁 촉진 및 온라인 유통체계 구축

⑤ (농촌 생활서비스 제고) 환경·건강·안전·공동체 등 중시로 저밀도 사회인 농촌지역 가치가 증대하는 것을 활용하여 농촌활성화 추진

- 팬데믹이 고밀도 지역에서 확산되고, 비대면 경제시스템이 확산되면 저밀도의 농촌지역의 가치가 증대하고, 은퇴인력의 귀농·귀촌이 증대, 이에 대응한 주민이 요구하는 생활기반 제고
-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함께 4차산업혁명 기술과 사회적 자본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한 농촌 의료·보건·교육·교통·주거서비스를 제고하는 스마트농촌 정책 강화

- 5G통신시스템에 기반한 농촌보건소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모바일 헬스케어 확산,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⑥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중심 먹거리보장대책(바우처) 강화

- 국가의 역할을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서 안전한 식품·영양 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까지 확장(미국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지원금을 40% 증액)
- 대면 위험성 및 지원 위축으로 국민영양공급 측면에서 취약계층이 확대되는 문제에 대응 농식품바우처, 초등돌봄과일간식,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푸드뱅크 등

* 단체급식이용그룹 등 고령단독가구, 가구 내 돌봄 부족 가구 등

⑦ (농업·농촌부문 일자리 창출) 농업생산인력의 공급 부족, 도시부문 고용 충격 완화, 귀농·귀촌 촉진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추진

- 농업인력의 안정적 유치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및 계절근로자제도 개선(C-4, E-8, 일시취업기간 조정, 취업이동 문제), 농업인력중개서비스의 고도화 등 인력수급대책 추진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제고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공공근로) 창출 지원 강화
- 농촌지역 고령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

⑧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이 강화

-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에 대응한 농업부문 고용보험제의 도입 및 농업인 안전보험제도의 강화

-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식품 안전망 공공투자 확대(의료서비스, 소규모 학교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강화

⑨ (농정추진체계의 개선) 비대면 사회도래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에 적합한 농정추진체계의 전환

- 개인정보 등 데이터기반 농정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농업인 세제기반을 구축: 농업소득세 및 농산물 부가가치세 등 세제기반 마련
-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5G기반 원격의료 및 디지털교육 플랫폼 등의 스마트농촌 구축을 추진하는 통합적 컨트롤타워에 의한 추진체계 구축
- 농업·농촌부문 그린뉴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어젠다 중심 농정추진체계 확대
- 스마트농업 실현 및 농촌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위한 농업·농촌 부문 R&D 투자 확대 및 거버넌스 개편

〈참고 1〉 '20년 1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

□ '20년 1분기 농가구입가격 총지수는 전기 대비 1.1%, 전년동기 대비 2.7% 상승

(가계용품) 1분기는 전기 대비 0.7%, 전년동기 대비 1.1% 상승

(특이사항) 농약비, 비료비, 영농자재비 지수 상승폭이 큼

(농약비) 96.8 → 118.9로 전년대비 22.8% 큰 폭으로 상승

(비료비) 72.6 → 77.9로 전년대비 7.3% 상승

(영농자재비) 95.4('19년 1분기) → 98.5('19년 2분기) → 102.6('20년 1분기)
으로 전기 대비 4.2%,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

(노무비) 전기 대비 0.2% 하락이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

(영농광열비)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이나 전기 대비 3.6% 하락

표 1-44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1/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4	2/4	3/4	4/4			
총지수	103.1	104.4	104.3	104.7	105.9	1.1%	2.7%
가계용품	104.7	105.0	104.9	105.2	105.9	0.7%	1.1%
재료비	93.4	96.4	96.4	96.4	100.1	3.8%	7.2%
종자종묘	112.6	112.6	112.6	112.6	113.1	0.4%	0.4%
비료비	72.6	72.6	72.6	72.6	77.9	7.3%	7.3%
농약비	96.8	96.8	96.8	96.8	118.9	22.8%	22.8%
사료비	94.4	99.5	99.5	99.5	99.5	0.0%	5.4%
영농자재비	95.4	98.5	98.5	98.5	102.6	4.2%	7.5%
노무비	117.5	119.5	120.6	120.8	120.6	-0.2%	2.6%
경비	104.1	106.4	106.5	109.4	108.4	-0.9%	4.1%
영농광열비	101.7	110.3	109.4	109.5	105.6	-3.6%	3.8%
임차료	108.7	109.2	109.6	111.6	111.6	0.0%	2.7%
농작업위탁비	103.9	103.9	103.9	110.3	110.3	0.0%	6.2%

(계속)

구분	2019년				2020년 1/4	전기대비	전년동기 대비
	1/4	2/4	3/4	4/4			
판매자재비	96.5	96.5	98.2	99.1	99.1	0.0%	2.7%
자산구입비	113.6	112.5	112.5	111.0	110.7	-0.3%	-2.6%
기계구입	104.5	104.9	104.9	104.0	104.5	0.5%	0.0%
가축구입비	130.4	126.7	126.5	123.9	122.3	-1.3%	-6.2%

자료: 통계청.

<참고 2> 과거 경제위기 사례 분석

□ 외환위기(IMF)

- (경제지표)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1.3%p 낮은 -5.1%, 원/달러 환율은 47.3% 상승한 1,401.4원, 국제유가는 32.8% 하락한 12.2달러 기록
- (농업생산) 경기 침체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0.1% 하락, 생산액은 1.3% 감소, 환율 상승으로 수입량은 4.3% 감소, 수출량은 8.0% 감소, 자급률은 0.2%p 상승

표 1-45 외환(IMF)위기 당시 경제지표와 농업생산 동향

단위: 십억 원, 천 톤

구분		1997	1998	1999	2000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p)	6.2 (-1.7)	-5.1 (-11.3)	11.5 (16.6)	9.1 (-2.4)
	소비자물가상승률 (%p)	4.4 (-0.5)	7.5 (3.1)	0.8 (-6.7)	2.3 (1.5)
	이지율 (%p)	12.2 (0.6)	13.2 (1.0)	8.6 (-4.6)	8.7 (0.1)
	환율 (%)	951.3 (18.3)	1,401.4 (47.3)	1,188.8 (-15.2)	1,131.0 (-4.9)
	국제유가 (%)	18.2 (2.2)	12.2 (32.8)	17.2 (41.1)	26.2 (52.1)
	GDP 디플레이터 (%p)	4.0 (-0.1)	4.5 (0.5)	-1.2 (-5.7)	1.0 (2.3)
농업생산	농가판매가격지수 (%)	67.9 (-2.89)	67.8 (-0.13)	72.1 (6.36)	72.8 (0.98)
	생산액 (%)	29,375.4 (2.56)	29,759.9 (1.31)	31,973.0 (7.44)	31,967.8 (-0.02)
	수입량 (%)	22,134.3 (-5.25)	21,190.6 (-4.26)	22,860.8 (7.88)	23,885.5 (4.48)
	수출량 (%)	15.1 (6.34)	13.9 (-7.95)	14.1 (1.44)	12.7 (-9.93)
	자금률 (%p)	83.3 (-0.27)	83.5 (0.20)	84.9 (1.45)	85.9 (0.99)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Global Insight; IMF; World Bank;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 (시사점) 거시경제지표 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1997, 1998년에도 농업생산액은 증가
- 농산물의 수요가 소득이나 가격에 비탄력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둔감
- 환율 등락은 농산물의 수입 감소·증가에 일정하게 영향

□ 2008년 금융위기

- (경제지표)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2008년, 2009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2.8%p, 2.2%p 낮은 3.0%, 0.8%.
 - 원/달러 환율은 각각 18.6%, 15.9% 상승한 1,102.0원, 1,276.9원
 - 2008년 국제유가는 전년보다 36.9% 상승한 93.7달러, 2009년은 전년보다 34.1% 하락한 61.7달러

- (농업생산) 2008년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2009년도 농산물 수입량은 6.6% 감소
 - 2007년도 쌀 생산량 전년 대비 6% 감소, 2008년 초부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2008년 쌀 생산액은 전년 대비 19%(1.5조 원) 증가
 -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2008년 돼지 사육 농가 전년 대비 21% 감소, 하반기부터 돼지가격 급상승하여 전년 동월 대비 6월 34%, 12월 51% 상승, 돼지 생산액 전년 대비 23% 증가한 4.1조 원
 - 2008년 4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종계 살처분·도태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육계(4천억 원, 39%), 계란(3천억 원, 36%) 등의 생산액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시사점) 쌀, 축산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수급 요인이 직접적 원인
 - 국제 곡물가격 상승, 환율 상승 등은 사료비 상승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영 구조 악화, 사육 규모 축소, 가격 상승 등의 연쇄 반응을 야기하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

-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입량 감소, 수출량 증가

표 1-46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지표와 농업생산 동향

단위: 십억 원, 천 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p)	5.8 (0.5)	3.0 (-2.8)	0.8 (-2.2)	6.8 (6.0)	3.7 (-3.1)
	소비자물가상승률 (%p)	2.5 (0.3)	4.7 (2.1)	2.8 (-1.9)	2.9 (0.2)	4.0 (1.1)
	이자율 (%p)	5.3 (0.3)	5.4 (0.1)	4.6 (-0.7)	4.3 (-0.3)	3.9 (-0.4)
	환율 (%)	929.3 (-2.7)	1,102.0 (18.6)	1,276.9 (15.9)	1,156.1 (-9.5)	1,108.3 (-4.1)
	국제유가 (%)	68.4 (11.2)	93.7 (36.9)	61.7 (-34.1)	78.1 (26.6)	105.9 (35.6)
	GDP 디플레이터 (%p)	2.4 (2.6)	2.8 (0.4)	3.6 (0.8)	2.7 (-0.9)	1.3 (-1.5)
농업생산	농가판매가격지수 (%)	93.8 (2.2)	92 (-1.9)	93.4 (1.5)	100 (7.1)	107.6 (7.6)
	생산액 (%)	34,685.0 (-1.6)	38,469.8 (10.9)	41,364.3 (7.5)	41,677.4 (0.8)	41,358.2 (-0.8)
	수입량 (%)	27,066.2 (3.28)	28,847.1 (6.58)	26,935.0 (-6.63)	29,905.5 (11.03)	30,341.7 (1.46)
	수출량 (%)	24.0 (10.09)	29.3 (22.07)	31.3 (6.85)	38.7 (23.56)	51.2 (32.30)
	자금률 (%p)	79.7 (-0.25)	82.4 (2.70)	80.7 (-1.71)	75.2 (-5.54)	74.5 (-0.67)

주 1) ()는 전년 대비 증감률

2) 과거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농업생산액은 2017년 농업생산액 보정 이전의 자료를 이용,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0=100 기준.

자료: Global Insight; IMF; World Bank;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 전염병 사례

○ 전염병 확산은 심리적 불안 및 경제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사스) 2003년 중국, 홍콩 등에 크게 확산되면서 중국 및 인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에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음.
 - 2002년 11월 해외에서 첫 환자 확진, 국내 환자 3명 발생, 0명 사망
 - 해외 환자 8,096명 발생, 774명 사망, 2003년 7월 종료
- (메르스) 2012년 중동지역에서 발병한 이후 주변국으로의 확산세는 미미했으나, 2015년 국내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내수가 위축됨.
 - 2015년 5월 국내 첫 환자 발생, 환자 186명 발생, 38명 사망, 추가 발병이 없어 7월 사실상 종료 선언
- (시사점) 현재 코로나19와 과거 전염병 사례를 비교했을 때, 현재 코로나19는 SARS와 메르스의 경제 영향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
 - SARS(2003)는 한국에서 확산세가 미미하였으나, 중국 등 주변국 확산에 따른 교역 위축이 우리 경제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메르스(2015)는 주변국 확산세는 미미했으나 국내에 크게 확산되면서 경제심리와 내수가 크게 위축됨.

표 1-47 전염병 사례별 영향

	경제심리 위축	주변국 확산	생산 차질
사스(2003)	-	강함	미미
메르스(2015)	강함	있음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사스(SARS) 확산

- (경제지표) 200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5%p 낮은 2.9%, 원/달러 환율은 4.7% 하락한 1,192원, 국제유가는 19.2% 상승한 31.1달러

- 소비와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
 - 달러화 공급 증가로 환율 하락
- (농업생산) 2003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8.3% 상승, 생산액은 1.1% 하락, 수입량은 0.4% 감소, 수출량은 1.0% 증가, 자급률은 4.2%p 하락
- (시사점) 사스는 국내 확산세가 제한적이었지만 주변국에서 크게 확산됨에 따라 상품교역 둔화 등 수출입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분 부정적인 영향

표 1-48 2003년 사스(SARS) 확산 때 경제지표와 농업생산 동향

단위: 십억 원, 천 톤

구분		2002	2003	2004
경제 지표	경제성장률 (%p)	7.4 (2.8)	2.9 (-4.5)	5.0 (2.1)
	소비자물가상승률 (%p)	2.8 (-0.7)	3.5 (0.7)	3.6 (0.1)
	이자율 (%p)	6.5 (-0.2)	4.9 (-1.6)	4.5 (-0.4)
	환율 (%)	1,251 (-3.10)	1,192 (-4.72)	1,145 (-3.94)
	국제유가 (%)	26.1 (0.38)	31.1 (19.16)	41.4 (33.12)
	GDP 디플레이터 (%p)	3.0 (-0.5)	3.5 (0.5)	3.1 (-0.4)
농업 생산	농가판매가격지수 (%)	80.6 (5.36)	87.3 (8.31)	84.7 (-2.98)
	생산액 (%)	32,164 (-0.68)	31,809 (-1.10)	36,156 (13.67)
	수입량 (%)	25,278 (5.53)	25,185 (-0.37)	25,029 (-0.62)
	수출량 (%)	1,322 (2.64)	1,335 (0.98)	1,345 (0.75)
	자급률 (%p)	85.1 (-1.0)	80.9 (-4.2)	83.1 (2.2)

자료: Global Insight; IMF; World Bank;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 메르스(MERS) 확산

- (개요) 2015년 5월 첫 환자 유입, 환자 186명 발생, 38명 사망, 추가 발병이 없어 7월 사실상 종료 선언
- (경제지표)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4%p 낮은 2.8%, 원/달러 환율은 7.4% 상승한 1,131.2원, 국제유가는 47.5% 하락한 50.8달러
 - 2015년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세계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원달러 환율도 상승
 - 큰 폭의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산유국의 감소 합의 실패 등에 기인
- (농업생산) 2015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3% 상승, 생산액은 1.6% 하락, 수입량은 1.2% 증가, 수출량은 0.4% 증가, 자급률은 2.4%p 하락
- (시사점) 발생국이 한국과 중동 일부 국가로 제한적이고 확진자 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약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종식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농업생산액 감소는 쌀 가격 하락에 의한 생산액 감소(△4,600억 원)의 영향이 큼

표 1-49 2015년 메르스(MERS) 확산 때 경제지표와 농업생산 동향

단위: 십억 원, 천 톤

구분		2014	2015	2016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p)	3.2 (0.0)	2.8 (-0.4)	2.9 (0.1)
	소비자물가상승률 (%p)	1.3 (0.0)	0.7 (-0.6)	1.0 (0.3)
	이자율 (%p)	2.8 (-0.2)	2.0 (-0.9)	1.5 (-0.4)
	환율 (%)	1,053.0 (-3.8)	1,131.2 (7.4)	1,160.4 (2.6)
	국제유가 (%)	96.7 (-8.2)	50.8 (-47.5)	41.2 (-18.8)
	GDP 디플레이터 (%p)	0.9 (-0.1)	3.2 (2.3)	2.0 (-1.2)
농업생산	농가판매가격지수 (%)	97.8 (-1.71)	100.0 (2.25)	102.9 (2.90)
	생산액 (%)	49,237.7 (-1.18)	48,470.9 (-1.56)	47,275.7 (-2.47)
	수입량 (%)	33,853.5 (2.61)	34,244.3 (1.15)	34,831.9 (1.72)
	수출량 (%)	56.9 (9.99)	57.2 (0.41)	60.4 (5.64)
	자금률 (%p)	77.8 (0.94)	75.4 (-2.41)	73.9 (-1.51)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Global Insight; IMF; World Bank; 통계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제2장

분야별 영향과 대응



2

분야별 영향과 대응

1. 농산물 수급

1.1. 현황과 영향 전망

1.1.1. 엽근채소류 - 배추, 무, 당근, 양배추

□ 단기 전망(4~5월)

- (수급) 겨울 작형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봄 작형도 생육기 저온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어 4월 출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5월부터 봄 작형의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출하량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배추, 당근, 양배추는 4월부터 시설봄 작형의 출하가 시작되고, 5월에는 노지봄 출하도 이루어져 출하량은 점점 늘어날 전망
 - 무는 봄 작형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14% 감소하였으나, 월동무 저장 출하량 증가로 4~5월 출하량은 평년보다 증가 예상

- (가격) 무 4~5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겠으며, 배추·당근·양배추의 4월 가격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5월부터는 평년 대비 가격 격차가 줄어들 전망

□ 시나리오 1

- (수급) 엽근채소 6월 출하량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배추, 당근, 양배추는 봄 작형의 출하가 많고, 무는 월동무 저장 출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4월 주산지 저온 발생으로 향후 추대 발생 등 작황이 부진해질 경우 출하량 증가폭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봄 작형 정식(파종) 시기인 3~4월보다 본격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지는 5월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조사(표본농가 조사 결과)

□ 시나리오 2

- 고랭지 작형의 재배의향면적은 배추, 무가 평년보다 4~7% 감소하나, 당근, 양배추는 각각 38%, 7% 증가할 것으로 조사
 -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상 발생이 없을 경우 당근, 양배추의 출하량은 평년보다 증가하겠으며, 배추와 무도 출하량 감소가 크지 않을 전망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 정식(파종), 수확 단계의 인력 운영이 봄 작형 시기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고랭지 작형은 경사진 곳에 재배를 많이 하고, 기상 변화도 잦아 생육 관리 등에 필요한 투입 인력이 봄 작형보다 많은 편임.

※ 코로나19 영향(인력 수급) 관련 표본농가 조사 결과

단위: %

		영향 있음	영향 없음
봄 작형	정식(파종) 단계	24.8	75.2
	생육 단계	23.1	76.9
	수확 단계	40.9	59.1
고랭지 작형	정식(파종) 단계	65.9	34.1
	생육 단계	28.3	71.7
	수확 단계	54.8	45.2

- 봄 작형 표본농가 270호, 고랭지 555호 대상(응답 기준)

1.1.2. 양념채소류 - 마늘, 양파, 건고추

□ 단기 전망(5~6월)

- (마늘) 5월 마늘 도매가격은 햇마늘 출하와 저장업체의 마늘 출고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이며, 6월 마늘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도 불구하고 이월 재고가 늘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양파) 2020년산 양파가 출하되는 5~6월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건고추) 공급량 증가로 5~6월 건고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낮을 전망

□ 시나리오 1

- (마늘) 6월 말 전후로 국내 코로나19 안정 시, 2020년산 마늘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농가판매가격이 베이스라인 대비 0.8% 하락하여 마늘 생산액은 베이스라인(9,620억 원) 대비 81억 원 감소한 9,539억 원 전망

○ (양파) 2020년산 양파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농가판매가격이 0.7% 하락하여 양파 생산액은 베이스라인(7,984억 원) 대비 53억 원 감소한 7,931억 원 전망

○ (건고추) 2020년산 건고추 가격은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의한 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건고추 생산액은 베이스라인(9,502억 원) 대비 29억 원 증가한 9,531억 원

□ 시나리오 2

○ (마늘) 국내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어 국내 및 세계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경우 2020년산 마늘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양파) 2020년산 양파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

○ (건고추) 2020년산 건고추 가격은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의한 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1.1.3. 과일·과채류

□ 단기 전망

○ (사과) 4월 이후 사과 저장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9만 8천 톤으로 추정됨. 4월 출하량은 4만 1천 톤으로 전년보다 4% 증가하고, 5월 이후는 5만 6천 톤으로 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4~5월 가격도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약세 예상

- (배) 4월 이후 배 저장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만 5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4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한 8천 톤 내외, 5월은 7천 톤 내외로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5월 가격은 저장량이 크게 적었던 전년보다 출하량이 늘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하락 예상
- (딸기) 2019/2020년산 딸기 출하는 5월에 대부분(92%) 종료됨. 5월 딸기 출하량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1%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월 딸기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1만 4,300원) 대비 강세가 예상
 - 딸기 수출업체 조사 결과, 4~5월 신선 딸기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운항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파프리카) 파프리카 주산지(진주, 화순, 김제) 조사 결과, 5~6월 파프리카 출하량은 작황이 양호하나 생산량이 많았던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5~6월 파프리카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 및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소비 침체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 예상

□ 시나리오 1

- (사과·포도) 사과는 6월 이후에 저장 출하가 종료되고, 2020년산 햇과일이 생산·출하됨. 2020년산 사과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19년산 대비 0.8%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 예상,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출하되는 포도 생산량의 경우 16만 7천 톤(1.2%)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수확기에 걸쳐 전반적인 약세 예상

- (배·복숭아) 배는 저장 출하가 끝나는 8월부터 햇과일 생산·출하가 시작되며, 복숭아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2020년산 배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19년산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가격은 전반적으로 강세 예상, 복숭아는 전년 대비 6.7%(21만 2천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수확기에 걸쳐 전반적인 강세 예상

□ 시나리오 2

○ 사과·포도

- 사과·포도는 2020년 생산량 증가로 가격 약세가 전망되나, 소비 대체재인 수입 과일의 수입량 감소 영향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 상쇄 가능성이 존재. 다만, 고가인 샤인머스켓의 경우, 소득에 민감한 품종이므로 코로나19 확산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로 소비 둔화가 예상

○ 배·복숭아

- 코로나19 확산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과일 수입량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 2020년산 배·복숭아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반적인 강세가 예상되며, 소비 대체 수입 과일의 수입량 감소 영향으로 배·복숭아 가격 상승폭은 확대 가능성 존재

1.1.4. 곡물 - 쌀

□ (동향) 4월 15일 기준, 산지 평균 쌀 가격은 18만 9,668원/80kg으로 수확기 및 전년 대비 각각 0.2%, 1.3% 하락

- 2019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쌀 가격은 생산량이 3.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산 역계절진폭 발생과 구곡 재고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9% 낮은 18만 9,964원/80kg이었음.

- 2019년산 쌀 생산량은 수확기 잦은 강우와 태풍 영향 등으로 작황이 저조하여 전년 대비 3.2% 감소한 374만 4천 톤이었음.
- 2018년산 역계절진폭 발생(2.7%)과 구곡 재고 부담 등의 영향으로 조곡가격이 전년보다 약 1천 원/40kg 낮게 형성됨.

○ 2020년 1월 들어 판매가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직후 가정 내 소비 증가로 2월 하순 중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

- 1월 산지유통업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1% 감소하였고 2월 중순까지도 판매 부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월 하순 가정용 소비 증가로 산지유통업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음.

* 대형유통업체(3사)와 온라인쇼핑몰(5사) 2월 매출액 전년 대비 각각 36.1%, 11.2% 증가

○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내 판매는 한시적으로 증가한 반면, 외식 및 식자재업체 판매 감소는 심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2월 이후 쌀 가격 약세 지속

- 2월 5일 이후 전 순기 대비 가격이 평균 0.03% 하락하였으며 특히, 3월 들어 가정용 판매량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감소⁴⁾하여 쌀 가격은 약보합세 지속

□ (전망) 4~5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소비 감소 등으로 약보합세 전망

○ 산지유통업체 및 농가의 재고는 전년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외식 및 식자재업체 판매둔화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⁴⁾ 구매주기가 긴 가정 소비의 특성상, 10kg 쌀 구입 시 2인 가정은 약 30일 내외 경과 후 재구매가 이루어짐. 이는 2019양곡연도 연간 1인당 쌀 소비량(59.2kg)을 한 끼니당으로 환산한 후, 월평균 가정 내 식사 횟수(2015~2019양곡연도의 절단평균인 67.3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 업체별 전년 대비 재고 상황(4. 10. 기준): 농협(7.5↓), 민간(7.2↓)
- * 4월 산지유통업체 대상 재고 소진 속도(전년 대비): 빠름(18.6%), 비슷(45.1%), 늦음(36.3%)
- * 4월 산지유통업체 대상 향후 가격전망: 상승(17.9%), 유지(27.9%), 하락(26.4%), 미정·무응답(27.9%)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가정하고, 외식 감소 및 가정 소비로의 대체 현
황 등을 고려 시 전체 소비가 감소하여 역계절진폭 발생 우려**

○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외식 횟수가 감소(1주 기준 1.7회)한 반면, 가정 내 식사가 증가(1주 기준 1.7회)하여 외식 소비 감소가 대부분 가정 소비로 대체

- 코로나19 발생 이후(2~3월 평균) 음식업체의 한 달간 쌀 사용량은 이전의 60.8% 수준으로 감소

- * 금년 1월 음식업체 쌀 사용량이 100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2~3월 쌀 사용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2월에는 67.1로 32.9% 감소하고 3월에는 2월 대비 12.7%p 줄어든 54.4로 조사됨.

○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 1인당 1끼니 쌀 소비량(즉석밥 포함)은 66.6g⁵⁾으로 외식 시 쌀 소비량(68.8g)⁶⁾ 대비 소폭 적어 쌀 소비 증대로 이어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5) KREI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646명을 대상으로 1끼니당 식사량을 조사(2020. 4. 3.~4. 6.)한 결과, 1인당 1끼니 쌀 소비량은 60.9g이며, 즉석밥을 포함한 쌀 소비량은 63.3g으로 분석되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64.6g, 즉석밥 쌀 소비량을 포함하는 경우 66.6g으로 추정됨. 1인 한 끼니당 소비량은 1회 밥짓는 양(계량컵 기준 수*150g) ÷ (총 식사 인원수) ÷ (몇 끼니 분량)으로 산출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에 가정 내 식사 횟수 증가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6)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자료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여 구축된 서울 지역 음식업체 패널 중 업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분식 등)을 고려한 300개소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2020. 4. 2.~4. 8.)한 결과, 1인당 1끼니 쌀 소비량은 68.8g으로 조사되었음. 외식에서의 1인당 쌀 소비량은 68.8g으로 평상시 한달간 쌀 사용량과 음식점 방문 고객 수(배달·포장 포함)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하였음. 업종별로는 한식 93.6g, 분식 77.2g, 일식 64.4g, 서양식 36.4g, 중식 28.7g으로 나타남.

○ 소비 감소 영향 등으로 단경기 내 재고 소진이 쉽지 않을 전망

* 과거 월평균 재고 소진량을 고려하여 8월 말 재고량을 추정한 결과, 전년 12월 말 시점에서는 8월 말 재고가 11만 7천 톤으로 추정되었으나, 금년 3월 말 시점으로는 8월말 재고가 15만 7천 톤으로 예측되어 단경기 내 구곡 재고 소진이 어려울 전망

1.1.5. 축산물 - 한우, 돼지, 계란

□ 단기 전망(5~6월)

○ (한우) 5~6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11만 3천 마리로 전년보다 4.2%, 평년보다 2.9% 증가할 전망,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 취소로 인한 봄철 나들이 관광객 감소, 회식 및 모임 자제 등으로 5~6월 한우고기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돼지) 5~6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276만 마리로 전년보다 3.0%, 평년보다 6.9% 증가 전망,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철 등 계절적 수요 감소 예상,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미국, EU 등) 수출 차질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 수입 전년보다 감소 전망

○ (계란) 5월 부활절 이후 수요 감소로 전년보다 1.5% 감소한 5,318만 마리로 전망, 6월도 전년보다 2.1% 감소한 5,286만 마리로 전망

○ (원유) 6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40만 2천 마리로 전망, 사육 마릿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2020년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1.1% 많은 53만 6천 톤 내외로 전망

□ 시나리오 1

- (한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가정 내 소비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고기 수요 감소 예상, 이에 따라 2020년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기존 전망치(Baseline)보다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돼지) 5~12월 도축 마릿수 전년 대비 0.4% 줄고, 동 기간 수입량은 전년 대비 28.2% 감소 전망, '20년 돼지고기 도매가격 평년과 기존 전망치(Baseline)보다 하락 전망
- (계란) 전년 대비 가격 상승으로 노계 도태 마릿수가 감소하여 6~7월까지 사육 마릿수는 기존 전망치(Baseline)보다 1%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계란 산지가격은 사육 마릿수 증가로 기존 전망치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2

- (한우)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소득 감소폭과 한우 소비 위축으로 인해 한우고기 수요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기존 전망치(Baseline)보다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돼지) 코로나19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될 경우 기존 전망치보다 소비 및 수입 감소폭 확대 전망, 2020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평년과 기존 전망치보다 하락 예상
- (계란) 소비 위축으로 가격 하락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1.2. 대응 방안

□ 엽근채소

- (봄 작형)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시세가 예상되고,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농가 판매가격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한 면적 조절과 소비 촉진 필요

- (고랭지 작형) 재배면적 감소는 크지 않겠으나,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봄 작형에 대한 수매·비축 물량 확보와 적정면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인 생산관리 필요

- (수입 관리) 코로나19로 음식점 방문이 줄면서 국내 외식 수요가 감소하여 김치, 당근 등의 수입도 일부 조절되고 있으나, 당근은 3~4월 주 수입되는 중국 복건성 당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수입량 감소가 확대될 수 있어 외식 부문에 대한 수급 점검 필요

□ 양념채소

- (마늘) 2019년산 남도종 저장마늘의 가공용 전환 등 마늘 수확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추진

- (양파) 2020년산 증만생종 양파에 대한 철저한 생육 관리로 단수 증대 노력

- (건고추)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 노동력의 농촌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추진(버스비, 중식대 등 지원)

□ 과일·과채

- 과일·과채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활용
 - 바우처사업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고,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 위기가정 등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하여 과일·과채류의 소비 진작 도모 필요
- 딸기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산지-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 활동 지원
 -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수요처에서 실시하는 기획 판매 행사 활용
- 파프리카의 다양한 수출 판로 모색
 - 일본의 내수 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일본 외 대만, 싱가포르 등 새로운 수출 판로 모색 및 지원책 마련 필요
- 고당도 과일 생산을 위한 생육관리 및 적과 노력 필요
 -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될 경우,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수입량 감소로 국내 과일류의 내수 소비 진작이 기대되나, 과도한 착과에 따른 당도 저하 등 과일 품질 악화로 소비 부진도 우려됨.

□ 김치 공급 확대 대책

- 5월 이후 김치 원료인 노지 채소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 전망되어 김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여건 개선 정책 추진 검토
- 개학 연기에 따른 김치 수요 감소와 김치 제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기여

○ 전년 김장철 채소가격 상승 등으로 김장 규모를 줄인 가정이 많음을 고려하여 가정 김치 소비 촉진 활동

○ 저소득층 김치 공급 확대, 환율 상승 등 수출여건 개선을 고려한 김치 수출 촉진

□ 원예 농자재 가격 모니터링

○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관련 농자재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반면, 환율 인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농자재도 존재

○ 하락요인이 발생한 농자재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거나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 큰 폭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농자재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농협 등이 선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인하한 농자재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권장

□ 지역 밀착형 밀키트 공급 지원

○ 소비자의 음식점 방문 기피, 소규모 음식점의 거래 위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에서 국산 농산물 원재료의 밀키트를 인근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음식점과 배달 대행 서비스, 온라인·모바일 주문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역 음식점에서 조리한 밀키트를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

○ 음식점에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지원, 배달대행 서비스, 온라인 주문 서비스 등과 업무 협약 체결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경우 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먹거리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음식 제공

□ **농업부문 계절 근로 인력 공급 대책 추진**

○ 시나리오 1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상용 근로는 물론 계절 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전망됨.

○ 단기 체류하는 계절 근로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방역 절차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

○ 도시 인력을 농업부문에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교통비 등의 지원 필요

2. 친환경농산물

2.1. 현황과 영향 전망

2.1.1. 현황

-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5주간 연기되면서 학교급식 계약재배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
 - 피해대책에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친환경농가와 친환경생산자단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필요(친농연)
 - 한편 생협외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안정적인 가격, 투명한 정보 공개, 꼼꼼한 관리 등으로 상대적으로 신뢰를 더 많이 얻었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온라인 등 판촉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 소비 촉진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음.
 - 꾸러미 온라인 판촉 지원: 376톤에 대해 20% 할인 지원
 - 자가격리자 1만 명 꾸러미 지원: 1인당 3만 원

- 1월 상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평년 대비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 11개 품목의 평년 대비 가격은 1월 6.4%에서 4월 중순 -2.8%로 나타남.

- 가격 강세를 보이는 3개 품목을 제외한 8개 품목의 평년 대비 가격은 1월 6.3%에서 4월 중순 -7.7%로 나타남.

* 쌀은 평년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가격이 높게 나타났고, 토마토는 단수가 낮았으며(관측월보 3월호), 양파는 재고 부족으로 가격 강세를 보임.

-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가격 변화는 4월 중순을 기준으로 -2.8~ -7.7%로 볼 수 있음.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생협의 매출액 증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2-1 주요 품목 평년대비 가격 증감률(1~4월 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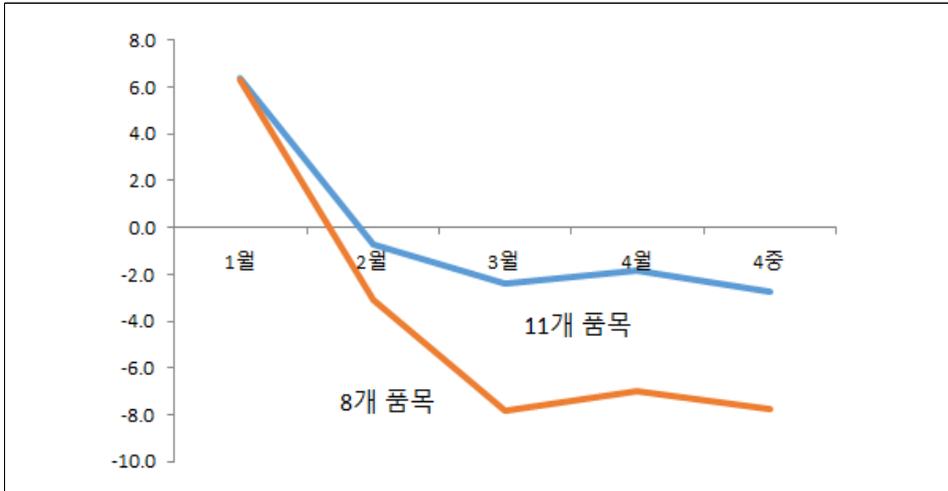
단위: %

	쌀	고구마	감자	상추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무	꽃고추	양파	11개 품목	8개 품목
1상	19.5	-0.9	-5.7	6.2	-1.4	-17.6	9.1	19.0	32.4	0.2	-19.5	3.8	4.0
1중	24.9	-8.2	-2.1	0.2	0.1	-3.3	11.4	27.0	36.3	5.9	-13.0	7.2	7.0
1하	22.3	-3.6	-15.7	2.8	4.5	-1.6	11.3	26.0	44.8	6.1	-7.0	8.2	7.9
2상	12.1	-9.0	-26.0	5.3	-1.4	-6.0	9.5	10.5	40.1	-1.9	-9.0	2.2	1.4
2중	19.2	-24.8	-26.7	-7.0	1.1	-8.1	8.3	3.6	24.7	-4.6	-7.2	-2.0	-5.2
3하	16.2	-21.7	-28.2	-7.7	1.0	-9.7	10.3	4.8	17.1	0.5	-8.5	-2.3	-5.5
3상	13.8	-21.4	-12.3	-5.9	-0.3	-8.1	17.2	4.5	16.1	15.0	11.8	2.8	-1.5
3중	17.3	-20.9	-21.2	-5.6	-3.7	-8.5	16.4	-2.6	-3.4	2.5	11.1	-1.7	-7.9
3하	15.0	-22.9	-47.5	-3.7	-1.8	-10.5	13.3	-9.0	-1.7	-14.3	-6.8	-8.2	-13.9
4상	12.6	-19.9	1.2	-16.1	5.7	-13.1	16.7	-0.2	12.8	-20.5	11.0	-0.9	-6.3
4중	8.4	-25.2	1.6	-14.8	-6.3	-15.6	19.9	7.6	7.4	-16.8	3.3	-2.8	-7.7
1월	22.2	-4.2	-7.8	3.1	1.1	-7.5	10.6	24.0	37.8	4.0	-13.2	6.4	6.3
2월	15.8	-18.5	-27.0	-3.1	0.2	-8.0	9.4	6.3	27.3	-2.0	-8.2	-0.7	-3.1
3월	15.4	-21.7	-27.0	-5.1	-2.0	-9.0	15.6	-2.4	3.7	1.1	5.4	-2.4	-7.8
4월	10.5	-22.5	1.4	-15.4	-0.3	-14.3	18.3	3.7	10.1	-18.6	7.2	-1.8	-7.0
4중	8.4	-25.2	1.6	-14.8	-6.3	-15.6	19.9	7.6	7.4	-16.8	3.3	-2.8	-7.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2-1 주요 품목 평년 대비 가격 증감률 평균(1~4월 중순)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2.1.2. 영향 전망

- 유·초·중·고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었고, 계약재배 농가들은 판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음.
- 또한, 소득 감소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최근의 가격 변화 자료와 금융위기 시기의 가격 변화 자료를 살펴볼 때 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학교 급식이 유지되느냐 중단되느냐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시나리오 1은 6월 말까지, 시나리오 2는 12월 말까지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함.

□ 시나리오 1: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국내 상반기 종식), 해외 확산 지속

○ 다음 표는 월별 전체출하량과 학교급식 공급량을 나타내고 있음. 2020년 3월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피해 물량은 812톤 수준임(농림축산식품부 조사자료).

-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⁷⁾상 3월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이 8,065톤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0.1% 수준임.

표 2-2 학교급식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변화

단위: 톤, %

	전체 출하량	학교 급식	출하량 증가율		가격 하락률	
			10% 피해	전체 피해	10% 피해	전체 피해
1월	40,025	809	0.2	2.0	0.1	1.1
2월	39,415	2,853	0.7	7.2	0.4	4.0
3월	44,357	8,065	1.8	18.2	1.0	10.0
4월	42,652	7,971	1.9	18.7	1.0	10.3
5월	47,453	7,661	1.6	16.1	0.9	8.9
6월	44,208	8,856	2.0	20.0	1.1	11.0
7월	39,720	6,057	1.5	15.2	0.8	8.4
8월	38,180	4,957	1.3	13.0	0.7	7.1
9월	39,885	8,795	2.2	22.1	1.2	12.1
10월	37,208	7,019	1.9	18.9	1.0	10.4
11월	39,481	8,652	2.2	21.9	1.2	12.1
12월	41,721	7,639	1.8	18.3	1.0	10.1
전체	494,307	79,334	1.6	16.0	0.9	8.8
3~6월	178,670	32,554	1.840	18.220	1.012	10.021
3~12월	414,866	75,672	1.842	18.240	1.013	10.032

주 1) 월별 출하량은 전체 출하량(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을 이용하여 산정함.

2) 학교급식 물량은 15대 품목을 집계한 물량(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이므로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3) 전체, 3~6월, 3~12월의 경우 전체출하량과 학교 급식은 합계를 나타내고 출하량 증가율과 가격하락률은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7)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현황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8)”에서는 15대 품목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현황을 조사함.

○ 피해 물량으로 잡히지 않은 약 90%는 저장이 가능한 품목이거나 시장에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실정임. 그러므로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는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전체 양이 되어야 함.

- 학교 급식 피해 규모만큼을 공급량 증가로 설정하고, 일반농산물의 수요 탄성치인 -0.549^8 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계산할 수 있음.

- 10% 피해인 경우와 전체 피해인 경우의 출하량 증가율과 가격 하락률을 계산할 수 있으며, 3~6월까지 평균을 보면, 출하량은 1.84~18.22% 증가하고, 가격은 1.012~10.02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2: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 학교 급식 피해 규모만큼을 공급량 증가로 설정하고, 일반농산물의 수요 탄성치인 -0.549^9 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계산할 수 있음.

○ 10% 피해인 경우와 전체 피해인 경우의 출하량 증가율과 가격 하락률을 계산할 수 있으며, 3~12월까지 평균을 보면, 출하량은 1.842~18.24% 증가하고, 가격은 1.013~10.03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시나리오 1과 비교할 때 출하량 증가폭과 가격 하락폭은 비슷하지만 누적 규모에서는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큰 차이가 남.

8) 임정빈 외(2019)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탄성치의 평균치임.

9) 임정빈 외(2019)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탄성치의 평균치임.

□ 금융위기(2008년) 전후 친환경농산물 가격 변화 추이

- 소득 감소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수요 감소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2008년 금융위기 시기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살펴봄.
- 주요 품목에 대해 평년가격과 2008~2011년 가격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위기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음.
 - 이와 같은 결과는 당시 유기나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소비 의향이 현재 보다 높았고(정학균 2019),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고정소비계층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2-3 금융위기 시기의 주요 친환경농산물 가격 변화

단위: 원/kg, %

	쌀		오이		풋고추		상추		감자		토마토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2008	4,331	3,293	6,436	6,527	12,877	13,553	11,048	11,881	3,779	2,947	5,012	4,878
2009	4,203	3,280	6,300	6,067	13,696	12,885	11,576	11,623	3,455	3,092	5,457	5,126
2010	3,842	2,876	7,831	7,199	16,263	16,096	13,739	14,157	4,313	3,735	6,507	6,469
2011	3,749	3,090	7,364	6,908	15,291	16,956	12,634	15,374	4,253	3,714	6,790	6,746
평년	4,363	3,324	5,704	5,721	13,377	13,323	11,064	11,249	3,172	1,888	4,858	4,973
2008/평년	-0.7	-0.9	12.8	14.1	-3.7	1.7	-0.1	5.6	19.1	56.1	3.2	-1.9
2009/평년	-3.7	-1.3	10.4	6.0	2.4	-3.3	4.6	3.3	8.9	63.8	12.3	3.1
2010/평년	-11.9	-13.5	37.3	25.8	21.6	20.8	24.2	25.9	36.0	97.8	33.9	30.1
2011/평년	-14.1	-7.0	29.1	20.8	14.3	27.3	14.2	36.7	34.1	96.7	39.8	35.7

주: 평년은 2005~2009년의 가격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치임.

2.2. 대응 방안

○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함. 소비 감소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농가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계약재배 농가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방안 1: (시나리오 공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온라인 등 판촉 지원

○ (지원방식) 꾸러미 할인판매액 지원

-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꾸러미를 주문하면 친농연 등에서 친환경농산물 수집 및 꾸러미 제작 후 배송

- (오프라인) 친농연이 이마트 등에 단품을 납품하면, 해당 매장 책임으로 판매 후 할인판매액 정산

□ 방안 2: (시나리오 공통) 직거래자금(융자) 대출금리 인하(기존)

○ 운영자금(2.5~3%→2~2.5%) 및 시설자금(2~3%→1.5~2.5%)

□ 방안 3: (시나리오 공통) 친환경 소비촉진 홍보(신규)

○ 대형마트·생협 등 수도권 대형매장 대상 홍보배너, 현수막, 시식행사 등 판촉 행사비 지원

□ 방안 4: (시나리오 공통)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특별 경영자금 지원

○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의 판로가 막혀 소득이 감소하는 농가는 상당한 경영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책정하여 지원

*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중

□ 방안 5: (시나리오 공통)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농축산경영자금을 통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가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음. 지원조건은 금리 3%, 1년 이내 상환 조건임.

□ 방안 6: (시나리오 공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자가격리자 및 청소년에게 공급

○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청소년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

○ 심리적 고통지수가 높은 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향후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가 효과 기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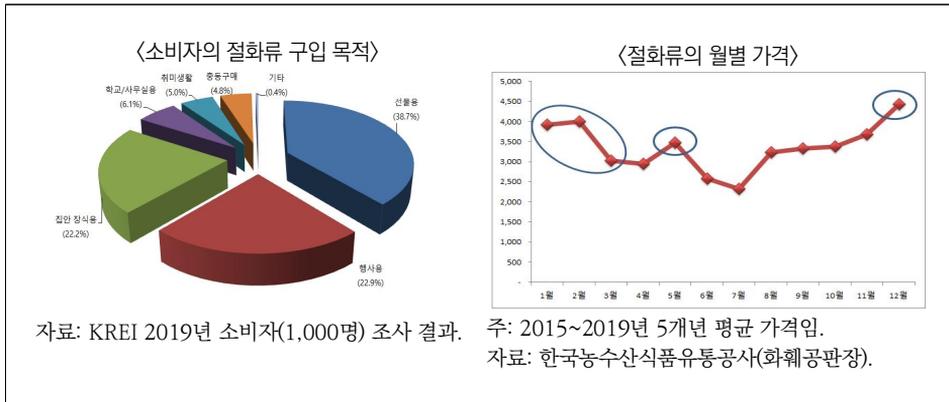
3. 화훼산업

3.1. 현황과 영향 전망

3.1.1. 현황

- 화훼산업은 200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
 - 생활 속 소비 미정착과 특정 시기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 반영

그림 2-2 소비자 절화류 구입 목적과 절화류 월별 가격



- 화훼를 구매하기 아깝다고 인식하는 소비자 비중이 3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생활필수품으로 느끼는 소비자 감소
 - 여전히 1/3 이상의 소비자가 화훼를 사치품이나 구매하기 아까운 품목으로 인식

표 2-4 소비자의 화훼 인식

단위: %

	사치품처럼 느껴져 거부감	돈을 주고 구매하기 아까움	일반 농산물과 동일	생활필수품으로 느낌	계
2013년	2.7	36.2	29.5	31.6	100.0
2019년	6.1	36.1	33.3	24.6	100.0

자료: KREI 소비자 조사 결과.

○ 화훼에 대한 소비자 인식으로 인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소비 의향 변동 심한 편

-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늘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 9%에 불과하며, 관계없이 구매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도 16%에 달해

표 2-5 경제 여건 변화 시 소비자의 화훼소비 증감 의향

단위: %

	경제 여건 개선 시 소비 의향 있음	경제 여건 개선되어도 소비 의향 없음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미구매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항상 구매	계
2019년	58.7	16.2	16.0	9.2	100.0

자료: KREI 2019년 소비자(1,000명) 조사 결과.

○ 2020년에도 화훼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성수기 소비 부진으로 더욱 감소

- 당초에는 2020년 절화류 생산량 전년 대비 5.6%, 분화류 2.8% 감소 전망 (KREI 모형(Korea Floriculture Simulation Model) 추정치)
- 그러나 실제 도매시장의 절화류 거래량 2월 19.8%, 3월 9.8%, 호접란은 2월 33.8% 감소, 3월 10.9% 증가로 감소폭 확대
 - * 원인: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2월 졸업식·밸런타인데이, 3월 입학식·화이트 데이 등 행사 취소로 특수기 판매 부진
- 거래량 감소 시 통상 도매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물량 감소에도 가격은 오히려 하락

- * 2월 가격: 절화류 전체 9.0%, 장미 9.0%, 카네이션 24.8%, 호접란 3.3% 하락
- * 3월 가격: 절화류 전체 0.8%, 장미 10.6%, 카네이션 0.7% 하락, 호접란 8.9% 상승
- * 4월 가격: 절화류 전체 9.3%, 장미 3.7%, 국화 23.3%, 백합 37.9% 하락

표 2-6 주요 화훼류 2020년 1~3월 전년 대비 거래량 및 가격 변화

단위: %

구분		절화류							분화류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안개초	프리지아	호접란	
거래량	2월	-19.8	-19.8	-13.1	-19.2	9.7	-33.6	-33.4	-33.8
	3월	-9.8	-10.7	-10.9	-35.3	-33.1	-27.9	-17.9	10.9
도매가격	2월	-9.0	-9.0	-18.0	1.0	-24.8	-23.3	-17.7	-3.3
	3월	-0.8	-10.6	-14.9	-2.1	-0.7	-2.3	9.0	8.9
	4월	-9.3	-3.7	-23.3	-37.9		-15.2		-7.4

주: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4월 실적을 공표한 품목만 수치를 제시하였으며, 호접란의 4월 도매가격은 만천홍 품종 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화훼공판장).

3.1.2. 영향 전망

□ 판매량 전망: 2019년 새로 구축된 화훼수급모형(Korea Floriculture Simulation Model: KFSMO, 연간 모형)을 활용하여 2019년 및 2020년 화훼생산 전망

□ 판매액 전망: 행태방정식 변형 및 모듈 구축

○ 수요함수는 (식 1)과 같이 Cobb-Douglas 함수 형태라고 가정하고, 양변을 log 변환하면 (식 2)의 수요 행태방정식 도출

$$Y = \beta_0 X_1^{\beta_1} X_2^{\beta_2} I^{\delta} \quad (\text{식 1})$$

$$\text{Log}(Y) = \text{Log}(\beta_0) + \beta_1 \text{Log}(X_1) + \beta_2 \text{Log}(X_2) + \delta \text{Log}(I) \quad (\text{식 2})$$

- X_1 는 해당 품목, X_2 는 수요 대체 품목, Y 는 해당 품목의 수요, I 는 가처분소득, β_1 과 β_2 는 각각 자체 탄성치와 교차 탄성치, δ 는 소득 탄성치를 의미

○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산업이 침체되어 수요가 $\alpha\%$ 만큼 감소한다면, (식 1)과 (식 2)는 각각 (식 3)과 (식 4)로 전환

$$(1 - \alpha/100)Y = (1 - \alpha/100)\beta_0 X_1^{\beta_1} X_2^{\beta_2} I^\delta \quad (\text{식 3})$$

$$\begin{aligned} \text{Log}((1 - \alpha/100)Y) &= \text{Log}((1 - \alpha/100)\beta_0) + \beta_1 \text{Log}(X_1) \\ &+ \beta_2 \text{Log}(X_2) + \delta \text{Log}(I) \end{aligned} \quad (\text{식 4})$$

○ 수요 감소의 효과는 (식 4)에서 (식 2)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식 4)의 우변에서 (식 2)의 우변을 제하면 (식 5)로 정리

$$\text{Log}((1 - \alpha/100)Y) - \text{Log}(Y) = \text{Log}(1 - (\alpha/100)) \quad (\text{식 5})$$

□ 시나리오 1(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국내 상반기 종식), 국외 확산 지속)

○ 가정 1(기준)

- 2019년 전망치를 실제 도매시장 월별 거래 비중을 기준으로 할당
- 2019년 전망치를 도매시장의 2017~2019년 평균 월별 거래 비중을 기준으로 할당

○ 가정 2(코로나19 영향)

- 2020년 1~3월 판매량은 실제 도매시장의 전년 대비 월별 증감률을 2019년의 추정 1~3월 판매량에 적용하여 산출
- 2020년 4~6월 판매량 추정
 - * 가정 1의 2020년 1~3월 판매량을 제외(미판매 물량은 폐기 간주)한 4~12월 판매량을 각각의 월로 가중평균하여 할당
 - * 2020년 2~3월 평균 감소율(정부 매입분 제외하여 재추정)에서 당초 전망되었던 전년 대비 감소율을 제외하여 4~6월에 적용

- 분석 결과, 코로나19 영향이 6월까지 지속될 경우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여 전반적으로 화훼류 판매는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절화류는 당초 4~6월 판매량 전망치 대비 20~21% 내외 더 감소하겠으며, 5월 어버이날 특수기인 카네이션은 23~30% 감소 전망
 - 봄철 수요가 많은 호접란의 경우 4~6월 판매량이 전망치 대비 8~9% 내외 감소 예상

표 2-7 주요 화훼류의 2020년 4~12월 판매량 추정치 대비 변화 전망(시나리오 1)

단위: %

구분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진정 국면(정상)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절화류 전체	-20.3	-20.8	-19.7	1.2	0.5	0.7	-1.2	-0.8	-0.1
장미	-25.4	-25.8	-25.5	-0.6	1.2	1.0	-1.5	-0.3	0.5
백합	-21.1	-21.9	-21.1	5.2	-0.5	0.0	-1.1	-0.5	-1.3
카네이션	-28.9	-30.1	-22.7	-15.4	-0.7	-1.6	0.6	2.8	3.6
안개초	-41.4	-43.4	-41.0	-18.7	-4.7	-7.1	2.8	6.3	8.8
프리지아	-40.5	-	-	-	-	-	-	-6.7	0.9
분화류 호접란	-9.0	-8.9	-8.1	-0.6	0.5	-0.7	-0.1	1.5	-0.3

자료: KREI 추정치.

- 코로나19가 7월부터 진정된다고 가정하면, 꽃 소비 비수기인 여름철 이후 판매는 전반적으로 정상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절화류 판매량 및 가격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락)하여 판매액은 당초 전망치 대비 14% 감소 전망
 - 절화류 중 카네이션은 43%, 분화류인 호접란은 7% 감소 예상

표 2-8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절화류 및 화접란 생산액 감소 영향(시나리오 1)

단위: %

구분	절화류						분화류
	절화 전체	장미	백합	카네이션	안개초	프리지아	화접란
전망치 대비 판매액 감소율	-13.9	-16.5	-13.0	-43.0	-34.7	-21.7	-6.5

자료: KREI 추정치.

□ 시나리오 2(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 가정 1(기준) 및 가정 2(코로나19 영향)는 시나리오 1과 동일하나, 감소율은 차등 적용

- 2020년 4~6월 감소율은 2~3월 평균 감소율 적용
- 2020년 7~12월 감소율은 2~3월 평균 감소율의 절반 적용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소한의 일상은 진행될 것으로 판단

○ 분석 결과, 코로나19 영향이 연말까지 지속되어 전체적으로 화훼류 판매 부진은 이어질 전망

표 2-9 주요 화훼류의 2020년 4~12월 판매량 추정치 대비 변화 전망(시나리오 2)

단위: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절화류 전체	-20.3	-20.8	-19.7	-8.8	-9.4	-9.2	-11.0	-10.6	-9.9
장미	-25.4	-25.8	-25.5	-13.3	-11.7	-11.8	-14.0	-12.9	-12.3
백합	-21.1	-21.9	-21.1	-6.1	-11.2	-10.7	-11.8	-11.2	-11.9
카네이션	-28.9	-30.1	-22.7	-26.5	-13.7	-14.5	-12.6	-10.7	-10.0
안개초	-41.4	-43.4	-41.0	-35.0	-23.9	-25.8	-17.9	-15.0	-13.0
프리지아	-40.5	-	-	-	-	-	-	-14.9	-8.0
분화류 화접란	-9.0	-8.9	-8.1	-4.8	-3.7	-4.9	-4.3	-2.8	-4.5

자료: KREI 추정치.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절화류 판매량 및 가격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락)하여 판매액은 당초 전망치 대비 21% 감소 전망
 - 절화류 중 카네이션은 43%, 분화류인 호접란은 10% 감소 예상

표 2-10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절화류 및 호접란 생산액 감소 영향(시나리오 2)

단위: %

구분	절화류						분화류
	절화 전체	장미	백합	카네이션	안개초	프리지아	호접란
전망치 대비 판매액 감소율	-21.0	-27.1	-19.7	-43.0	-44.1	-22.2	-9.5

자료: KREI 추정치.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규제 정책 추진 시 화훼류 변화 추이**

- 당시 행자부에서 1999년 6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발표 시 화환·화분 수수 금지 조항 포함

표 2-11 1999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선물·향응 수수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 접대 받는 행위 금지 ② 직무 관련 선물 수수 금지 및 5만 원 초과 직무 관련 없는 선물 수수 금지
경조사 통지·경조금품 접수	③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축조의금 접수 금지
화환·화분 수수	④ 경조사·이취임 시 화환·화분 수수 금지
전별금·촌지 수수	⑤ 퇴직·전근 시 전별금·촌지 접수 금지
공용물 사용	⑥ 본인의 가족 등의 관용차 사용 금지
품위 유지	⑦ 호화시설이용 결혼 금지 ⑧ 호화유희업소 출입 금지 ⑨ 공직자 부인모임 해체 ⑩ 정당 등에 후원금 기부 금지

자료: KREI 추정치.

- 화훼는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민감히 반응하는 취약한 구조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발표 직후 꽃 가격 30~50%까지 급락

* 1999년 6월 11일 자 장미 가격 속당 1,830원(카디날 품종), 3,460원(산드라 품종)이었으나, 발표 이후 6월 18일 각각 1,000원, 2,280원, 6월 24일 410원, 810원까지 급락(농민신문사)

□ 외환위기(1998년) 전후 화훼류 변화 추이

○ 화훼는 과거 경기 침체와 전염병 발생 시기에 수요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

- 전무후무한 경제 역성장(1998년, -5.5%) 원인이었던 외환위기에 화훼 산업 크게 위축
- 순조롭게 성장을 해오던 화훼는 1997년 말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경제 침체 상황을 맞이하면서 화훼소비도 크게 위축
 - * 화훼는 생필품이 아니라 기호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
- 내수시장 급랭으로 화훼산업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절화류 가격 급락하면서 시설지원금 상환 불가능했던 농가들 도산 속출
 - * 외환위기로 국가 전체 경제가 가장 심각했던 1998년 1~6월 상반기의 절화류 가격 전년 대비 급락했으며, 호접란 가격 하락도 컸던 상황

표 2-12 외환위기(1998년) 시 주요 화훼류 가격 전년 대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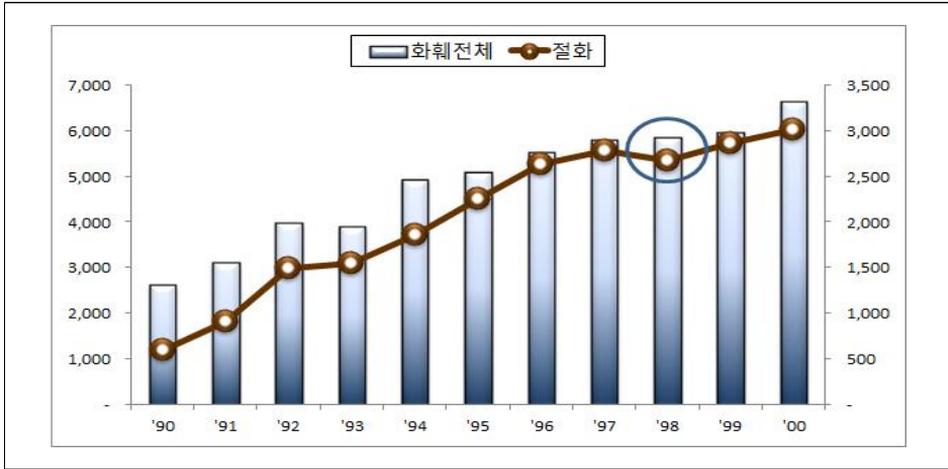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연평균
절화류 전체	-30.9	-30.6	-21.2	-30.6	-8.5	-14.1	-8.0
장미	-35.5	-16.1	-8.8	-36.1	-18.1	-24.0	-9.0
백합	-44.1	-28.9	-7.1	7.4	-11.5	-12.9	-5.4
호접란	-	-	-	-25.3	11.1	-5.2	-18.2

자료: KREI 추정치.

○ 이로 인해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던 화훼생산액은 1998년 정체되었고, 특히 시설화 비중이 높은 절화는 생산액 감소로 전환

그림 2-3 1990~2000년 화훼·절화 생산액 추이 및 외환위기 영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화훼재배현황』.

3.2.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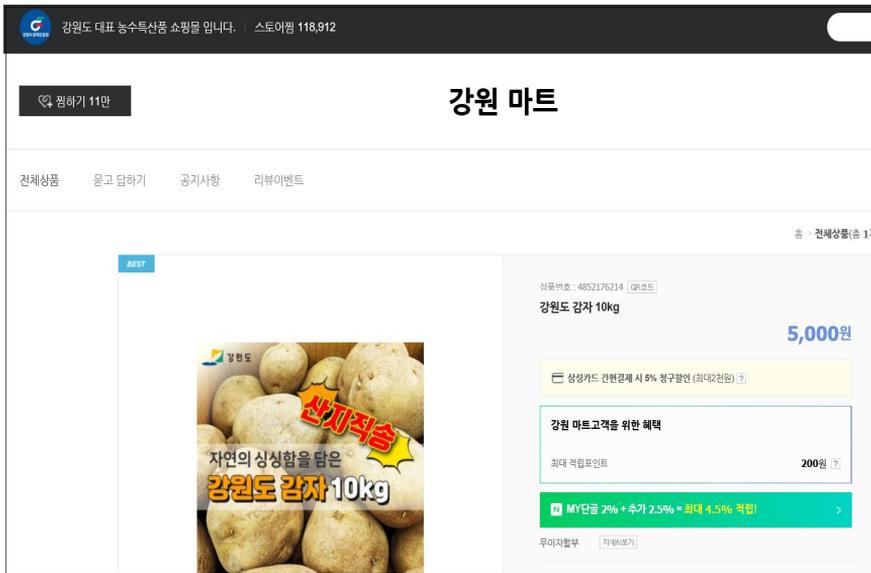
□ 방안 1: (공통) 수요 증대를 위한 ‘화(花)개 장터’ 온라인 판매망 구축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차단을 위해 화원이나 농가, 도매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 판매는 당분간 불가능한 상황

○ 가칭 ‘화(花)개 장터’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각지의 화훼를 저렴하게 인터넷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

-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배송료 지원

* 참고: 강원도의 고랭지감자 팔아주기 온라인 운동 전개로 매일 준비량 소진



자료: 네이버(www.naver.com). 검색일: 2020. 4. 14.

□ 방안 2: (공통) 1 Table 1 Flower 운동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 농식품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1테이블 1화환 운동을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각 테이블에 배치할 꽃다발을 제작할 화원을 지역별로 고루 안배하여 선정하고, 화훼 재배농가와 이들 화원이 직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
- 이 경우 농가뿐만 아니라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화원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 가능

□ 방안 3: (공통) 경조사 시 화환·조화(弔花) 보내기 적극 동참 홍보

○ 근검절약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경조사 시에 축하 화환이나 조화(弔花)를 거절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그러나 실제 화환 전달 정도로 청탁이 성립될 수도 없으며, 이해 당사자 간 이 아닌 한 일정 금액 이하의 화환·조화(弔花) 수수는 법적으로도 가능

- 경조사 시 축하 화환이나 조화(弔花) 수수는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홍보 강화 및 화환 보내기 운동 적극 전개

□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으로 화훼 산업 보호 필요

- 화훼는 '20년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성수기 소비 부진으로 감소폭 크게 확대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2월 졸업식·백린타인데이, 3월 입학식·화이트데이 등 행사 취소로 특수기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
- 거래량 감소 시 통상 도매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물량 감소에도 가격은 오히려 하락
- 더군다나 경제성장 위축 전망에 따른 화훼 수요 감소로 화훼 시장 침체의 장기화가 전망되고 화훼농가 수익성 하락 및 경영 악화로 화훼산업 붕괴 가능성 확대
- 화훼산업은 200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
-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월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화훼 수요 감소폭은 확대될 전망

표 2-13 소비심리 동향 및 지출전망

단위: %

구분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소비지출전망	110	0.9%	106	-3.6%	93	-12.3%	87	-6.5%
외식비지출전망	92	0.0%	89	-3.3%	77	-13.5%	75	-2.6%
소비자심리지수	104.2	3.7%	96.9	-7.0%	78.4	-19.1%	70.8	-9.7%

자료: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 화훼 농가의 생업 포기 등 국내 화훼산업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 필요

- 적기 지원 실패 시, 국내 화훼 생산 기반 위축 및 외국산 화훼 수입량 증가로 화훼 자급률이 큰 폭으로 축소될 우려

* 한·콜롬비아 FTA, 한·중국 FTA 협상으로 단계적 관세 인하되면 외국산 화훼 수입량 대폭 증가 예상

4. 농업인력

4.1. 현황과 영향 전망

4.1.1. 현황

□ 농업인력 집중 투입 시기와 취업자 수

- 코로나19에 따른 농업 고용·외국인력 수급에 대한 전망을 하려면, 농업노동 투입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노동투입 집중 시기에 인력 부족 문제 체감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노동투입 집중된 시기에 인력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농업생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 내국인 기준, 고용노동력은 5~6월과 9~10월에 집중적으로 투입됨.
 -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 현상이 5~6월과 9~10월에까지 진행될 경우, 지역사회 감염 등의 우려로 농번기철 내국인 고용인력 공급에 차질
 -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상황 악화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실업률 증가, 이에 따른 농업부문의 일시적 인력 유입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표 2-14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전국)

단위: 천 시간

월	노동력 원천								합계
	가족 노동		고용 노동		품앗이		자원봉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6,074.0	11,185.8	1,516.8	3,177.0	41.8	53.8	234.4	173.5	32,457.2
2	18,947.6	12,927.9	2,027.3	3,616.4	100.8	199.4	568.4	274.2	38,662.1
3	27,519.1	19,637.9	2,663.3	6,302.2	230.8	407.5	1,093.2	491.5	58,345.7
4	35,368.7	27,830.6	2,771.4	6,783.2	907.4	1,063.8	1,895.0	1,095.8	77,716.0
5	45,443.2	35,635.0	3,998.7	10,989.8	827.5	931.6	3,030.1	1,784.3	102,640.1
6	45,083.1	37,093.7	3,110.1	10,904.4	422.5	431.8	2,492.3	1,717.7	101,255.7
7	37,428.9	31,169.5	2,199.2	5,829.8	127.3	254.1	1,469.5	813.5	79,291.8
8	37,788.7	32,829.5	2,105.1	5,419.2	139.6	501.1	1,219.6	1,083.5	81,086.3
9	34,568.7	29,676.6	2,319.5	9,065.0	217.9	529.3	1,530.5	1,317.9	79,225.5
10	35,619.6	32,542.7	3,366.3	9,178.3	506.5	891.4	2,259.7	1,320.0	85,684.6
11	27,084.6	23,391.9	2,608.6	8,055.6	443.8	426.7	1,662.2	1,298.8	64,972.2
12	15,948.9	11,604.0	1,933.2	3,109.5	54.6	184.9	737.3	532.7	34,105.1
합계	376,875.1	305,525.3	30,619.6	82,430.6	4,020.6	5,875.4	18,192.3	11,903.4	835,442.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2017); 엄진영 외(2018).

□ 코로나19와 외국인력

○ 현재 합법적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서 입국함.

- 고용허가제는 매년 도입규모(Quota)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가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상용근로자 대상 제도임.
- 계절근로자제도 마찬가지로 도입규모(Quota)와 입국시기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지만, 임시근로자(3개월 또는 5개월 고용) 대상 제도임.

○ 고용허가제를 통해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입국하지만,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 주의는 필요함.

- 특히, 3월 배정인원이 1월 다음으로 많아, 코로나로 인한 인력수급 상황 및

해당 국가의 코로나 감염 상황 등을 살피는 것이 필요함.

-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주로 입국함.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로까지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미뤄지고 있어 인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

표 2-15 농업부문 제도별 외국인 근로자 주요 출신국 및 입국시기

고용허가제(2020년 기준)	
배정시기	1월(2,650명) 3월(1,590명) 6월(530명) 9월(530명)
주요 출신국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중심
계절근로자제(2019년 기준)	
배정시기	상반기, 하반기에 배정/ 지자체 상황별로 상이함.
주요 출신국가	2015년 10월~2019년 누적, 필리핀(1,652명), 베트남(1,063명), 중국인(262명), 몽골인(233명), 캄보디아인(169명) 순서임.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은 현재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2016년에 추산한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이 비율은 21.9%(E-9, 2016년)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은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 국외에서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한시적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등록 외국인 규모는 미등록 외국인 신분과 확산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것임.

- 우선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한시적 운영으로 자진 신고·출국에 따른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공급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면, 국내 체류를 지속할 가능성도 상존함.
- 국외에서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한시적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국내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전체적인 공급규모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농업총조사 활용에 따른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 계산
 - 농업총조사에 따른 품목별 내·외국인 명수는 <표 2-16>과 <표 2-17>과 같음. 농업총조사에 따른 임시고용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근로자, 상용고용은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칭함.
- 외국인 근로자 절대명수가 많은 품목은 채소·산나물(시설)품목임.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모두 해당 품목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음.
- 품목별로 비중을 계산하면, 특용·약용(시설)에서 (임시, 상용)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6 작물재배업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2015년)

단위: 명, %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고용 총합(A)	상용고용 총합 (B)	임시외국인 근로자 비 중(C/A)	상용외국인 근로자 비중 (D/B)
	내국인	외국인 (C)	내국인	외국인 (D)				
채소·산나물 (노지)	14,759	1,982	8,014	2,658	16,741	10,672	11.8	24.9
채소·산나물 (시설)	16,589	2,667	10,908	6,132	19,256	17,040	13.9	36.0
과수(노지시설)	26,684	1,672	6,319	508	28,356	6,827	5.9	7.4
특용약용(시설)	437	138	1,292	1,148	575	2,440	24.0	47.0
특용약용(노지)	7,265	825	3,766	994	8,090	4,760	10.2	20.9
원예(시설)	776	103	783	469	879	1,252	11.7	37.5
원예(노지)	1,757	81	1,591	176	1,838	1,767	4.4	10.0
기타작물(노지)	937	133	450	133	1,070	583	12.4	22.8
기타작물(시설)	998	137	941	345	1,135	1,286	12.1	26.8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2015).

- 축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축종은 돼지임. 임시근로자 수는 182명, 상용근로자는 2,550명임.
- 축종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오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47.1%, 상용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51.7%임.

표 2-17 축산업 축종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2015년 농업총조사)

단위: 명, %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고용 총합 (A)	상용고용 총합 (B)	임시외국인 근로자 비 중(C/A)	상용외국인 근로자 비중(D/B)
	내국인	외국인 (C)	내국인	외국인 (D)				
한육우	2,431	177	1,322	992	2,608	2,314	6.8	42.9
젖소암컷	118	45	464	613	163	1,077	27.6	56.9
돼지	302	182	2,235	2,550	484	4,785	37.6	53.3
육계	114	32	243	147	146	390	21.9	37.7
산란계	121	89	896	854	210	1,750	42.4	48.8
오리	9	8	57	61	17	118	47.1	51.7
기타가축	413	17	462	62	430	524	4.0	11.8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2015).

□ 최근 농업고용 동향(전년 동월 대비 2020년 1월, 2월, 3월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 전년 동월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 2, 3월 모두 증가함.
 -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농림어업 1월 취업자 수는 총 78,840명 증가, 2월 취업자 수는 총 79,520명, 3월 취업자 수는 134,181명 증가함.
-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는 증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함.
 -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급증하는 시기가 5~6월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취업자 수 증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려움.
 - 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자면 일부 인력 부족 현상을 가족노동력 투입 증가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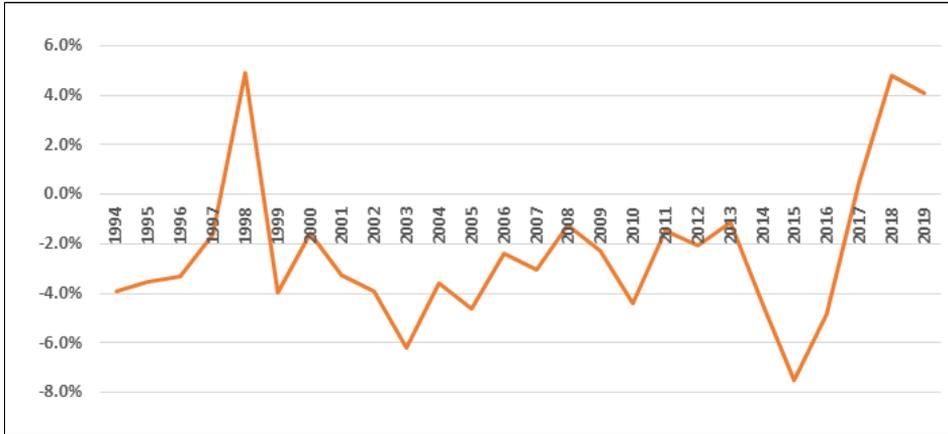
표 2-18 2020년 농림어업 전년 동월 대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계
				고용원 O	고용원 X		
1월	7,097	-2,337	-2,879	5,349	48,017	23,594	78,840
2월	6,988	-4,740	-1,639	-1,615	58,521	22,005	79,520
3월	8,350	-4,998	-2,130	4,681	66,649	61,628	134,18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2020).

- 1990년대 말 IMF사태 이후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7년 중반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17년 6월 이후 지난 달(2020년 2월)까지 3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그림 2-4 농림어업 취업자 수 연 변화율: 199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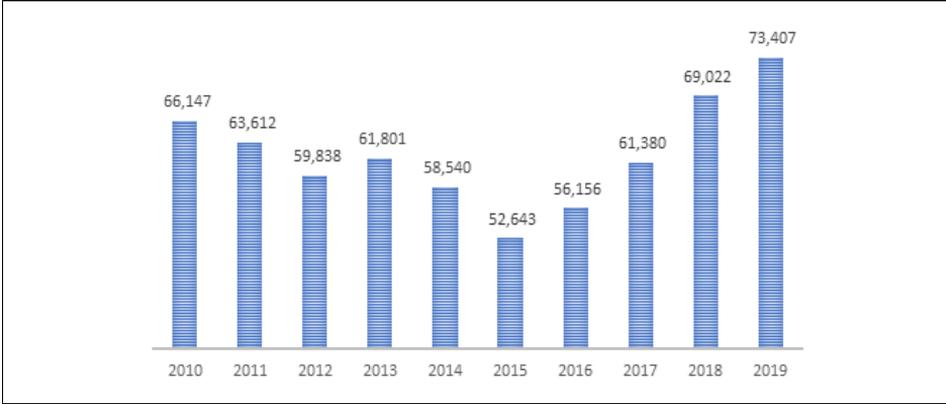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농업경영체의 규모화, 전문화 및 사업다각화에 따른 농업 고용인력의 증가와 같은 농업 인력 구조 변화와 후기 산업사회 시대에 도시 압출 및 농촌 흡입 요인*의 작용으로 인한 도시민 귀농 증가와 기존 농업인의 유출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도시의 압출(Push) 요인: 경기 침체, 고용불안, 높은 생활비용 등
 농촌의 흡입(Pull) 요인: 쾌적한 환경, 대안적 보람 있는 삶 수요 등

- 2015년 이후 농업 고용인력(상용 근로, 임시 근로) 증가: ('15) 52,643명
 → ('17) 61,380 → ('19) 73,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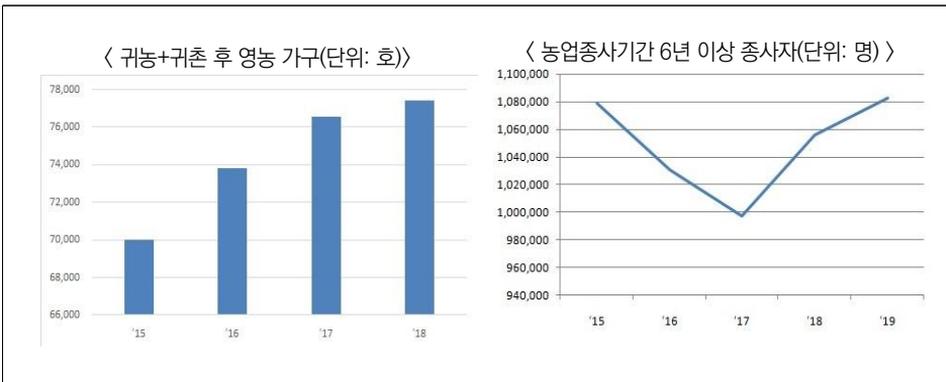
그림 2-5 농업 고용인력(상용+임시)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귀농가구 + 귀촌 후 영농창업 가구'의 수가 증가 추세: ('15) 70,007 → ('17) 76,572 → ('18) 77,399
- 농업종사기간 6년 이상자(정착자) 수가 '17년부터 증가세 전환: ('15) 1,079천 명 → ('17) 998 → ('19) 1,083

그림 2-6 귀농 및 귀촌 후 영농종사 가구 / 농업종사기간 6년 이상 종사자 변화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 통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귀농·귀촌 실태조사.

4.1.2. 영향 전망

□ 시나리오 1: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국내 상반기 종식), 국외 확산 지속

○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주춤해지고, 확산이 5~6월 이전에 멈출 경우, 3~4월의 고용 인력 수급에는 영향이 있지만, 고용 인력 수급이 가장 물리는 9~11월의 내국 고용 인력 공급은 코로나19로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¹⁰⁾

○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금융경제가 회복되는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타 산업 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의 인력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내 확산이 6월 말 이후 안정화되고, 국외 확산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모와 출국 규모(국내거주 지속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크기는 ① 고용허가제를 통해 신규로 유입되는 인력 ②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유입되는 인력 ③ 여행 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한 시적 근무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불법체류·고용)로 결정됨.

○ 국외에서 확산이 지속될 경우, 2020년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와 여행 비자 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고용)가 추가적으로 입국하지 못하거나 입국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음. 즉,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모는 감소할 것임.

- 이 경우, 고용허가제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므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배정받은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버섯 등의 농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임.

¹⁰⁾ 물론 다른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ceteris paribus)는 전제임.

- 계절근로자제의 경우, 계절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의 인력 공백으로 나타날 것임.
 -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의 인력 공백이 나타날 것임.
- 그러나 국내에서 상주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국내 체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즉,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출국 유인이 낮아짐.
- 입국 규모 감소 > 출국 규모 감소(국내 거주 지속 규모) →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농가의 인력수급에 주요한 영향, 그러나 반대로 입국 규모 감소 < 출국 규모 감소 →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규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낮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
- 농번기철 고용 인력에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합법·불법)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면, 새롭게 입국하는 규모보다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합법·불법)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번기철의 외국인력 수급 상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9 시나리오 1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 전망

구분		6월 말 이후
내국인	기존인력 공급 규모	동일(ceteris paribus)
	타 산업 부문으로부터 신규인력 공급 규모	동일 또는 약간 증가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력 규모(합법·불법)	동일(ceteris paribus)
	신규인력 공급(입국)	감소

자료: 저자 작성.

□ 시나리오 2: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지속된다면, 농업 내국인 고용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나, 증가요인도 동시에 존재하므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전망하기 어려움.

- 우선, 기존인력 공급 규모는 근로자 입장에서 이동을 꺼려하거나 이동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타 산업부문으로부터 농업부문으로의 신규인력 유입은 증가할 개연성이 있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농업부문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동을 꺼려하거나 이동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함.

○ 그러나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이 지속되어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비슷하게 실물·금융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가정하면, 농업부문으로의 타 산업부문에서의 근로자 유입 등으로 내국 고용인력 규모는 증가폭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을 꺼려하는 근로자 규모 감소폭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전망하기 어려움.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국내 체류 농업부문 외국인력(합법·불법)은 국내 체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즉,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출국 유인이 낮아져,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무부의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한시적 운영으로 자진 신고·출국에 따른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공급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함.

- 신규 외국인력 공급은 2020년에 배정된 인원과 여행 비자 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고용)가 추가적으로 입국하지 못하거나 입국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음.

표 2-20 시나리오 2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 전망

구분		국내외 확산 지속
내국인	기존인력 공급 규모	감소
	타 산업부문으로부터 신규인력 공급 규모	증가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력 규모(합법·불법)	동일(ceteris paribus) 또는 감소
	신규인력 공급(입국)	감소

자료: 저자 작성.

□ 귀농·귀촌 전망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시 압출 요인과 농촌 흡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현 사태 진정 후 귀농 증가 및 농업인의 도시 유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5년(2014~2018년) 귀농자의 귀농 이유(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19) 조사 결과를 보면 ‘자연 환경(62.6%)’, ‘도시 생활에 회의(40.0%)’, ‘본인, 가족 건강(22.0%)’, ‘비싼 도시생활비(19.1%)*’, ‘실직이나 사업 실패(11.5%)**’ 등이 도시 주요인이었음.

* 농촌지역(읍, 면)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2,862천 원으로 도시지역(동) 가구보다 576천 원 적음(83% 수준)(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 외식업체 운영기간 5년 미만 업체 비중: 34.8%(‘17년) → 38.2%(‘18년) → 44.4%(‘19년)(KREI 2019 외식업경영실태조사)

- 향후 인구 이동과 관련한 도시 압출 및 농촌 흡인 요인이 향후 더 크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 발생 현황(2020년 3월 말 현재):

전남: 22개 기초지자체 중 5개 지자체에서 확진 환자 발생(대부분 중소도시(무안, 광양, 순천, 여수 등)에서 발생, 농촌 지자체는 거의 미발생)

강원: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등 시 지역에서만 발생(군 지역에서 미발생)

표 2-21 최근 5년 귀농(2014~2018)자의 귀농 이유

귀농 이유	연령대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자연 환경	50.5%	58.2%	68.7%	77.6%	67.6%
농업 발전가능성	69.0%	62.1%	48.2%	31.0%	47.7%
도시생활에 회의	35.7%	39.7%	42.9%	38.1%	40.0%
가족 친지와 살기 위해	29.3%	28.7%	27.6%	33.4%	29.8%
본인, 가족 건강	8.9%	18.8%	20.6%	30.1%	22.0%
비싼 도시생활비	22.1%	17.0%	18.5%	20.2%	19.1%
가업 승계	31.6%	20.3%	17.1%	14.6%	18.4%
실직이나 사업실패	10.0%	12.6%	11.4%	11.4%	11.5%
자녀교육	4.6%	5.7%	0.9%	0.4%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귀농·귀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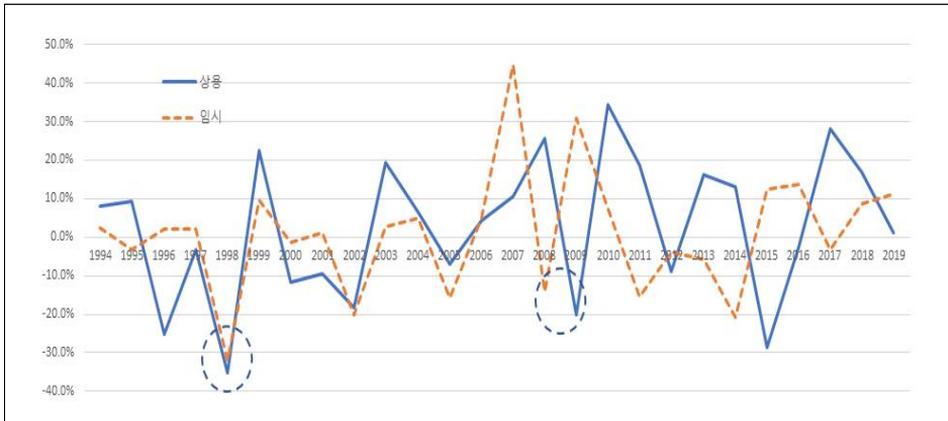
코로나 피해 강원도로 피난 행렬? 고성·삼척 리조트들 “방 없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한 달여간 100여곳의 여행사가 폐업절차에 들어가는 등 관광·여행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강원도 일부 지역의 리조트들은 주말에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성군에 위치한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지점은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매 주말마다 객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손님의 대부분은 5~10세 자녀와 고령의 부모님을 동반한 3대 가족으로 전체 투숙객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20%는 50~60대 장년층이었다. …○○리조트 설악밸리는 설악산 자락에 들어선 단독형 리조트로 전체 144개 객실이 모두 독립된 구조로 돼 있다. 모든 객실에 방이 3개씩 있고 야외 바비큐 시설을 갖췄다. 아침식사는 식당 뷔페식 대신 객실로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 일단 체크인 을 하고 나면 누구도 마주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코로나19를 피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숙박요금은 주중 20만~30만원, 주말엔 30만~40만원으로 뛰는데, 3월 주말의 경우 이미 남은 방이 별로 없는 상태다. 손님의 15% 정도는 일주일 이상 머무는 장기 숙박 손님이다. … 리조트 관계자는 “코로나 피신처를 찾는 고령의 손님들이 공기 좋은 강원도에서도 속초·강릉 같은 관광지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한적한 고성 쪽

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다”면서 “비용은 상관 없으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장기숙박이 가능하냐고 묻는 예약 문의전화가 종종 온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20. 3. 13.).

자료: 뉴데일리 경제(2020. 3. 18.); 한국일보(2020. 3. 18.).

그림 2-7 농림어업 고용인력 변화율 추이: 1994~20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1.3. 농업 고용인력 수급실태 조사 분석

○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업부문 고용인력 수급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총 800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화설문으로 실시함. 설문조사 대상 농가는 봄철(3~5월) 노동력이 필요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함.

- 설문조사 응답 농가의 품목과 지역분포는 <표 2-22>와 같음. 설문조사 응답 농가 품목은 밭작물 307농가, 과일·과채 263농가, 축산 205농가로, 총 775농가임.

표 2-22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품목과 지역분포

단위: 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밭작물	63	31	10	7	15	61	8	111	1	307
과일·과채	17	33	18	9	104	49	12	21	0	263
축산	15	38	16	26	31	20	25	24	10	205
계	95	102	44	42	150	130	45	156	11	775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세부 품목과 농가 수는 <표 2-23>와 같음.¹¹⁾

표 2-23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세부품목

단위: 명

품목	건고추	단감	돼지	마늘	배	복숭아	봄당근	봄무	봄배추	
농가수	40	30	36	52	41	40	21	33	31	
품목	봄양배추	사과	산란계	수박	양파	육계	젓소	참외	한우	호박
농가수	20	40	19	51	49	33	28	61	89	61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설문조사 문항은 3월과 4월의 고용인력 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 5월 인력 수요 시 일손 부족 발생 예상 여부, 내국인 인력 공급 경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 수요 어려움 여부, 내·외국인 근로자 지급 임금(지난 3, 4월과 올해 3, 4월)이었음(<부록 1> 참고).

11) 지역별 세부품목을 농가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통계 분석 유효 농가 수가 적어 세부품목이 아닌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품목으로 나눠 분석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

○ 전년(2019년) 동월 대비 3월과 4월에 농가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느낌. 그러나 작년 동월 대비 어렵다고 느끼는 농가 비율은 점차 증가함.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인력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 비율이 높아짐.

-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3월에 38.6%의 농가(전체 응답농가: 655농가)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4월에는 42.6%(전체 응답농가: 665농가)가 어려웠다고 응답하였음.
- 5월 일손 부족 예상과 관련하여, 응답농가(709농가)의 59.1% 농가가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음. 파종·정식기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을 구하는 것이 전년 동월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여김.

표 2-24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명(%)

	3월	4월	5월
전년 동월과 동일함	395(60.3)	374(56.2)	284(40.1)
전년 동월보다 용이함	7(1.1)	8(1.2)	6(0.8)
전년 동월보다 어려움	253(38.6)	283(42.6)	419(59.1)
응답농가 계	655(100)	665(100)	709(100)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품목별로 구분하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3월과 4월에 인력 구하는 것이 작년 동월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농가 비율과 더 어려웠다고 느끼는 농가 비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 하지만 고용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5월에 인력 구하는 것이 작년 5월과 비교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느끼는 농가 비율이 높아짐.

○ 축산 농가의 경우,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가 동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5월 달 예상에서도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축산은 연중 노동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월별 인력 수급 어려움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서 인력 수급 어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농가 비율은 낮음.

표 2-25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 명

	3월				4월				5월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밭작물	50.0	0.5	49.5	198	44.9	0.5	54.6	207	30.2	0.8	69.0	242
과일과채	53.6	1.2	45.2	252	47.4	1.6	51.0	253	20.2	0.8	79.1	263
축산	78.5	1.5	20.0	205	78.5	1.5	20.0	205	77.5	1.0	21.6	204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품목별·지역별로 구분하면, 작물재배업(밭작물, 과일·과채) 농가의 경우,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강원도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¹²⁾ 축산 농가의 경우, 경상북도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¹²⁾ 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응답 농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참고로 제주도는 응답한 농가가 1농가이므로, 해석에서는 제외하였음.

표 2-26 품목별·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 명

		3월				4월				5월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강원	①	43.2	0.0	56.8	44	41.5	0.0	58.5	53	16.9	0.0	83.1	71
	②	80.0	0.0	20.0	15	73.3	0.0	26.7	15	66.7	6.7	26.7	15
경기	①	54.7	0.0	45.3	53	45.5	0.0	54.5	55	31.0	1.7	67.2	58
	②	78.9	5.3	15.8	38	81.6	5.3	13.2	38	83.8	2.7	13.5	37
충북	①	40.7	3.7	55.6	27	40.7	3.7	55.6	27	21.4	3.6	75.0	28
	②	75.0	0.0	25.0	16	75.0	0.0	25.0	16	75.0	0.0	25.0	16
충남	①	33.3	0.0	66.7	15	13.3	6.7	80.0	15	6.3	0.0	93.8	16
	②	76.9	0.0	23.1	26	76.9	0.0	23.1	26	76.9	0.0	23.1	26
경북	①	47.2	1.9	50.9	108	40.0	0.9	59.1	110	22.8	1.8	75.4	114
	②	71.0	3.2	25.8	31	71.0	3.2	25.8	31	71.0	0.0	29.0	31
경남	①	69.7	1.3	28.9	76	64.4	2.7	32.9	73	32.3	0.0	67.7	93
	②	80.0	0.0	20.0	20	80.0	0.0	20.0	20	85.0	0.0	15.0	20
전북	①	26.3	0.0	73.7	19	26.3	0.0	73.7	19	20.0	0.0	80.0	20
	②	80.0	0.0	20.0	25	80.0	0.0	20.0	25	80.0	0.0	20.0	25
전남	①	56.1	0.0	43.9	107	52.3	0.0	47.7	107	26.9	0.0	73.1	104
	②	87.5	0.0	12.5	24	87.5	0.0	12.5	24	75.0	0.0	25.0	24
제주	①	100	0.0	0.0	1	100	0.0	0.0	1	100	0.0	0.0	1
	②	80.0	0.0	20.0	10	80.0	0.0	20.0	10	80.0	0.0	20.0	10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①: 작물재배업, ②: 축산업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내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

○ 밭작물 농가는 내국인 근로자를 주로 지역 내 농작업팀과 사설인력소개소 통해 고용하거나 동네사람을 직접 고용함. 과일·과채 농가는 지인의 소개와 사설인력소개소,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해 인력을 고용함. 축산 농가는 지인의 소개와 사설인력소개소를 이용하여 주로 고용함.

- 밭작물 농가는 지역 내 농작업팀과 사설인력소개소를 이용하여 고용하는 농가 비율이 각각 23.7%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동네사람들을 직

접 고용하는 비율이 22.4%로 나타남.

- 과일·과채 농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고용하는 비율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하는 비율은 26.4%, 지역 내 농작업팀 21.1% 순서로 나타남.
- 축산 농가는 지인의 소개 비율이 60.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한 고용이 12.7%로 나타남.

표 2-27 품목별 내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1순위, 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지인의 소개	14.2	39.4	60.6
지역 내 농작업팀	23.7	21.1	11.3
품목별 전문작업단	0.9	2.9	0.0
사설 인력소개소	23.7	26.4	12.7
농협 인력중개센터	6.9	2.4	1.4
지자체 운영 인력소개센터	0.0	0.0	4.2
동네사람 직접 고용	22.4	0.8	1.4
동네사람과 품앗이	8.2	0.8	2.8
작년 고용인력 그대로	0.0	4.9	1.4
벼룩시장 등 직접 광고	0.0	1.2	4.2
응답농가	219	246	71

주: 내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의 1순위, 2순위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3~5월 중, 인력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전년 동월 대비 어려웠다고 응답한 농가와 동일하다고 응답한 농가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를 비교하면, 차이가 나타남.

- 밭작물 농가 중, 전년 동월 대비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농가는 내국인 근로자를 사설인력소개소(33.8%)와 지역 내 농작업팀(26.5%)을 통해 주로 고용함. 전년 동월 대비 인력 구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느낀 밭작물 농가의 고용 경로는 동네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비율이 30.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지역 내 농작업팀을 통한 고용이 29.7%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음.

- 과일·과채 농가 중, 전년 동월 대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농가의 내국인 근로자 주요 고용 경로는 지인의 소개를 통한 고용(38.3%)과 사설 인력소개소(27.9%)였음. 전년 동월 대비 인력 구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느낀 농가의 인력 공급 경로는 지인의 소개(43.7%)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으로 지역 내 농작업팀(23.0%)으로 나타남.
- 축산 농가 중, 전년 동월 대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농가는 지인의 소개(43.3%), 지역 내 농작업팀(26.7%)을 통한 고용이 주를 이룸. 동일하다고 응답한 농가의 경우는 지인의 소개를 통한 고용이 73.3%로 매우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설 인력소개소를 통한 고용이 11.1%였음.

○ 동네 사람을 직접 고용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일수록 전년 동월 대비 인력 구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느꼈으며, 지역 내 농작업팀과 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농가일수록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어렵다고 느꼈음.

- 이러한 결과는 농가들 대부분은 일손을 구할 때, 일차적으로 본인 스스로 동네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본인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고용하고, 이를 통해 인력을 구하지 못할 때, 지역 내 농작업팀과 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해 인력을 고용하는 현상을 나타냄.
-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 내 농작업팀과 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한 내국인 근로자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는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표 2-28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에 따른 품목별 내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1순위, 2순위 중
복응답)

단위: %, 명

	발작물		과일·과채		축산	
	동일	어려움	동일	어려움	동일	어려움
지인의 소개	10.9	16.9	43.7	38.3	73.3	43.3
지역 내 농작업팀	29.7	26.5	23.0	22.4	0.0	26.7
품목별 전문작업단	1.0	1.5	3.0	2.5	0.0	0.0
사설 인력소개소	7.9	33.8	16.3	27.9	11.1	13.3
농협 인력중개센터	12.9	0.7	1.5	3.0	2.2	3.3
지자체 운영 인력소개센터	0.0	0.0	0.0	0.0	2.2	6.7
동네사람 직접 고용	30.7	16.2	1.5	0.5	2.2	0.0
동네사람과 품앗이	6.9	4.4	0.7	0.5	4.4	0.0
작년 고용인력 그대로	0.0	0.0	8.2	3.5	2.2	0.0
벼룩시장 등 직접 광고	0.0	0.0	2.2	1.5	2.2	6.7
응답농가	101	136	135	201	45	30

주: 내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의 1순위, 2순위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2020년 3월과 4월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비율은 발작물 35.5%, 과일·과채 41.4%, 축산 45.4%였음.

표 2-29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3월, 4월)

단위: %, 명

	발작물	과일과채	축산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35.5	41.4	45.4
전체 농가	307	263	205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2020년 3월과 4월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희망했던 농가들은 2019년 3월과 4월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농가는 발작물(57.1%)과 과일·과채(68.5%)에서 비율이 높았음. 축산 농가는

작년 3, 4월과 비교할 때, 동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였음.

- 발작물 농가 중, 작년 3, 4월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7.1%였고, 동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1%였음.
- 과일·과채 농가의 경우, 작년 3, 4월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한 농가 비율은 68.5%였고, 동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였음.
- 축산 농가는 작년 3, 4월과 동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였고, 작년 3, 4월에 비해 어려웠다고 응답한 농가는 21.5%였음.

표 2-30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어려움 정도 (3월, 4월)

단위: %, 명

	동일함	용이함	어려움	응답 농가
발작물	42.1	0.8	57.1	126
과일·과채	29.6	1.9	68.5	108
축산	76.3	2.2	21.5	93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한 농가들 대상으로 어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발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 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축산 농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발작물과 과일·과채 농가 중, 작년 3, 4월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농가들 대부분은 인력소개소에서 보내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 발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보다 기존의 비공식적 고용 경로(인력소개소 이용, 지인 소개)를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 그러나 축산 농가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 19 발생 이후 입국 지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일손 부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작물, 과일·과채 품목에서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전체 고용 외국인 근로자 대비 계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 자체가 낮고,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력소개소에 속하거나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변화에 따라 향후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표 2-31 품목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

단위: %, 명

	발작물	과일과채	축산
고용센터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2.9	3.8	65.0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7.3	5.1	0.0
인력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68.1	53.2	25.0
지역 내 농작업팀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10.1	13.9	0.0
지인(다문화가정 포함)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11.6	24.1	10.0
응답 농가	138	79	20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임금(일당) 변화

○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에 농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조사한 결과, 발작물, 과일·과채, 축산 품목에서 모두 임금을 지난해 3월과 동일하게 지급한 농가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발작물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임금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작년 3월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하였음. 그러나 지난해 3월에 비해 여성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증가한 밭작물 농가 비중은 과일·과채와 축산 품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과일·과채와 축산 품목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3월 임금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대부분의 농가가 2019년 3월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됨.

○ 2019년 4월과 2020년 4월에 농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조사한 결과, 과일·과채, 축산 농가는 임금을 지난해 4월과 동일하게 지급한 농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밭작물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작업에 필요한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밭작물 농가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보다 인력소개소, 지인 소개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고용) 고용에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즉, 밭작물에서는 인력소개소와 지인 소개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량이 전년 4월에 비해 높아, 임금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음.
- 과일·과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과 4월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의 어려움이 밭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고용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기가 밭작물에 비해 다소 늦은 것을 감안하면,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의 어려움을 아직 체감하고 있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향후 5월과 9~11월 인력 수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축산은 연중 고용노동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단기 인력 부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합법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2-32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코로나19 발생 이후(3월, 4월) 근로자 지급 임금 변화
 〈전년 동월 대비 3월〉

단위: %, 명

	발작물				과일과채				축산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내국인 남성	0.0	83.3	16.7	12	1.2	82.1	16.7	84	0.8	83.6	15.6	128
외국인남성	10.9	50.0	39.1	46	10.1	69.6	20.3	69	3.9	68.0	28.1	153
내국인 여성	0.0	51.9	48.1	27	3.1	71.9	25.0	96	1.5	67.6	30.9	68
외국인 여성	2.7	54.1	43.2	37	7.1	62.9	30.0	70	4.8	71.0	24.2	62

〈전년 동월 대비 4월〉

단위: %, 명

	발작물				과일과채				축산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내국인 남성	0.0	70.6	29.4	17	1.4	76.4	22.2	72	1.8	78.9	19.3	114
외국인남성	7.3	45.5	47.3	55	9.8	68.3	22.0	82	2.6	65.8	31.6	152
내국인 여성	0.0	54.8	45.2	31	5.7	72.6	21.7	106	1.5	69.1	29.4	68
외국인 여성	2.6	46.2	51.3	39	10.2	65.9	23.9	88	6.2	67.7	26.2	65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금융위기(2008년) 전후 농업 취업자 수 변화 추이**

○ 고용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3~5월, 9~11월 기준으로 2007년과 2011년 사이, 전년 동월 대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음.

○ 20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2009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상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증가함.

- 금융위기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실업률 증가로 인한 농업부문으로 일부 인력 유입효과로 볼 수 있음. 상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이 이를 지지함.

표 2-33 2007~2011년 전년 동월 대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상용근로자〉

단위: 명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2007	23	-1,114	3,640	2,184	7,122	6,986
2008	2,725	9,338	2,427	964	-4,247	-4,599
2009	-477	-8,878	-6,338	-3,333	1,952	1,319
2010	1,483	5,423	2,774	6,959	5,581	4,145
2011	6,042	4,341	8,027	30	-321	1,838

〈임시근로자〉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2007	2,968	5,468	6,303	12,238	22,174	3,806
2008	-1,930	-6,597	-3,817	-10,503	-19,619	588
2009	230	10,130	3,935	6,842	930	-318
2010	10,331	4,313	4,864	-1,476	2,203	778
2011	-8,202	-10,849	-5,683	-40	-990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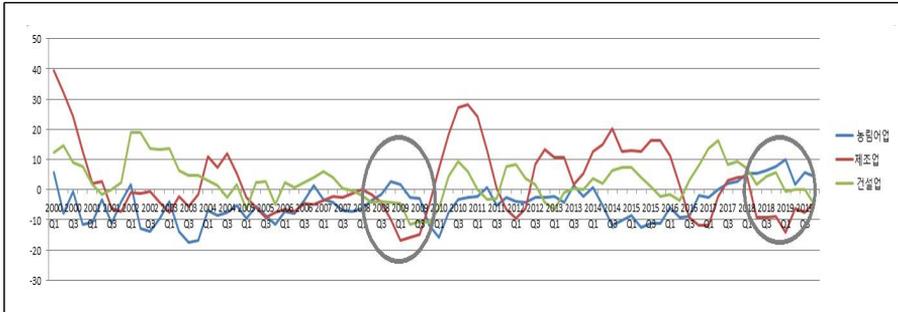
〈일용근로자〉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2007	-2,806	-6,646	-1,461	15,019	-2,681	9,594
2008	-23,019	-2,382	-3,946	-22,364	-6,059	6,542
2009	9,009	13,092	13,268	21,178	12,430	-14,560
2010	-4,354	-5,499	-14,998	-24,079	-18,465	-19,965
2011	12,721	9,058	4,859	-5,599	705	5,3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2006~2011).

- 더불어 해당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감을 비교하면, 농업부문의 일자리는 일정 부분 제조업 실업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2-8>.13)

그림 2-8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 비교(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0년 1/4분기~2019년 4/4분기).

- 코로나19가 실물·금융경제에 영향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농업 취업자 수 변화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타 부문의 실업자의 인력 유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4.2. 대응 방안

□ 방안 1: (공통) 공공 농업고용서비스(일자리 소개·알선) 강화 필요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의 전망처럼 국외 확산을 가정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신규인력 입국이 늦어지므로, 해당 농가의 인력 수급이 제 때 이루어지기 어려움.
- 기존의 공공 농업고용서비스(농산업인력중개센터, 농촌고용중개센터, 지자체별 고용중개센터 등)를 강화하여 해당 농가가 인력을 알선·소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13)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농업부문만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으로 나타냄. 더불어 제조업의 경우, 영세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감이 아니라, 제조업 전체 취업자 수 증감임.

- 아울러 내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농번기 때 타 산업부
문으로부터 농업부문으로의 인력 유입 또는 실업상태에서의 농업부문으로의
유입이 일정 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력 수요와 인력 공급 연결
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력 알선·소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방안 2: (공통) 농작업 인력 건강관리 체계 마련 필요**

- 농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문제
가 될 개연성이 높음.
- 농작업 환경은 농번기철(4~6월, 9~11월)에 일시적·대규모의 인력이 투입됨.
더불어, 일부 작업단에서는 주산지를 따라 광역 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감염자
발생 시, 지역사회 감염 우려 및 감염자가 급작스럽게 증가될 개연성이 있음.
- 하지만 현재 농작업 인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역사회 감염 관리 체계와 사
업장 위생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농번기 시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지역사회 내의 감염을 최소화하려면 입국 외국인 근로자 및 현재 농업
부문에 체류·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스템인 고용허가제(E-9)에서는 입
국 전 건강검진,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재 실시하지만, 건
강관리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계절근로자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해당 지자체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해당 농가로 이동’ 과정에 입국 후 건강검진이 없음.

- 두 제도 모두 입국 후, 교육장을 떠나 해당 농가로 이동한 후에 건강검진에 대한 체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음.

○ 입국 외국인 근로자 건강실태 관리 체계 마련 필요: 법무부 시행 고려 중인 건강진단서 첨부 방안에 적극 검토가 필요함.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 과정(‘외국인 근로자 입국-교육장-농가인도-해당 지역으로 이동’)과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 과정(‘외국인 근로자 입국-해당 지자체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해당 농가로 이동’) 전 과정에 걸쳐 해당 보건소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과 14일 이상 개별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장에서 건강 관련 교육 실시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사업장 위생 관리와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손 세정제 사용과 마스크 필수 착용을 권고하고 홍보가 필요함.

□ 방안 3: (시나리오 2) 고용 유지 및 실업 완충을 위한 지원금

○ 코로나 확산이 국내외 지속될 경우, 농업부문의 일자리는 타 부문의 실업 완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한편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농업경영체) 소득 감소로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국가 전체의 실업률을 완화하고, 농가의 농업생산유지 측면에서 농가(농업경영체)의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 검토가 필요함(참고: 고용유지지원금).

〈참고 3〉 농업 고용인력 전망

-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소비 전반의 침체로 인해 당장은 농업 고용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경기 회복과 함께 기존 고용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지난 1990년대 말 IMF사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도 농업 고용인력의 급감을 경험(2015년 메르스사태 때도 농업은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급감: 상용인력을 임시인력으로 대체). 하지만 이후 1년 이내 기존 고용 상태로 회복

5. 외식식품산업

5.1. 현황과 영향 전망

5.1.1. 식품제조업

□ 현황

○ (출하지수) 식료품제조업 출하지수는 '98년(외환위기)에 전년보다 9.2% 감소, '08년(금융위기)에 전년보다 2.5% 감소

- 출하지수 증감률(%): ('98) -9.2, ('03) -0.3, ('08) -2.5, ('09) 0.5

*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사스(중화권),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신종플루(전 세계), 2015년 메르스(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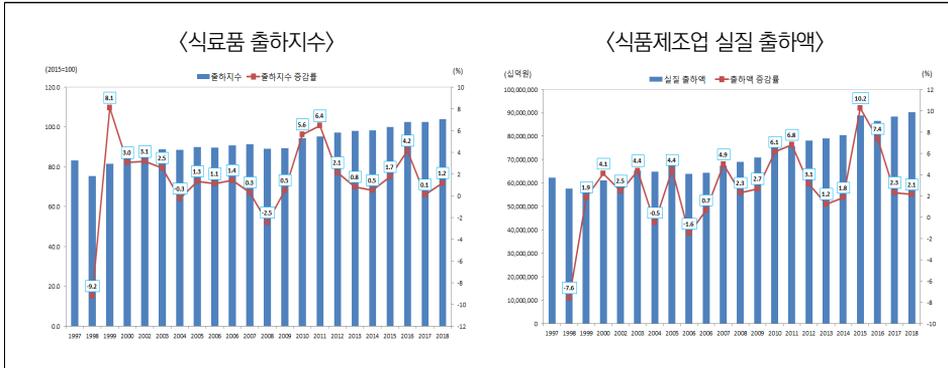
○ (출하액) 식품제조업 실질 출하액은 '98년(외환위기)에 전년보다 7.6% 감소하나, '08년(금융위기)에 전년보다 2.3% 증가

- '08년 식품제조업 명목 출하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

- 실질 출하액 증감률(%): ('98) -7.6, ('03) -0.5, ('08) 2.3, ('09) 2.7

- 명목 출하액 증감률(%): ('98) 7.6, ('03) 1.7, ('08) 14.7, ('09) 10.1

그림 2-9 식료품 출하지수와 식품 실질 출하액 추이



주: 식품제조업 실질 출하액은 식료품 출하액과 음료품 출하액을 합한 값을 음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값임.

자료: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한국은행(생산자물가지조사)

- (실질GDP) 식품제조업 실질GDP는 '98년(외환위기)에 전년보다 6.7% 감소, '08년(금융위기) 이후 '09년에 전년보다 2.5% 감소

- 실질GDP 증가율(%): ('98) -6.7, ('03) -1.5, ('08) 2.7, ('0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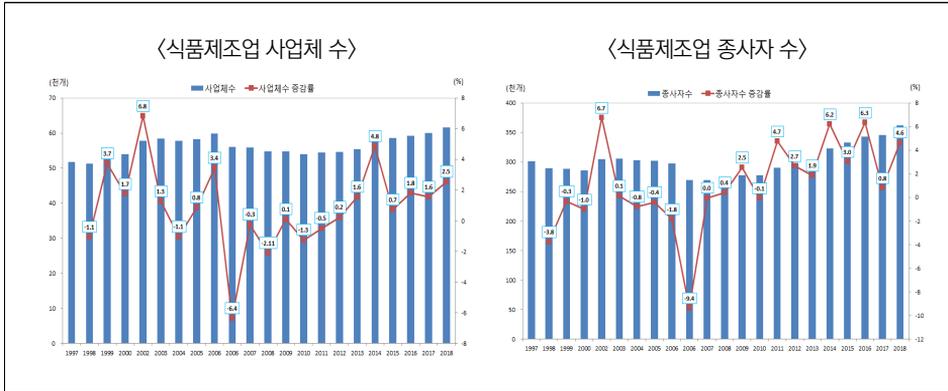
- (사업체 수)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98년(외환위기)에 전년보다 1.1%(550개) 감소, '08년(금융위기)에 전년보다 2.1%(1,178개) 감소

- 사업체 수 증감률(%): ('98) -1.1, ('03) -1.1, ('08) -2.1, ('09) 0.1

- (종사자 수)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98년(외환위기)에 전년보다 3.8% (11,345명) 감소하였으나, '08년(금융위기)에 0.4%(1,123명) 증가

- 종사자 수 증감률(%): ('98) -3.8, ('99) -0.3, ('03) -0.8, ('08) 0.4

그림 2-10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020년 1~4월 동향

○ 2020년 4월 식료품 제조업의 출하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였으나, 음료 제조업은 1.2% 감소함.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류 등 기호품인 음료는 감소하나, 가정 내 식사가 늘면서 식료품은 증가함.

표 2-34 식품 제조업 출하 및 물가 동향

구분	월	출하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출하액 전망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식료품 제조업	1월	110.5	106.8	-3.3	101.93	102.57	0.6	-2.7
	2월	103.8	108.6	4.6	101.92	102.30	0.4	5.0
	3월	105.7	107.7	1.9	101.89	102.34	0.4	2.3
	4월	107.6	110.8	3.0	102.42	102.33	-0.1	2.9
음료 제조업	1월	115.3	111.5	-3.3	103.57	105.67	2.0	-1.3
	2월	104.6	100.3	-4.1	103.57	105.60	2.0	-2.2
	3월	107.1	94.8	-11.5	103.57	105.60	2.0	-9.7
	4월	108.5	107.2	-1.2	103.93	105.60	1.6	0.4

주 1) 2015=100 기준이며, 출하지수는 계절조정지수를 활용함. 2020년 3월과 4월은 통계청 잠정치임.

2) 출하액 전망은 출하지수 증감률과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을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 3월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6.4% 증가하나, 음료 제조업의 임시일용 근로자 수는 25.7% 감소

- 300인 미만 음료 제조업에서 임시일용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3월 임시일용 근로자 수 증감률(%): 식료품 27.7% ↑, 음료 25.7% ↓

* 2~3월 비자발적 임시일용 이직자 수(명): 음료('19) 764→('20) 656, 14.1% ↓

표 2-35 식품 제조업 고용 동향

단위: 천명, %

구분	월	종사자 수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식료품 제조업	1월	266	283	6.2	246	255	3.7	18.7	26.6	42.3
	2월	266	280	5.1	249	255	2.4	16.2	23.8	47.1
	3월	269	275	2.3	250	251	0.5	17.7	22.6	27.7
음료 제조업	1월	18.7	19.8	5.6	18.1	19.2	6.1	0.59	0.53	-10.3
	2월	18.9	19.9	5.4	18.2	19.4	6.3	0.56	0.43	-23.8
	3월	18.9	20.2	6.4	18.2	19.6	7.6	0.68	0.51	-25.7

주: 종사자 수는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로 구분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영향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연장(약 2개월)됨에 따라 매장 방문 외식(학교급식) 수요는 감소하나 가정 내 식사 및 배달 외식의 증가로 식료품(가공식품) 수요 증가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시근로자의 실업률 증가로 인해 가계처분가능소득 및 경제성장률 감소는 식품제조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식료품 제조업의 출하 분석을 위한 가정〉

- 식료품 제조업 출하지수는 ARIMA 모형으로 추정
 - 1인당 실질GDP, 인구수, 소비자물가지수, 환율(수출입여건) 변수를 이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의 출하지수 모형 구축

- 분석기간: 1980~2019년

- 2020년 전망치 가정
 - (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은 국제금융협회(IIF)의 전망치(-0.8%) 적용
 - 2020 전망치 변화: (연초) 2.3% → (2020. 3. 24. 기준) -0.8%
 - (시나리오 2)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1.2%) 적용
 - 2020 전망치 변화: (연초) 2.2% → (2020. 4. 14. 기준) -1.2%
 - 인구수는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적용

- 소비자물가지수는 글로벌인사이트 전망치 106 적용
 - 환율은 1,200원/\$ 가정
 - 음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2014~2018년 연평균 증감률(0.6%)과 2015~2019년 증감률 평균값(0.6%) 가정

- 시나리오 1: 2020년 경제성장률 -0.8% 가정
 - 2020년 식품제조업 명목 출하액은 전년과 비슷한 93조 9,590억 원 전망
 - * 2020년 기초전망(2.4%) 대비 2.4%p 감소
 - 2020년 식품제조업 실질 출하액은 전년 대비 0.6% 감소 전망
 - * 2020년 기초전망(1.7%) 대비 2.3%p 감소

○ 시나리오 2: 2020년 경제성장률 -1.2% 가정

- 2020년 식품제조업 명목 출하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93조 6,890억 원 전망

* 2020년 기초전망(2.4%) 대비 2.7%p 감소

- 2020년 식품제조업 실질 출하액은 전년 대비 0.9% 감소 전망

* 2020년 기초전망(1.7%) 대비 2.6%p 감소

표 2-36 식품제조업 과거 경제위기 비교 및 시나리오 전망

단위: 십억 원, 지수(2015=100), 개, 천 명

구분	IMF		금융위기		메르스		기준 2019	기초 전망 2020	시나 리오1 2020	시나 리오2 2020
	1998	1999	2008	2009	2015	2016				
명목출하액 (%)	33,649 (7.6)	33,321 (-1.0)	55,212 (14.7)	60,771 (10.1)	88,741 (11.0)	86,611 (-2.4)	93,945 (2.1)	96,200 (2.4)	93,959 (0.0)	93,689 (-0.3)
실질출하액 (%)	57,599 (-7.6)	58,673 (1.9)	69,066 (2.3)	70,912 (2.7)	88,741 (10.2)	86,421 (-2.6)	91,609 (1.5)	93,203 (1.7)	91,032 (-0.6)	90,770 (-0.9)
식품품 출하지수 (%)	75.4 (-9.2)	81.5 (8.1)	88.9 (-2.5)	89.3 (0.5)	100.0 (1.7)	102.4 (2.4)	106.7 (2.9)	108.6 (1.8)	106.0 (-0.6)	105.7 (-0.9)
음식료품 생산자 물가지수 (%)	58.4 (16.4)	56.8 (-2.8)	79.9 (12.1)	85.7 (7.2)	100 (0.7)	100.2 (0.2)	102.6 (0.6)	103.2 (0.6)	103.2 (0.6)	103.2 (0.6)
사업체 수 (%)	51,197 (-1.1)	53,103 (3.7)	54,689 (-2.1)	54,739 (0.1)	58,529 (0.7)	59,171 (1.1)				
종사자 수 (%)	290 (-3.8)	289 (-0.3)	271 (0.4)	277 (2.5)	333 (3.0)	343 (3.2)				

주 1) 실질출하액은 음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값임.

2) 출하지수는 식품품과 음료품으로 구분되어 출하액 비중이 높은 식품품 기준임.

3) 2019년과 2020년 기초전망 전망치는 2019년 말 KREI 전망치임.

4) 2020년 음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2014~2018년 연평균 증감률(0.6%)을 적용함.

5)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6) ARIMA(0, 1, 1)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전망치이며, 2020. 4. 16. 기준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외환위기(1998년), 금융위기(2008년) 전후 식품제조업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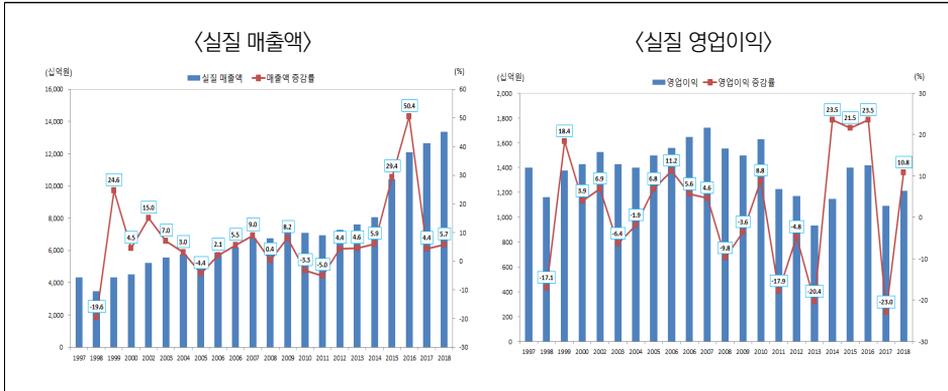
- 식품제조업은 외환위기(1998년)에 충격이 가장 컸으며 금융위기(2008년)에도 출하량 및 사업체 수 감소
-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제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한 식품제조업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5.1.2. 외식산업

□ 현황

- 외식업 평균 고객 수 코로나19사태 발생 전 대비 65.8% 감소
 - 외식업체 중 95.2%에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20. 1. 20.)이후 고객이 감소(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20)
 - * 지역별 평균 고객 감소율: 경상권(74.0%) > 충청권(72.2%) > 강원도(70.7%)
 - * 업종별 평균 고객 감소율: 한식(70.9%) > 차킨전문점(67.3%) > 일식·서양식(61.2%)
- (매출액) 음식점업 및 주점업 실질매출액은 '98년(외환위기)에 전년보다 19.6% 감소, '08년(금융위기) 이후 '10년과 '11년 전년보다 3.3%, 5.0% 감소
 - 실질매출액 증감률(%): ('98)-19.6, ('10)-3.3, ('11)-5.0
- (영업이익) 음식점업 및 주점업 영업이익은 '98년(외환위기)에 전년보다 17.3% 감소, '08년(금융위기)과 '09년에 각각 9.8%, 3.6% 감소
 - 실질매출액 증감률(%): ('98) -17.3, ('08) -9.8, ('09) -3.6
 - * 영업이익은매출액-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인건비+임차료+기타경비)]를 뺀 금액임.

그림 2-11 외식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주: 2007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으로 인해 2006년 조사치가 2개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실질GDP) 음식점업 및 주점업 실질GDP는 '98년(외환위기)에 10.9% 감소, '08년(금융위기) 이후 '09년 전년보다 1.4% 감소

- 실질GDP 증감률(%): ('98) -10.9, ('08) 1.2, ('09) -1.4

○ (사업체 수) 음식점업 및 주점업 사업체 수는 '98년(외환위기)에 전년보다 1.4%(7,496개) 감소, '08년(금융위기)에 전년보다 0.05%(268개) 감소

- 사업체 수 증감률(%): ('98) -1.4, ('08) -0.05, ('09) 0.6

○ (종사자 수) 음식점업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98년(외환위기)에 전년보다 4.6%(58,423명) 감소하였으나, '08년(금융위기)에 0.7%(10,654명) 증가

- 종사자 수 증감률(%): ('98) -4.6, ('08) 0.7, ('0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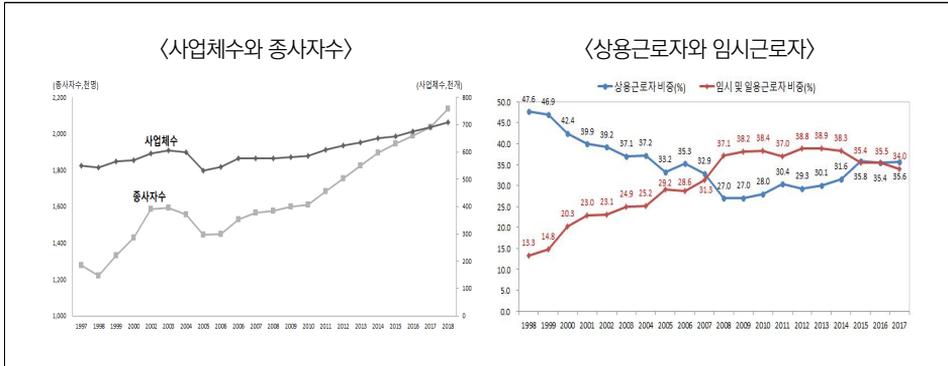
- '08년(금융위기)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

* 근로자 증감률(%): 상용근로자 ('08) -16.0, 임시근로자 ('08) 21.6

*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07) 31.3 → ('08) 37.1

* '08년 금융위기로 금융업계 실업자가 외식업으로 전환

그림 2-12 외식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주: 2007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으로 인해 2006년 조사치가 2개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4월 동향

○ 외식업 생산지수는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하나, 생산자물가지수가 1.2% 증가하여 외식업 매출은 18.8% 감소 전망

표 2-37 외식업 생산 및 물가 동향

구분	월	생산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생산(매출) 전망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증감률(%)
음식점 및 주점업	1월	97.8	98.4	0.6	109.89	112.00	1.9	2.5
	2월	96.5	82.0	-15.0	110.11	112.10	1.8	-13.5
	3월	97.1	68.9	-29.0	110.55	112.09	1.4	-28.0
	4월	97.2	78.0	-19.8	110.83	112.18	1.2	-18.8

주: 2015=100 기준임. 생산(매출) 전망은 생산지수 증감률과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을 이용하여 추정된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 외식업 카드매출(기재부) 실적은 2월 4주 전년 동기간 대비 -37.8%로 최저점 기록 후 완만한 회복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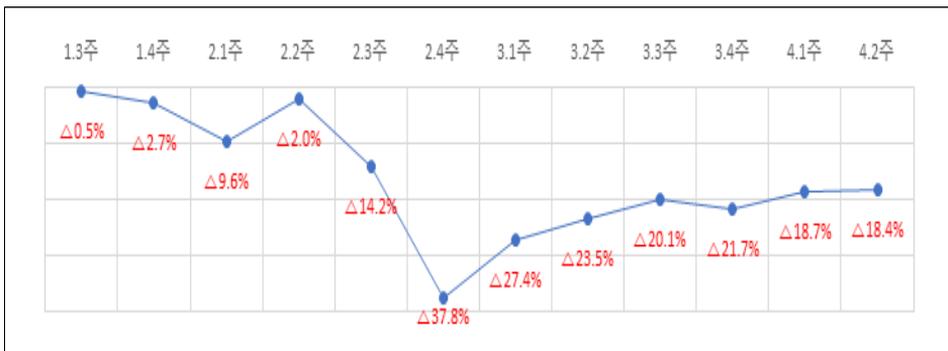
- 모임 수요가 많은 한식 육류·해산물 전문점, 일식, 서양식, 주점 업종은 매출 감소율 큼(신한카드 실적 '20. 1. 20.~4. 12. 기준).

- * 신한카드 실적: 한식 육류·해산물(-20~-27%), 외국식(-22~-40%), 주점(-24~-30%)
- 배달·포장 중심인 중식, 제과, 피자·햄버거·치킨, 커피 업종은 매출 감소율이 낮음.
- * 신한카드 실적: 제과(+3%), 피자·햄버거(-7%), 커피(-8%), 치킨(-9%), 중식(-12%)

○ 배달전문점 매출 증가, 일반매장의 배달앱 신규등록 확대에 따라 배달앱 매출 집계는 대폭 증가(+105%)

- * 신한카드(시장점유율 19.8% 1위)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5개 배달앱 기준

그림 2-13 외식업 카드매출 주간 동향(기재부)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내부자료; 전체 카드사 실적(개인+법인+외국인).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내부자료 재인용.

○ 3월 외식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

- 입직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하고, 비자발적 임시일용 이직자 수가 9.8% 증가하였기 때문임.

* 3월 입직자 수(천 명): ('19) 109.8 → ('20) 78.1, 28.8% 감소

* 3월 비자발적 임시일용 이직자 수(천 명): ('19) 49 → ('20) 54, 9.8% 증가

표 2-38 외식업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월	종사자 수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음식점 및 주점업	1월	1,164	1,181	1.5	761	769	1.1	389	402	3.1
	2월	1,158	1,111	-4.1	778	737	-5.3	367	364	-0.9
	3월	1169	1032	-11.7	777	691	-11.1	380	332	-12.7

주: 종사자 수는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로 구분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불확실성으로 3월 외식업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고, 경영 압박에도 임시 휴업 등으로 폐업도 증가

표 2-39 일반음식점 창·폐업 동향

구분	'20.1월	'20.2월	'20.3월
창업 증감률	4.9%	18.7%	-6.5%
폐업 증감률	-5.0%	14.8%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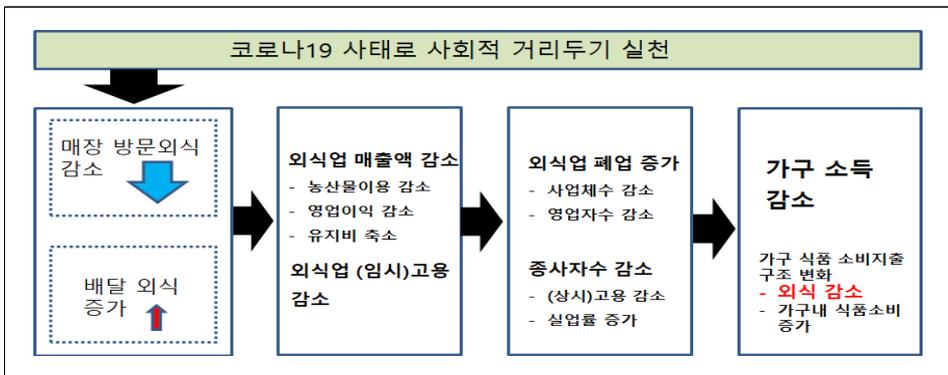
주: 부산, 울산, 경북, 제주 등 4개 지자체 미취함.

자료: 지자체 행정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내부자료 재인용.

□ 영향 전망

- 외식업 매출액 감소는 단기적으로 임시 고용 감소, 장기적으로 폐업 및 실업률 증가로 연결되어 결국 가구소득 및 농산물 수요 감소

그림 2-14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식업계 영향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 외식업 고객 수는 2~3월 발생 전 대비 65.8% 감소하나, 확진자 수 증가폭 감소로 4월 이후 조금씩 회복한다고 가정
 - 고객 수 감소가 매출액 감소로 연결된다고 가정

표 2-40 외식업 고객 수 감소율 시나리오 전망(발생 전 대비)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시나리오 1	0.0	65.8	65.8	43.9	21.9	11.0	0.0	0.0	0.0	0.0	0.0	0.0	17.4
시나리오 2	0.0	65.8	65.8	58.5	45.5	35.4	27.5	21.4	16.6	12.9	10.1	7.8	30.6

주 1) 2~3월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 모니터링 조사(5차, 2020. 3.12.) 조사치 발생 전 대비 65.8% 적용함.

2) 4월 이후 외식업 고객 수는 점차 회복한다고 가정함. 2020. 3. 25. 기준 전망임.

자료: 저자 작성.

- 시나리오 1: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국내 상반기 종식), 국외 확산 지속
 - 2~6월 5개월 동안 외식업 고객 수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예상
 - 2020년 외식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4% 감소 전망
 - * 2020년 기초전망 대비 26.7%p 감소
- 시나리오 2: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 2~12월 11개월 동안 외식업 고객 수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예상
 - 2020년 외식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6% 감소로 역대 최대치 전망
 - * 2020년 기초전망 대비 39.9%p 감소

표 2-41 외식업 과거 경제위기 비교 및 시나리오 전망

단위: 십억 원, 십억 원, 천 개, 천 명, 천 원

구분	IMF		금융위기				메르스	기초전망	시나리오1	시나리오2	
	1998	1999	2008	2009	2010	2011	2015	2020	2020	2020	
음식점업	매출액 (%)	3,477 (-19.6)	4,333 (24.6)	6,767 (0.4)	7,322 (8.2)	7,081 (-3.3)	6,954 (-5.0)	10,410 (29.4)	15,954 (9.3)	13,184 (-17.4)	11,070 (-30.6)
	영업이익 (%)	1,161 (-17.1)	1,374 (18.4)	1,552 (-9.8)	1,496 (-3.6)	1,629 (8.8)	1,228 (-17.9)	1,397 (21.5)	1,244 (1.3)	-	-
	사업체 수 (%)	543 (-1.4)	565 (4.0)	577 (-0.05)	581 (0.6)	586 (1.0)	607 (4.6)	657 (1.0)	740 (2.2)	-	-
	종사자 수 (%)	1,220 (-4.6)	1,333 (9.2)	1,578 (0.7)	1,601 (1.4)	1,609 (0.5)	1,684 (5.2)	1,945 (2.6)	2,272 (3.1)	-	-
가구외식지출 (%)	-	-	293 (-1.5)	274 (-6.6)	278 (1.4)	275 (-0.9)	280 (-2.3)	323 (2.0)	-	-	

주 1) 매출액, 영업이익은 총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값임.

2) 가구 외식지출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값임.

3) 기초전망 2020년은 2014~2018년 연평균 증감률을 2019년과 2020년에 적용하되, 실질매출액은 2014~2018년 동안 전년 대비 증감률들의 평균값(9.3%)을 적용한 추정치임. 2020. 3. 25. 기준 전망임.

4)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외환위기(1998년), 금융위기(2008년) 전후 외식식품산업 변화 추이

- 외식산업은 외환위기(1998년)에 충격이 가장 컸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지속된다면 외식업 영향은 역대 최대치 전망
 - 금융위기(2008년)로 외식산업 영업이익이 악화되었으나 금융업계 실업자가 외식업으로 일부 전환

5.1.3. 외식식품산업 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연관산업

□ 국내산 농림수산업의 공급 흐름

-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총산출(56조 6,920억 원) 가운데 외식식품산업 투입 비중은 51%임.

* 식품제조업 10조 8,780억 원(19.5%), 외식산업 17조 8,440억 원(31.5%)

표 2-42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공급 흐름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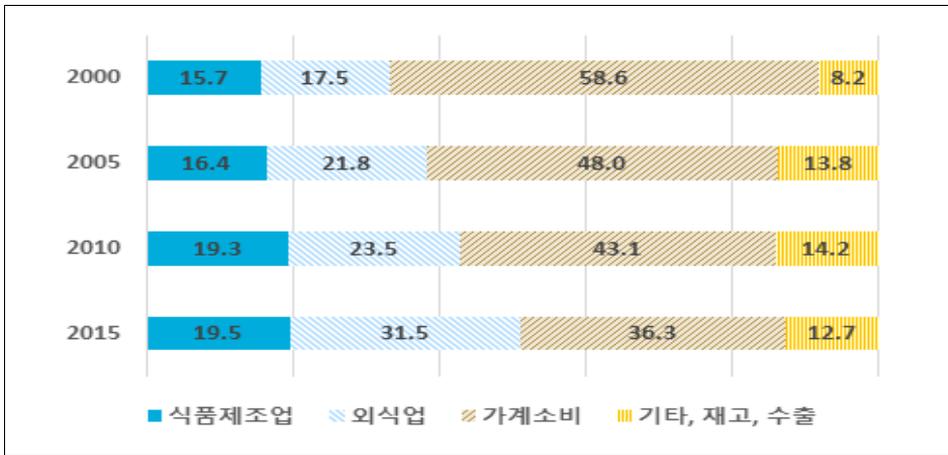
연도	외식식품산업 투입			가계소비 (D)	수출, 재고, 기타 (E)	총산출 (F=C+D+E)
	합계 (C=A+B)	식품제조업 (A)	외식업 (B)			
2010	20,881 (42.8)	9,428 (19.3)	11,452 (23.5)	21,027 (43.1)	6,924 (14.2)	48,832 (100.0)
2015	28,722 (51.0)	10,878 (19.5)	17,844 (31.5)	20,586 (36.3)	7,384 (12.7)	56,692 (100.0)

주: 본 자료는 농림수산업인 벼, 옥수수, 가금, 기타축산이 음식료품제조업인 정곡, 도축육, 가금육으로 투입되는 비중을 활용하여 벼, 옥수수, 가금, 기타축산과 정곡, 도축육, 가금육의 중간투입을 조정하여 계산.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대학교(2019: 373), 『2019년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재인용.

○ 가정 내 조리가 줄고 외식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계소비 중심이었던 농림수산물 이용구조가 외식업 중심으로 변화함.

그림 2-15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공급 흐름



주: 본 자료는 농림수산업인 벼, 옥수수, 가금, 기타축산이 음식료품제조업인 정곡, 도축육, 가금육으로 투입되는 비중을 활용하여 벼, 옥수수, 가금, 기타축산과 정곡, 도축육, 가금육의 중간투입을 조정하여 계산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대학교(2019: 377), 『2019년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재인용.

□ 식품제조업 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연관산업 영향 및 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품제조업의 출하는 증가하여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농림수산물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2-43 식품제조업의 원료별 사용량 및 구매금액

단위: 개, 천 톤, %, 십억 원

구분	추정 사례 수	조사 사례 수	사용량				구매금액		
			총량	국산	수입산	국산 비중	총액	국산	국산 비중
전체	45,117	18,641	17,151	5,382	11,769	31.4	22,326	9,301	41.7
곡류 및 곡분	4,719	1,954	6,233	487	5,746	7.8	5,173	645	12.5
두류 및 서류	2,418	954	2,314	233	2,081	10.1	2,603	413	15.9
엽근채류	2,463	945	834	822	12	98.5	514	506	98.6
양념 채소류	8,427	3,247	261	176	85	67.4	1,076	735	68.3
특용작물	1,251	478	52	23	28	45.3	574	459	80.0
과일채소류	1,441	618	340	255	86	74.8	662	308	46.5
축산물	3,313	1,335	815	619	196	75.9	3,379	2,349	69.5
유가공품	1,715	863	2,260	2,153	107	95.3	2,913	2,424	83.2
수산물	5,886	2,351	718	467	251	65.0	1,834	1,224	66.8
전분류	1,661	763	269	13	256	5.0	269	22	8.0
당류	6,767	2,921	2,512	103	2,409	4.1	1,846	99	5.4
식용유지류	2,756	1,227	374	4	370	1.1	703	13	1.9
커피류	272	133	99	0	99	0.0	531	0	0.0
코코아가공품류	395	218	24	0	24	0.0	92	0	0.0
식초류	454	179	10	6.4	3.6	64.5	6.9	4.5	65.3
기타	1,178	455	35	20	15	56.3	149	98.7	66.2

주: 기타는 115개 품목 중 8개 품목(녹차잎, 엿기름, 깻잎, 콩잎, 들깨 검정깨, 찹쌀, 가공소금)에 해당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50). 『2018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식품제조업의 원료 중 수입산 사용 비중이 68.6%로 높은 편임. 코로나19 해외 확산이 장기화되어 수입산 농림수산품의 국내 유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 국내산 원료로의 대체 등 대책 마련 필요

* 국산 사용량 20% 미만 품목도 현재 수급상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

표 2-44 식품제조업의 국산 사용량 기준 원료(품목) 구분

국산 사용량	품목	품목 갯수
90% 이상 품목	고구마, 배추, 무, 절임배추, 생강, 양파, 인삼, 홍삼, 인삼엑기스/분말, 홍삼엑기스/분말, 수박, 참외, 딸기, 사과, 배, 포도, 감귤, 감, 매실, 계란, 원유, 김(원초), 마른김	23
70~90% 미만 품목	감자, 당근, 파, 버섯, 버섯엑기스/분말, 토마토, 돼지고기, 닭고기, 닭고기엑기스/분말, 정제소금, 발효식초	11
50~70% 미만 품목	쌀, 쌀가루, 보리가루(분말), 고추, 건고추, 마늘(간마늘포함), 다진마늘, 천일염, (물)오징어, 합성식초(빙초산), 기타	11
20~50% 미만 품목	보리, 메밀, 메밀가루, 팥, 고춧가루, 마늘분말, 농축과채즙, 과일및채소퓨레, 건조야채, 야채분말, 쇠고기, 쇠고기엑기스/분말, 돼지고기엑기스/분말, 탈지분유, 연유, 유크림, 어류부산물(아가미알 내장 등), 과당류, 전분당	19
20% 미만 품목	옥수수, 소맥(밀), 옥수수가루(분말), 소맥분(밀가루), 대두, 땅콩, 타피오카, 팥앙금, 주정, 고추양념(다대기), 참깨, 복숭아, 전지분유, 버터, 유장, 치즈, 명태(동태 황태 포함), 어육살,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옥수수전분, 기타전분, 변성전분(덱스티린), 원당,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류, 올리고당류, 물엿, 대두유, 팜유, 옥배유, 채종유, 미강유, 해바라기유, 참기름, 들기름, 커피원두, 볶음커피, 인스턴트커피, 코코아원두,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44

주: 국산 사용량 기준 품목 구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51). 『2018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외식업 침체에 따른 농축산물 연관산업 영향 및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이 침체됨에 따라 외식업계 이용비중이 높은 품목 및 식재료 공급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 외식업의 식재료 구매액은 육류 및 축산물, 곡물 및 곡물가공품, 장류 및 가공식품, 채소, 과일 순서임.

* 배달 및 테이크아웃 중심 품목인 닭고기, 밀가루 영향은 양호하나, 단체급식 및 외식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 채소는 피해 전망

○ 한편, 해외 코로나 확산 지속 및 환율 상승은 농축산물 수입 감소로 이어져 국내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대책이 필요함.

* 중국산 김치 생산 및 수입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여 국산 김치와의 가격 차이가 1/3에서 1/2 수준으로 감소(중국산 김치 가격(원/10kg): ('19년) 9,000→('20년) 15,000)

표 2-45 외식업 품목별 식재료 구매행태 및 영향 전망

단위: kg, 만 원, %

부류	품목	월평균 구매량	월평균 구매금액	국내산 사용 비중	영향 전망
육류 및 축산물	쇠고기	71.1	149.0	39.6	(△) 가정소비 대체
	돼지고기	158.1	143.2	77.3	(-) 외식소비 감소
	닭고기	216.1	105.3	86.2	(+) 배달 증가
	달걀	26.8	10.2	-	(△) 가정소비 대체
	소계	472.1	407.7	-	
수산물	오징어	33.6	40.1	-	
	멸치	19.2	19.6	-	
	소계	52.8	59.7	-	
곡물 및 곡물 가공품	쌀	146.6	57.1	98.6	(△) 가정소비 대체
	밀가루	112.1	38.3	-	(+) 가정/배달 증가
	소계	258.7	95.4	-	
채소	마늘	28.7	8.4	77.3	(-) 외식소비 감소
	양파	53.6	7.8	95.6	(-) 외식소비 감소
	파(대파)	34.6	10.5	98.7	(-) 외식소비 감소
	고추	19.1	19.0	94.7	(-) 외식소비 감소
	무	65.0	8.1	97.1	(-) 외식소비 감소
	배추	48.6	7.9	97.1	(-) 외식소비 감소
	당근	21.0	8.3	92.5	(-) 외식소비 감소
	감자	34.4	5.3	97.1	(-) 외식소비 감소
	소계	305.0	75.3	-	
과일	사과	86.4	13.3	-	(△) 가정소비 대체
	배	72.1	25.9	-	(△) 가정소비 대체
	소계	158.5	39.2	-	
장류 및 가공식품	고추장	19.1	5.2	-	
	된장	19.9	3.9	-	
	간장	18.2	8.7	-	
	김치	73.8	24.5	43.0	(-) 외식소비 감소
	고춧가루	18.0	46.1	59.2	(-) 외식소비 감소
	소계	149.0	88.4	-	
전체	1396.1	765.7	-		

주: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은 외식업체별 국내산 식재료의 구매량을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2019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보고서』.

5.2. 대응 방안

○ 정부가 중소기업인을 위한 1%대 정부 보증 대출상품을 확대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취약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효과 체감도 낮아 외식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 요구

- 2020년 2~3월 매출 급감으로 인한 국세납부, 임대료, 인건비 지급, 공과금 체납, 대출이자 및 보험료, 운영비 조달 한계 발생

□ 방안 1: (공통) 외식업체 등 소상공인 세금 및 각종 수수료 이용료 감면

○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추진

*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또는 유예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현실적 현금지원 효과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다수 의견

○ 특별재난지역 외 자영업소 전기·상하수도료 한시적 감면

○ 내수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가맹점 결제수수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서비스 앱 수수료 인하

□ 방안 2: (공통) 외식업체 등 소상공인 고용인력 고용유지대책 지원

○ 외식업체 도산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

○ 코로나19가 유지된 한시적 기간 동안(3~4월 등 2개월)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을 추진

- 인건비의 일정 부분(30~50% 정률, 혹은 정액 규모)을 지원하여 고용유지를 계획하도록 유도

* 고용유지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경영안정지원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일자리 알선을 위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비 지원

□ **방안 3: (공통) 외식업체 등 소상공인 실질적 현금 및 물적 지원 확대**

○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위생(조리용)마스크, 손 소독제 정부 지원

○ 소비 및 구매 환경변화로 일반음식점 포장용기 보급 및 배달료 지원

○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 매출 감소, 휴·폐업 등에 대한 한시적 자영업 기본소득 지급, 휴·폐업자 지원 확대

-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하여 임대료(혹은 50%)를 직접 지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건의사항>

- 자영업 기본소득: 연매출 기준 차등 지급(대상: 연매출 5억 원 이하 업소)

- 휴업: 임차료 지원(50% 이내)/지자체별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 확대·금액 상향

- 폐업: 폐업지원금 상향 및 업종전환·직업훈련 지원 프로세스 확대 등

○ 피해점포 지원 대책 중 확진자 경유 점포 300만 원, 폐업 점포 200만 원, 장기 휴업 점포 100만 원 지원 등이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지원 확대 필요

○ (시나리오 2)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 기본수당 지급

<한국외식업중앙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경유 점포: 일 100만 원×휴업 일수 - 폐업 점포: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 장기휴업 점포: 주 50만 원×휴업 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19년) 매출 일정액 (예: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소에 재난 수당 지급 ⇨ 예: 50만 원×3개월
--	--

□ 방안 4: (공통) 내수 침체 심화 예방 위한 기한부 바우처 및 소득공제

○ 최소 상반기 경제성장률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기한부 바우처 발행

- 농산물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선조치
- 기간 한정 농산물 구입 바우처 지급
- 지자체별 경영환경개선 지원 확대·금액 상향을 통한 농산물 유통 및 소비 진작

○ 근로자연말정산 소득공제(도서구입·공연비, 전통시장 소비) 또는 세액공제에 외식비 소비지출 항목 확대

□ 방안 5: (공통) 외식업 침체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품목에 대한 판촉 지원

○ 외식 및 단체급식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 채소 등 판촉 지원

○ 수입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등 국산 농축산물 이용 확대의 기회로 삼아 소비확대방안 마련

- 해외 코로나 확산 지속 및 환율 상승으로 농축산물 수입 감소 예상

6. 농식품 유통

6.1. 현황과 영향 전망

- 소비자들의 온라인주문 구매 확대, 가공품, 반가공품, 신선 식재료 등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언택트 구매 확대 및 온라인 주문 배달서비스 활황
-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대형마트보다 근거리 중소형마트, 편의점 이용 확대
- 산지 유통시설(APC, RPC 등) 및 가공시설의 온라인주문판매 확대(B2B, B2C)
- 농산물거래방식의 온라인화, 상물분리거래 확대, 도매시장 및 산지공판장의 경매·입찰·정가수의매매의 비현물 이미지 가격결정 및 상물분리 거래와 물류 확대
- 코로나 사태로 농산물유통에서 언택트 주문 및 거래, 정보(데이터), 물류, 맞춤형, 다양화의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

6.2. 대응 방안

□ 농식품 유통혁신방향

- 농식품 유통은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상물일치 거래와 물류, 도매시장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유통방식 다양화, 상물분리 거래와 물류, 거래시장의 전국화, 정보(데이터)와 맞춤형 중심 거래로 전환

- 거래방식은 오프라인 경매입찰 중심에서 온라인거래, 첨단 이미지거래(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로 다양화 추진
- 도매시장은 거래의 장소로서 기능보다 물류의 거점 기능이 증시되는 방향으로 물류시설 대폭 강화, 현대화 추진
- 산지 유통주체와 도매시장 및 소매기구 간의 다양한 온라인 거래방식 시스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 추진
- 산지유통주체(생산자조직 등), 산지유통시설은 소비자, 소매기구, 도매기구 등 다양한 구매자 주문 맞춤형 상품화시설로 전환

□ 유통혁신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 B2C 및 B2B 거래 확대, 수작업 인력의 기계 대체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시설, 장비) 및 온라인 비대면거래 시스템 구축 지원
 - 선별포장 및 소포장 자동화 시설, 예냉시설, 저온시설 등 저장시설, 기계 장비 지원으로 온라인거래 적합 상품 선별포장, 맞춤형 포장, 선별포장 자동화에 따른 인력 대체
 - 산지유통주체의 B2C, B2B 온라인 비대면거래 시스템 구축 지원(산지유통 주체의 특성별 맞춤형 시스템 R&D 및 보급)
- 산지 유통주체(생산자조직)와 도매시장 및 소매기구 간의 다양한 온라인 거래 방식 시스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 추진

- 상물분리거래를 지원할 첨단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 운송차량, 팻릿, 운송용기(CP, 컨테이너박스), 저장시설 등 물류장비, 운송 기기의 전자태그, 센서 부착 활용으로 4차산업혁명기술 접목 활용
 - 신선농식품 전용 운송차량 확대 공급, 콜드체인화

- 전국 도매시장시설의 현대화사업 집중 추진
 - 도매시장의 소비지 물류거점시설로 육성
 - 물류 중심의 시설현대화 추진

7. 식품소비

7.1. 현황과 영향 전망

7.1.1. 현황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조사 응답자의 90.8%가 외출을 자제하여 발생 전 대비 외식 횟수 감소, 가정 내 식사 증가
 - 가정 내 식사는 HMR 구매, 직접 조리, 배달/테이크아웃 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증가
 - *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서 HMR 구매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6.5%, 56.5%
 - * 배달/테이크아웃 횟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 44.9%
 - * 가정 내 식사 빈도가 증가한 비율 47.7%

-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 이용 횟수 감소,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입비중 증가
 - 소비자조사 응답자의 76.0%가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 방문 구입 횟수를 줄임.
 - *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장소는 대형할인점에서 주거지 인근의 소매 유통업체로 변경
 -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입비중 53.9%로 이전 대비 19.5%p 증가

- 1회 평균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액은 2019년 59,792원 수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62,281원으로 증가함.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1회 구입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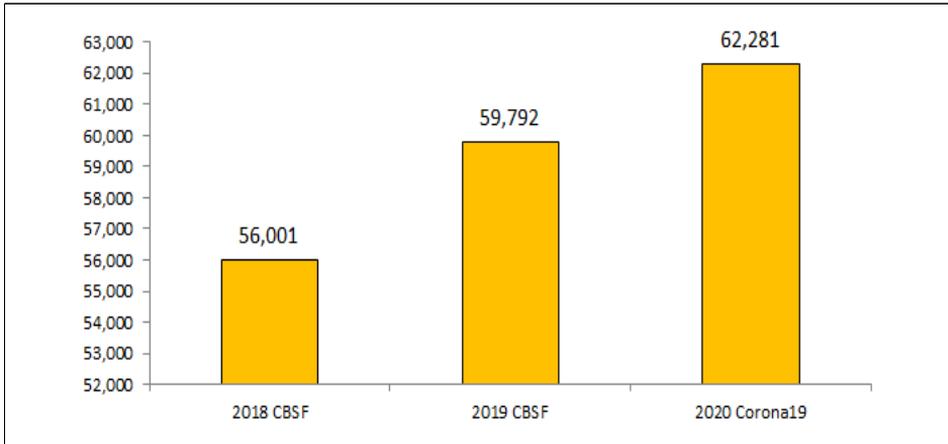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와 식료품 등의 수급 불안을 겪게 되면서 농

식품의 국내 생산 등 식량안보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성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보임.

- 전체 응답자의 84.2%가 식료품 국내 생산의 중요성에 공감

그림 2-17 1회 평균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액 변화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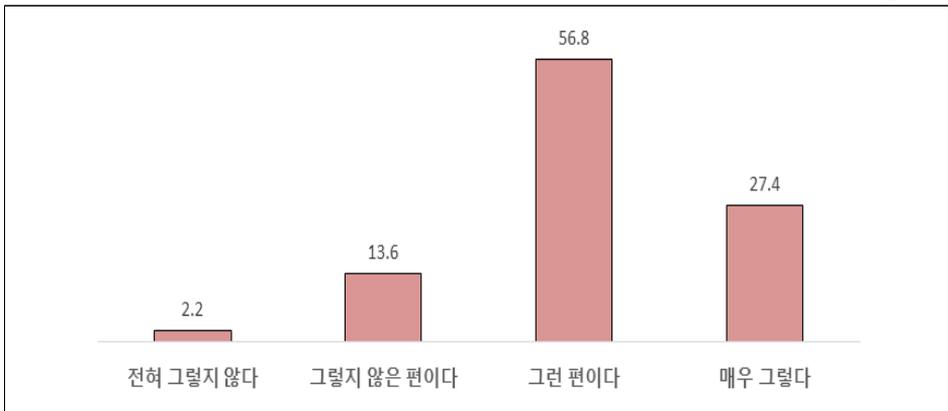
주 1) 2018, 2019 CBSF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값을 의미함.

2) 가격 수준 불변 가정.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온라인조사 (3.11.~3.16.).

그림 2-18 코로나19 이후 농식품의 국내 생산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온라인조사(3. 11.~3. 16.).

7.1.2. 영향 전망

□ 시나리오 1: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국내 상반기 종식), 국외 확산 지속

○ 메르스와 신종플루 발생 때와 비교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아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나,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 시 회복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외 확산이 지속될 때 중장기적 경기불안감이 증폭되어 소비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 소비 촉진과 식료품조달업체 판로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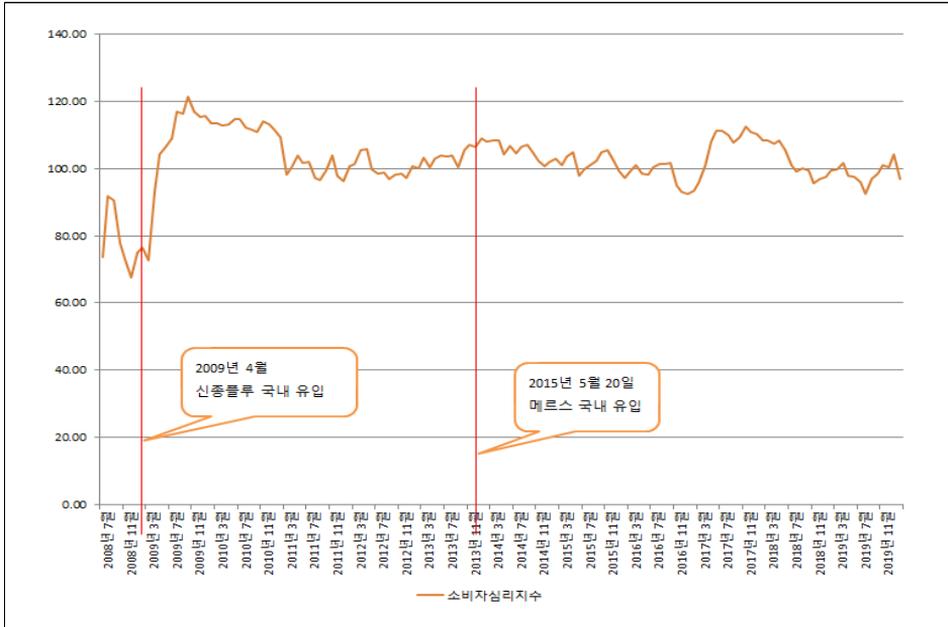
* 초중고 개학 연기로 경영이 어려운 친환경 농가를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판로 확보 지원

*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 새로운 유통채널 경험에 따른 소매유통구조 개편, 개별 식품류 매출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채널 전이 현상 가속화, 가공식품·HMR제품·건강기능식품 매출 증가, 창고형 대형매장과 근린 소매유통채널의 매출이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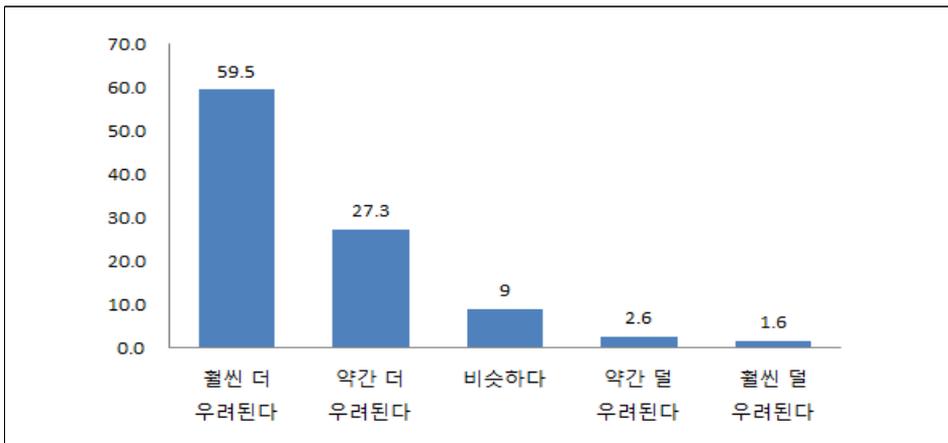
그림 2-19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지표와의 상관성 및 선행성이 우수한 6개 주요구성지수(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를 합성한 지수.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그림 2-20 코로나19와 메르스/신종플루 우려 정도 비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온라인조사.

□ 시나리오 2: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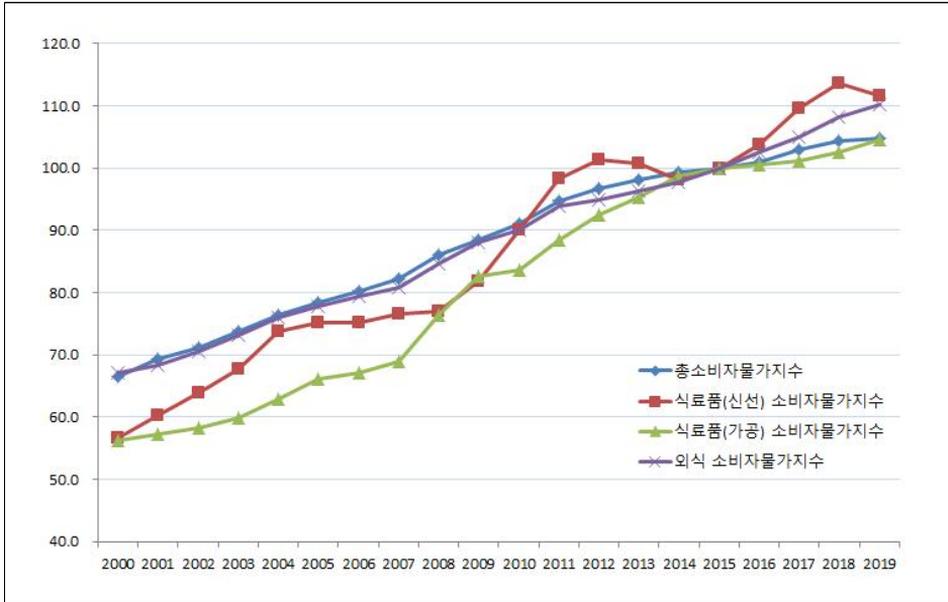
- 국외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해외 제조공장 셧다운, 수출입 차질 등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소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커져
 - 전 세계적 재정지원 확대, 정책금융 총공급 확대, 소비활성화정책 확대가 지속될 전망

- 농식품 품목별로 가격변동이 증가되어 농식품 수요 예측이 더 어려워질 전망
 - 국내외 판로가 막힌 농식품의 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가격 상승 등 품목별로 가격 변동폭과 방향 차이가 커져 농식품 소비 수준도 이에 따라 크게 변화될 전망

- 소비자 대면거래 방식의 사업/산업 불황 전망

- 오프라인 대형유통채널 구조조정, 외식/급식유통업체의 경영난에 따른 해당 산업 내 고용불안 증가 전망

그림 2-21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각 연도).

□ 금융위기(2008년) 전후 소비자물가 변화 추이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8년 0.5%, '09년 6.4% 상승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연간상승률(%): (평년) 3.7, ('08) 0.5, ('09) 6.4
-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8년 10.6%, '09년 8.3%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은 평년 대비 각각 7.1%p, 4.8%p 높은 수준
 -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연간상승률(%): (평년) 3.5, ('08) 10.6, ('09) 8.3
- 외식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8년 4.8%, '09년 3.8% 상승
 - 외식 소비자물가지수 연간상승률(%): (평년) 2.8, ('08) 4.8, ('09) 3.8

7.2. 대응 방안

□ 방안 1: 농업 관련 기관-지자체-민간업체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판촉을 통한 소비 활성화 추진

- 판로가 부족한 농가, 식료품 납품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농업 관련 기관-지자체-민간업체 연계를 통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
 - 서울시가 4개 지자체(제주, 전북 장수, 전남 장성/진도 등), 롯데백화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상생상회 팝업 기획 판매전이 대표적인 예

□ 방안 2: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 국가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의한 손해보장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에 포함하여 수요처를 잃은 농가와 식료품 납품업체 등이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 확대

□ 방안 3: 학교 개학이 연기되어 발생하는 잉여 학교 급식 식재료 및 공공급식 식재료 활용 확대

- 학교 식재료로 조달되었던 친환경 농산물을 가정에 배달·제공하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무상 공공급식 이용자들에게도 도시락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대

□ 방안 4: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채널 전이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온라인 식료품 판매·유통관리 필요

-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입의 소비자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하락,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식품안전이나 판매가격 등 온라인 식료품 판매·유통관리 필요

□ 방안 5: 식료품의 가격변동이 증가되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지원책 마련 필요

○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소득과 식품 접근 수준(food accessibility) 변화를 파악하여, 농식품 지원을 통해 충분한 식품섭취를 보장하고, 농식품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참고 4〉 취약계층의 식품접근 수준 변화 및 전망

□ 현황

○ 이계임 외(2017)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량이 부족해 소득에 의한 영양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전체 영양소 중 절반 정도가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 추정량의 81.4%, 최저생계비 이하 중 비수급자도 83.3%에 불과

표 2-46 취약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구분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수급자	비수급자		
영양섭취부족자	8.2	15.5	11.6	10.0	6.9

주: 영양섭취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면서, 주요 영양소인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래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을임.

자료: 이계임 외(2017) 수정 인용.

- 소득 수준과 영양섭취부족자 비중은 뚜렷하게 연관성을 보임.
 - 최저생계비 수급자, 비수급자, 최저생계비는 초과하지만,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그룹, 중위소득 50% 초과로 볼 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을 때 영양섭취부족자 비중이 가장 높아 15.5%임.

-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한 달 평균 식료품 구입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436,377원 수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502,069원으로 65,692원 증가했으나,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 356,122원 수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369,796원으로 13,674원 증가에 그침.
 -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식품 지출액 상승폭은 중위소득 50% 이상가구의 21% 수준

표 2-47 코로나19 발생 이전/이후의 한 달 평균 전체 식품 구입비

단위: 원

	코로나19 발생 이전	코로나19발생이후
중위소득 50% 미만	356,122	369,796
중위소득 50% 이상	436,377	502,069

주 1)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237만 원임(보건복지부).

2) 1인 가구 제외한 평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온라인조사.

-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경우 전체 식품소비 지출액이 '약간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8%, '변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5%로 나타남.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경우 '변화없다'는 비율 44.9%, '약간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49%로 나타남.
 - 외출자제와 불안 심리증가로 인해 가구의 식품 구입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 발생

표 2-48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 식품소비 지출액 변화

단위: 명, %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함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전체
중위소득 50% 미만	2 4.08%	12 24.49%	22 44.9%	11 22.45%	2 4.08%	49 100%
중위소득 50% 이상	20 2.85%	129 18.4%	184 26.25%	272 38.8%	96 13.69%	701 100%

주: 1인 가구 제외한 평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온라인조사.

○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상시보다 소비를 크게 줄인 식료품 1순위로 가장 많이 나타난 품목은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경우 수산물(23.05%), 음료(11.99%), 가공식품(11.29%),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경우 수산물(19.86%), 육류(12.77%), 채소/과일(11.35%)로 나타남.

표 2-49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상시보다 소비를 크게 줄인 식료품

단위: 명, %

품목 구분	쌀/곡물	채소/ 과일	반찬류	과일	견과류	육류	유제품
중위소득 50% 미만	6 4.26	16 11.35	10 7.09	6 4.26	9 6.38	18 12.77	4 2.84
중위소득 50% 이상	20 2.33	50 5.82	55 6.4	30 3.49	60 6.98	79 9.2	42 4.89
품목 구분	계란류	가공식품 (HMR외)	HMR	수산물	김치	음료	건강기능 식품
중위소득 50% 미만	5 3.55	12 8.51	11 7.8	28 19.86	0 0	15 10.64	1 0.71
중위소득 50% 이상	11 1.28	97 11.29	83 9.66	198 23.05	19 2.21	103 11.99	12 1.4

주: 1순위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온라인조사.

○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 외식횟수를 감소시키는 대신 배달·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대체적 식품소비행태 역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경우 발생 정도가 낮게 나타남.

표 2-50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소비행태 변화

	배달·테이크아웃을 통한 식사가 늘어남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가 증가함
중위소득 50% 미만	1.47	1.78
중위소득 50% 이상	1.71	2.0

주: 변함없다 = 1점, 그런 편이다 = 2점, 매우 그렇다 = 3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온라인조사.

□ 영향 전망

- 국내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가라앉지 않아 불안한 경제상황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소득과 식품 접근(food accessibility) 수준이 감소할 우려가 큼.
- 가정 내 식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 구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식료품 구매 지출액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충분한 식료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를 크게 줄인 식료품 1순위로 수산물, 육류, 채소/과일과 같이 필수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을 꼽음. 경제 불황이 발생·지속될 경우 취약계층의 식단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불균형한 식품섭취로 인하여 건강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8. 농식품 교역 분야

8.1. 현황과 영향 전망

8.1.1. 현황

□ 농식품 수입 동향¹⁴⁾

○ 농식품의 2020년 1~4월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113억 7천만 달러임.

- 가공식품 수입은 3월까지의 증가세로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 3월에 잠시 증가한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입은 4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함.

표 2-51 농식품 부류별 월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2월					3월					4월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가공식품	1,492	1,585	1,631	9.3	2.9	818	856	902	10.3	5.4	781	888	860	10.1	-3.2
곡류	1,035	1,079	1,169	13.0	8.4	544	567	561	3.3	-1.1	524	635	598	14.2	-5.9
과일 채소	416	454	438	5.3	-3.6	327	308	321	-1.8	4.3	353	407	325	-7.9	-20.0
임산물	1,099	1,195	916	-16.6	-23.3	590	604	514	-12.9	-14.9	606	628	548	-9.6	-12.7
축산물	1,110	1,403	1,346	21.2	-4.1	551	603	619	12.4	2.7	531	697	623	17.3	-10.6
총합계	5,183	5,717	5,499	6.1	-3.8	2,856	2,938	2,917	2.1	-0.7	2,784	3,254	2,954	6.1	-9.2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 신선농산물 중에서 닭고기와 당근의 1~4월 수입량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추정.

¹⁴⁾ 농식품 수입·수출 동향의 품목별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참고 5>에 정리.

○ 가공식품 중에서 맥주와 김치의 1~4월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맥주의 1~4월별 수입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맥주 소비 감소와 중국發 해상 물류 차질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8.9%, 3.8%, 42.2%와 25.2% 감소함.
-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김치의 1~4월별 수입량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9%, 10.7%, 22.9%와 23.2% 감소함.

표 2-52 농식품 주요 품목 월별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1~2월					3월					4월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닭고기	17	24	21	23.2	-9.9	10	13	11	12.4	-11.6	10	13	10	6.2	-20.9
타피오카	49	27	31	-37.4	14.2	20	18	17	-16.9	-5.3	27	23	33	23.9	41.6
당근	13	15	16	21.2	2.5	11	14	10	-13.8	-29.1	9	9	8	-17.7	-15.0
맥주	45	57	43	-4.8	-25.0	23	37	21	-7.6	-42.2	23	29	22	-7.2	-25.2
김치	41	49	45	9.4	-7.9	25	26	20	-17.3	-22.9	21	25	19	-6.8	-23.2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 농식품 수출 동향

- 2020년 1~4월 누적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3억 8천만 달러
 - 가공식품의 경우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했지만, 1~2월 누적과 4월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신선농산물은 2월까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3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됨.

표 2-53 우리나라 농식품 부류별 월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2월					3월					4월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가공식품	905	969	964	6.5	-0.6	536	533	630	17.6	18.1	520	578	579	11.3	0.3
신선농산물	86	98	106	22.8	8.3	46	49	46	-0.4	-7.5	38	67	53	41.9	-20.0
총합계	995	1,067	1,070	7.5	0.3	583	583	676	15.8	15.9	557	644	633	13.6	-1.8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 신선농산물 중에서 파프리카, 딸기와 배추 수출량은 1~4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프리카의 1~4월별 수출량은 겨울철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일본 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8%, 21.1%, 33.0%와 20.5% 감소함.
- 주로 ASEAN과 홍콩으로 수출하는 딸기의 1~4월별 수출량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항공기의 제한적 운항과 운송비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7.0%, 10.1%, 11.7%와 17.8% 감소함. 특히 2월 對홍콩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4% 감소했고, 2~4월 對싱가포르 수출량은 각각 8.3%, 17.3%와 13.7% 감소함.

* 딸기는 주로 12월~익년 4월에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됨.

○ 가공식품은 주요국 외식·외출 제한으로 인한 대체수요가 증가하여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에서 라면, 기타 소스제품, 기타 베이커리제품, 김치 등의 수출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가공식품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했음. 반면, 주류(맥주, 소주)의 1~3월별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함.

표 2-54 우리나라 농식품 품목별 월별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1~2월					3월					4월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파프리카	3.3	3.9	3.3	-0.0	-16.5	2.6	2.8	1.9	-26.3	-33.0	3.5	4.0	3.2	-8.1	-20.5
딸기	1.7	2.2	1.8	7.0	-19.2	1.0	1.1	1.0	-3.7	-11.7	0.7	0.9	0.7	-2.8	-17.8
라면	14.6	18.4	23.6	61.9	28.2	8.8	11.5	15.7	78.8	36.8	8.1	12.1	18.5	128.8	53.7
김치	4.0	4.7	5.3	30.4	11.3	2.3	2.5	3.2	41.4	30.0	2.1	2.6	4.2	97.7	58.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 해외동향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식료품 구입량 증가현상(사재기)이 발생했지만, 공급망(Supply Chain) 불안정으로 인한 농식품 공급 감소로 소비자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은 물류단계별 노동력 공급의 장애를 유발하여, 농산물 수확, 유통 및 파종/식재에 부정적 영향

표 2-55 주요 수출시장 식품 수급 및 투입재 동향

구분	수급	생산 투입재
전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O 유제품가격지수는 1월 대비 2월 4.6% 상승 FAO 설탕가격지수는 1월 대비 4.5%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식량작물(밀, 쌀, 아채 등)은 코로나 사태로 봄 파종 장애 영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료품 구매 증가하지만, 공급망(Supply Chain) 장애로 소비자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력 부족으로 단기적으로 수확량 감소 노동 및 농자재 부족으로 파종/식재 차질 발생, 장기적 공급 감소 우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Supply Chain) 장애로 생산자가격 하락, 농식품 소비자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력, 종자 및 농약 부족으로 인한 파종 지연, 수확기 농산물가격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부문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Visa) 취득과정 지체로 노동력 부족현상 발생
동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과일, 채소, 수산물의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 (베트남, 태국, 미얀마)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소비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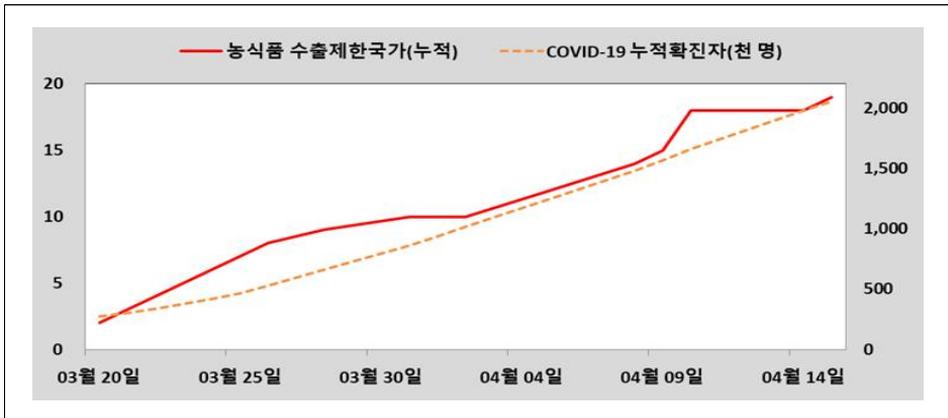
자료: Devex(2020. 4. 2.); The guardian(2020. 4. 9.); US News(2020. 3. 31.); Kyodo News(2020. 3. 5.).

- 농업부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의 대응방향은 비자문제 지원, 현금지원, 인력재배치 등이 있음.¹⁵⁾

□ **코로나19 이후의 주요국 수출 제한조치 현황**

- 주요국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3월말부터 농산물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병건수가 누적될수록 식품교역 제한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2-22).

그림 2-22 코로나19 발병건수와 식품교역 제한국가 수 추이



자료: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이러한 수출제한조치들은 각 수출국의 자국 내 농식품 공급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지만, 농식품 순수입국에게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¹⁶⁾

□ **코로나19(2020)와 애그플레이션(2008) 수출제한조치 비교**

- 코로나19(2020)로 인한 수출제한조치와 과거 애그플레이션(2008) 시기의 수출제한조치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2008년의 수출제한조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됨.

¹⁵⁾ 자세한 내용은 <참고 5> 참조.

¹⁶⁾ IFPRI(20. 4. 2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세한 내용은 <부표 6> 참조.

- 실질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수는 2008년에는 27개국인 반면, 2020년의 경우에는 17개국임.
- 또한, 수출 금지국의 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열량(Calories)비중이 2008년의 경우 13.99%인 데 반해 2020년은 4.06%임.

○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세계 확산추세에 따라 수출제한조치국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

- 또한, 수출제한조치가 곡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입곡물을 가공·활용하는 가공식품산업과 곡물사료를 투입재로 활용하는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표 2-56 주요국의 코로나19/애그플레이션 대응 농식품 수출제한조치 비교

구분	코로나19[2020]				애그플레이션[2008]			
	제한 조치 국가 수	세계 시장 점유율	수출 흐름 영향 (십억 Kcal)	평균 수출 제한 금액 (백만 달러)	제한 조치 국가 수	세계 시장 점유율	수출 흐름 영향 (십억 Kcal)	평균 수출 제한 금액 (백만 달러)
발표	1	0.09%	4,019	249				
수출금지	17	4.06%	176,750	17,095	27	13.99%	367,399	33,484
수출허가 필요					3	0.01%	264	26
기타조치	1	0.98%	42,555	3,151				
수출세 부과					9	4.77%	125,207	9,819
총합계	18	5.13%	223,324	20,495	33	10.66%	492,871	43,329

주 1) 원자료의 'Number of Countries'는 '제한조치 국가 수', 'Share in World Market of Calories'는 '세계시장 점유율', 'Export Flows impacted in Bn Kcal'는 '수출 흐름 영향(십억 Kcal)', 'USD Mio restricted(average)'는 '평균 수출제한금액(백만 달러)'으로 표기함.

2) 기타조치는 'Not Binding'으로 강제성 없는 협회 차원의 조치 등을 의미하며, '제한조치 국가 수'에서 중복된 국가는 총합계에서 제외.

자료: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0. 4. 27.).

□ 코로나19의 세계 농식품 생산, 유통, 소비 영향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노동력의 이동이 제한됨. 그 결과, 해외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선진국의 농업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음.
- 노동력 부족은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요구되는 파종 및 수확의 적시성 확보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단기 식량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제식량기구(FAO)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파종 및 수확 시기 및 소요 개월에 대한 지역 및 생태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4월 이전에 수확(파종)이 진행되는 국가들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확(파종) 일정을 앞당기는 등의 생산가속화 조치를 권장하였음.¹⁷⁾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업부문 노동력 부족과 농업생산 원자재 수급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 세계 곡물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세계적으로 농업부문 노동력 부족과 원자재 수급 문제가 지속된다면 곡물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향후 FAO에서 발표되는 곡물생산 관련 예측치를 관찰하면서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생산측면뿐 아니라 유통부문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농식품(예: 신선 채소, 과일 등)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현상이 발생(The guardian 2020. 4. 9.)

¹⁷⁾ FAO(20.04.22.) 자료 재가공, 자세한 내용은 <참고 5>의 <표 2-64>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인하여 외식소비가 감소하면서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및 우리나라 항공수송 변동추이(〈부도 1〉 참조)**

○ 세계 여객항공 운항편수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난 1월 초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2월까지 일평균 약 3만 편이었으나, WHO 팬데믹 선언(3월 12일) 직후에는 23,247편으로 감소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특별입국절차 조치가 시행된 3월 19일에는 13,176편으로 급감함.

- 이후, 3월 말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며 3월 25일 4,605편, 3월 31일 2,585편, 4월 21일에는 1,886편으로 일일 여객항공 운항편수가 크게 감소

○ 우리나라 여객항공 운항편수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당시 704편, 중국 후베이성궈 항공편 입국 금지조치가 시행된 2월 4일 626편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2월 19일 국내 첫 사망자 발생과 23일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격상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3월 1일에는 366편까지 감소함.

- 이후, 3월 12일 WHO 팬데믹 선언(122편/일)과 3월 19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특별입국절차 조치(101편/일)를 통해 여객항공 운항편수가 급감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3월 말부터는 평균 60~70편만 운항되어 4월 21일 현재 여객항공 운항편수는 71편으로 나타남.

□ **항공 운항편수 감소에 따른 농식품 수출저해 영향¹⁸⁾**

○ 전반적으로 WHO의 팬데믹 선언과 전 세계 입국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여객 운항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농식품 분야(HS 01-24) 항공 수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18~2019년의 경우 1월과 2월 초에 감소한 농식품 수출실적은 2월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3월에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수출 부진으로 2월 수출 회복세가 다소 더디게 나타남.
- 항공 수출의 경우, 2019년부터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딸기와 포도(샤인머스켓) 등 신선과일을 중심의 수출확대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운항편수 감소로 2020년 1월 이후 하락 추세

○ 항공운송제약의 영향이 가장 큰 딸기 품목의 경우 2020년 4월 對세계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7.1% 감소

- 딸기의 對홍콩 4월 항공수출액은 1월과 2월 감소세를 3월부터 소폭 회복하며 전년 대비 15.0% 증가
- 싱가포르의 4월 신선딸기 항공수출액은 1분기 실적을 회복하며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50.2%, 40.4% 감소
- 여객항공 운항 감소에 따른 수출부진문제에 대응하여 선박을 활용한 대체수출을 지원한 결과, 3월과 4월 해운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699.9%와 1,044.3% 증가(홍콩, 싱가포르 등)

¹⁸⁾ ICAO(20. 4. 21.)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세한 내용은 <참고 5>의 <표 2-65> 참조.

○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4월 對세계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각각 16.5%, 41.1% 감소함. 특히, 일본의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과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일본 내 수요 감소현상으로 우리나라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對일본 수출 감소폭이 전월 대비 확대됨.

-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주요 수출시장인 對일본 4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6.5%, 41.3% 감소

○ 팡이버섯은 코로나19 영향과 더불어 수출국의 강화된 검역 조치 등으로 2020년 4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58.4% 감소하였으며, 항공수출(△57.0%)과 해운수출(△58.5) 모두 감소함.

- 한국산 팡이버섯에 대한 리콜과 검역이 강화된 미국으로의 4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80.8%로 크게 감소했으며, 한국산 팡이버섯에 대한 이미지 하락 등으로 캐나다(△47.3%), 인도네시아(△66.9%), 네덜란드(△58.3%)로의 수출실적 감소

□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항만 이용 제한조치

○ 코로나19에 따른 검역·검사 강화와 감염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으로 입항/하역/집하/운송 작업 등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⁹⁾

○ 코로나19에 따른 해상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운사별 대책으로 항로 기항지 순서를 변경하거나 만선(화물을 통합하여 운송) 수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저장(운영)비, 입항비 등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¹⁹⁾ 한국선주협회(20. 4. 1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세한 내용은 <참고 5>의 <표 2-66> 참조.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항구 작업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인력 교대 시간의 증가, 작업수단(바지선, 크레인, 인력 운송 셔틀 등)에 대한 소독 절차 강화로 화물 상·하역 작업 속도가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의 신선도 및 품질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영향 및 농식품 수출애로사항(국내 수출업체 조사)²⁰⁾**

○ 코로나19에 따른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 영향 조사 결과 딸기(주 수출시기: 4월 까지)와 파프리카 및 토마토(주 수출시기: 4월 이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됨.

○ 딸기와 버섯의 경우 정부의 물류비지원정책으로 수출업자의 항공운임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對미국 진단키트·마스크 등의 의료기기 수출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항공편을 편성하면서 딸기와 버섯의 항공 운항편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5월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는 파프리카와 현지 주문량이 급격히 감소한 토마토의 국내시장 유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군납품·대형마트 행사납품과 같은 유통지원과 생산자단체 차원의 출하물량 조절 등을 고려하고 있음.

○ 가공식품은 원재료 비축구매(2~3개월)로 단기적 수급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적으로 수출제한 조치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수입처를 다변화(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원당: 호주, 과테말라, 태국 등)하며 유동적인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²⁰⁾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신선 농산물 6개, 가공식품 4개) 전화조사 결과 정리, 자세한 내용은 <참고 5>의 <표 2-67> 참조.

8.1.2. 영향 전망

□ 시나리오 1: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국내 상반기 종식), 국외 확산 지속

○ 신선농산물은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나 국외 확산이 지속될 경우 국내산 농산물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신선농산물은 단기적으로 물류 장애에 따른 수출 감소 예상, 장기적으로 주요국 노동력/농자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국내산 농식품 수출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중국 등 주요국 농산물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고, 물류 장애가 발생하여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물량이 감소할 경우 국내산 농산물 수출여건 개선 예상

○ 가공식품은 환율 상승에 기인한 수출가격 경쟁력 상승, 주요국 소비자의 농식품 사재기 현상, 가정 내 식사 증대 현상으로 인한 가공식품 수요 증대로 국내산 수출도 늘어날 전망

- 코로나19 국외 확산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곡물 등 가공식품 원재료 수출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원료 확보 애로 발생 가능성 있음.

○ 수출과정에서의 물류 장애(항공 등 신선농산물 물류수단 부족, 물류비 상승, 통관 제한조치 등)가 지속될 경우 품질 저하 및 수출 동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시나리오 2: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 국내 생산요소(노동력) 투입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생산량 및 수출물량이 감소할 전망

- 해외시장 국가별 검역검사 강화, 항만 등 통관시스템 관리 강화로 인한 교역 활동 저해, 수출국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농식품 수요 감소는 국내 농식품 수출 감소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예상
- 주요 수출대상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비대면 거래 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식품박람회/판촉행사 취소 확대, 자국내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수입 농식품 (상대적으로 고가격/고품질인 한국산 농식품) 수요가 감소할 경우 수출실적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위기/기회요인**

- 코로나19의 외생적 충격이 국내 농식품 수출활동에는 위기이기도 하면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위기 및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정부 대응 및 수출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농식품 수출의 위기요인은 주요 수출시장 항만이용 제약, 항공 등 물류 이용 제약, 수출시장 판촉활동 감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시장 수요 감소 등이며, 기회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의 외식 대체, 해외 소비자들의 면역력 증진식품 관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력 등임.

표 2-57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산 농식품 수출의 위기/기회 요인

위기요인	기회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제한조치 • 노동력 부족에 따른 파종 및 수확 제한 • 항만이용 제약(항만 내 작업 지연 등) • 항공운송 제약 • 도쿄 올림픽 연기와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일본 내 수요 감소 • 검역조치 강화 • 식품박람회/판촉행사 취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한 HMR의 외식 대체 •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거래(Untact) 확대 • 해외 소비자들의 면역력 증진식품 관심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력

자료: 저자 작성.

8.2. 대응 방안

□ 방안 1: (공통) 기 코로나19 대응 동향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 강화

○ 신선 농산물의 경우 딸기, 버섯류를 중심으로 항공운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비 예산 확보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선박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

- 작황이 저조한 딸기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한 비규격 딸기 가공원료 사용조치와 수확기간 연장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팡이버섯은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해외바이어 공문 발송*과 안전성 검사 강화조치를 위한 검사비 지원

* 역학조사 결과 한국산 팡이버섯이 직접적인 사인이라 단정할 수 없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포장에 '가열 조리 후 섭취' 표시를 하고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

○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증가에 따른 생산 공장 가동을 위한 물류비·원료구매 자금 예산 지원과 금리 인하, 판촉행사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방안 2: (공통) 여객 항공의 신선 농산물 수송 협력 방안 마련 및 물류비 지원 확대

○ 신선농산물의 경우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여객항공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공회사와 협력방안 마련

○ 선박 운송비용이 상승할 경우 물류비 증가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 확대

□ **방안 3: (공통) 오프라인 거래 감소와 온라인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거래(Untact) 확대 가능성에 대비**

- 오프라인 식품박람회/판촉행사 취소 확대, 온라인쇼핑몰 주문 확대 및 거래 소비자 증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홍보 및 온라인쇼핑몰 마케팅 지원사업 강화
- 국내/국외 수출시장에서 농식품 구매 시 온라인 전자상거래 증대, 이에 따른 냉장·냉동 창고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지원사업 확대

□ **방안 4: (공통) 가공식품 수입 원료 확보 선제적 대응 조치**

- 가공식품의 경우 국제교역 제한 등으로 인해 생산원료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가공식품 주요 원료 확보 노력 및 원료 확보 다변화 조치가 필요
 - 라면 등 가공식품의 해외 원재료 수급은 연간 계약에 따른 비축구매 형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료 부족 우려가 적음.
 - 장기적으로 주요 원료 수출국에서 가공식품 원재료 수출을 중단할 경우,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원료 확보 창구 다변화도 필요

□ **방안 5: 주요 품목별 시장다변화 국가 선정 및 지원 강화**

- 코로나19 이후 신선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들에 수출 지원
 - 일본에 집중되어 있던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예: 파프리카, 토마토).

- 농산물 유통채널이 취약해지고 있는 중국에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예: 파프리카 검역문제 해결)

□ **방안 6: 코로나19 모범국 이미지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촉진**

- 한국의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 관리 능력 인지도 제고, 한국산 가공식품 수요 증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증대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모범국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 수립,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설비 등 지원
 - 장기적으로 안전 농식품을 생산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 등의 관리능력을 안전성 제고 기회요인으로 활용

□ **방안 7: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간편식(HMR) 해외 수요 증대 대응전략 개발**

- HMR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수출 국가별 수출가능 유망 HMR 품목들을 발굴하여 수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단기적으로는 검역문제를 고려한 수출유망 HMR 품목을 도출하고 수출물류비 지원
 - 장기적으로는 HMR가 유통채널 주도형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진출 유통기업들과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 개발

〈참고 5〉 농식품 교역 동향 세부 자료

표 2-58 신선농산물 2020년 1~4월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1~2월					3월					4월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옥수수	1,629	1,882	2,043	25.4	8.6	833	856	858	3.1	0.3	880	964	934	6.2	-3.1
밀	635	582	663	4.4	14.0	352	294	290	-17.4	-1.2	307	423	269	-12.3	-36.4
대두	175	161	204	16.5	27.4	102	144	135	32.9	-6.2	94	88	138	47.2	57.0
쌀	54	45	142	163.6	216.5	26	29	38	45.5	32.1	34	40	40	18.0	0.9
쇠고기	81	99	94	16.5	-5.3	33	36	38	16.0	6.1	33	44	39	19.5	-11.0
돼지고기	91	104	76	-16.4	-26.8	49	53	41	-16.6	-23.3	48	56	38	-20.4	-32.1
타피오카	49	27	31	-37.4	14.2	20	18	17	-16.9	-5.3	27	23	33	23.9	41.6
바나나	57	60	54	-6.6	-10.6	37	36	31	-14.8	-12.1	42	41	32	-23.4	-22.2
오렌지	15	11	10	-34.3	-13.9	54	41	50	-8.3	21.3	42	48	32	-25.6	-34.8
고추	37	40	38	1.6	-6.3	18	19	22	24.1	14.8	19	21	21	8.3	-1.2
보리	35	23	34	-3.1	48.1	22	28	12	-46.3	-58.8	20	18	19	-5.4	2.1
포도	9	9	7	-16.8	-16.0	12	12	11	-9.2	-6.1	21	24	17	-15.8	-27.4
면실	33	33	39	18.2	18.7	16	17	19	22.2	13.3	12	13	14	14.3	6.8
치즈	20	23	26	27.9	12.6	11	10	11	-1.2	3.5	11	12	13	27.0	7.3
닭고기	17	24	21	23.2	-9.9	10	13	11	12.4	-11.6	10	13	10	6.2	-20.9
참깨	6	6	6	3.9	3.9	3	3	3	15.9	1.2	5	4	10	109.3	134.2
기타 채소	22	25	19	-14.2	-25.6	10	10	9	-2.5	-5.7	9	11	9	-4.1	-19.5
커피	22	23	23	1.2	-2.8	12	11	11	-8.8	-4.9	11	14	9	-24.4	-36.3
양배추	1	1	7	503.3	696.5	1	0	4	707.0	923.1	1	0	8	1,305.7	1,668.5
호박	6	6	6	8.2	1.8	7	5	6	-14.6	31.7	6	6	8	23.5	27.7
당근	13	15	16	21.2	2.5	11	14	10	-13.8	-29.1	9	9	8	-17.7	-15.0
감자	10	9	9	-6.2	-1.5	6	6	5	-26.1	-19.4	9	6	6	-34.0	-5.2
파인애플	11	11	10	-13.5	-14.9	7	6	5	-27.6	-20.1	7	7	5	-22.8	-23.6
키위	0	0	0	2.4	-51.9	0	0	0	-100.0	-100.0	2	4	4	112.2	15.0
기타 버섯	5	6	5	10.3	-12.7	4	4	3	-20.5	-19.0	4	4	4	-6.4	-5.0
양파	17	9	5	-71.3	-44.6	7	5	4	-42.1	-9.9	5	5	4	-13.0	-25.9
기타 과실	6	5	7	28.7	31.2	3	3	3	7.7	7.1	3	4	3	-0.7	-10.7
팥	3	3	1	-75.1	-76.2	1	1	0	-88.8	-89.7	1	2	3	264.3	79.4
기타 근채	4	3	4	14.0	44.3	2	2	2	-27.7	-10.2	2	2	3	18.3	14.7
생강	1	2	1	7.7	-33.2	1	1	0	-33.3	-64.4	2	3	3	26.9	-12.3

주: 2020년 4월 수입량 기준 상위 30개 품목만 제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표 2-59 가공식품 2020년 1~4월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1~2월					3월					4월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대두박	275	292	291	5.7	-0.6	158	123	148	-6.3	20.0	166	170	143	-14.1	-15.9
양조박	161	163	215	33.3	31.5	73	86	109	49.8	27.1	74	112	111	49.4	-0.4
전분박	148	167	175	18.2	4.5	78	88	99	27.7	13.4	72	91	110	51.5	20.4
사료용 근채류	152	137	132	-13.3	-4.2	96	86	109	13.6	26.9	94	95	90	-3.8	-4.6
파암넛유박	149	163	157	5.3	-3.7	60	71	77	27.3	7.3	74	92	82	9.8	-10.9
팜유	76	72	105	37.4	44.2	48	48	58	20.7	20.5	58	69	62	6.7	-10.5
배합사료	67	110	91	37.3	-16.6	29	50	54	85.9	8.5	28	36	56	99.6	58.7
에틸알코올	46	53	83	80.1	58.1	26	45	42	59.5	-7.2	23	22	54	138.5	139.9
채증, 콜자씨박	41	55	38	-6.8	-31.6	22	6	32	44.3	447.4	22	57	49	121.5	-14.5
사탕 수수당	268	301	292	8.9	-3.1	152	150	69	-54.3	-53.5	156	173	44	-72.1	-74.8
당밀	112	69	63	-43.8	-9.4	55	53	65	19.2	23.4	40	44	31	-23.1	-30.1
혼합조제 식료품	42	47	46	8.8	-3.5	22	25	28	26.6	13.0	21	23	24	16.8	5.4
대두유	44	46	65	45.9	40.3	28	27	57	100.1	110.9	21	36	22	7.6	-38.3
기타사료	26	32	33	27.8	4.8	11	8	19	68.0	151.4	17	27	22	34.4	-17.6
맥주	45	57	43	-4.8	-25.0	23	37	21	-7.6	-42.2	23	29	22	-7.2	-25.2
김치	41	49	45	9.4	-7.9	25	26	20	-17.3	-22.9	21	25	19	-6.8	-23.2
물	29	36	35	20.3	-4.8	24	30	28	15.6	-7.1	22	33	16	-25.5	-51.6
유채유	22	27	27	26.7	1.0	8	6	9	14.7	41.4	8	11	16	111.2	44.1
야자, 코프라박	5 1	48	20	-61.1	-59.0	31	29	18	-42.8	-39.9	27	21	15	-44.6	-29.5
캐슈넛	9	10	21	123.1	107.7	5	9	9	71.2	-6.6	6	9	15	132.2	69.1
기타식물성 유박	86	63	100	17.0	58.8	31	23	20	-34.1	-11.9	31	21	14	-54.7	-31.8
밀기울	22	18	9	-58.6	-50.3	13	5	6	-51.9	34.3	10	4	14	33.7	257.5
면	42	28	21	-49.3	-22.4	24	16	13	-47.5	-19.2	20	16	14	-31.5	-15.0
기타과실	22	27	26	21.5	-3.7	13	15	15	13.1	-1.2	14	16	13	-5.1	-20.4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 전분	16	17	16	-0.0	-2.3	10	9	13	29.4	44.1	11	14	13	19.5	-8.5
설탕박	26	31	29	9.3	-8.3	12	13	14	19.9	11.7	13	11	12	-1.4	11.9
기타동물성 유지	10	9	13	27.4	43.7	5	3	7	34.8	110.8	5	8	12	124.2	48.8
감자	18	21	22	20.1	4.3	9	9	10	8.1	9.9	11	11	10	-2.1	-10.1
자당	14	13	15	7.1	17.1	10	9	9	-1.9	4.0	10	11	8	-17.7	-22.9
기타당	11	11	13	19.0	14.3	6	6	8	42.5	47.5	6	7	7	15.8	2.8

주: 2020년 4월 수입량 기준 목재·석채류·가구 등 비식용 임산물은 제외한 상위 30개 품목만 제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표 2-60 신선농산물 2020년 1~4월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1~2월					3월					4월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쌀	0.3	0.3	1.4	341.4	443.0	0.2	1.1	0.5	166.5	-54.1	0.2	50.2	35.4	-	-29.6
밀	4.7	7.0	7.8	65.7	12.2	2.7	3.6	3.5	27.3	-2.8	2.3	4.2	5.8	150.2	37.0
닭고기	3.1	9.0	9.6	213.0	6.6	2.5	4.6	2.5	-0.3	-46.2	2.4	3.4	4.3	81.1	24.8
파프리카	3.3	3.9	3.3	-0.0	-16.5	2.6	2.8	1.9	-26.3	-33.0	3.5	4.0	3.2	-8.1	-20.5
배추	2.4	6.9	2.3	-5.3	-67.1	1.1	1.8	0.7	-38.6	-62.7	1.1	2.9	1.7	45.2	-42.7
딸기	1.7	2.2	1.8	7.0	-19.2	1.0	1.1	1.0	-3.7	-11.7	0.7	0.9	0.7	-2.8	-17.8
배	4.4	4.0	4.2	-6.3	3.9	1.4	1.1	1.2	-14.1	16.0	0.5	0.5	0.6	21.6	17.0
무	1.2	2.4	2.4	96.8	-0.3	0.2	0.5	1.2	380.2	161.9	0.1	0.2	0.5	492.9	186.5
느타리버섯	1.0	1.2	1.4	46.8	14.8	0.5	0.6	0.6	7.1	-0.9	0.5	0.6	0.4	-4.1	-29.4
팽이버섯	1.8	2.1	2.6	39.9	20.6	0.8	0.9	0.8	-6.2	-14.9	0.8	1.0	0.4	-44.1	-57.6
조란	0.0	0.0	0.1	-	233.4	0.0	0.0	0.1	-	129.7	0.0	0.0	0.4	-	-
면실	0.0	0.1	0.3	-	141.7	0.0	0.2	0.6	-	129.5	0.0	0.1	0.3	-	170.7
마늘	0.0	0.0	0.8	-	-	0.0	0.0	0.5	-	-	0.0	0.0	0.3	-	-
고추	0.5	0.6	0.6	10.2	-1.8	0.3	0.3	0.4	51.9	43.3	0.2	0.2	0.3	36.6	20.4
토마토	0.6	0.7	0.7	22.1	0.0	0.3	0.5	0.3	4.4	-29.6	0.4	0.5	0.3	-25.8	-40.5
돼지고기	0.1	0.0	0.1	1.0	-	0.1	0.0	0.1	14.8	90.0	0.0	0.0	0.2	295.1	-
사과	0.6	0.6	0.4	-34.4	-38.6	0.1	0.1	0.1	-18.1	-3.9	0.1	0.1	0.1	56.9	98.6
쇠고기	0.2	0.0	0.0	-96.4	-54.1	0.2	0.0	0.0	-95.1	-28.6	0.1	0.0	0.1	-9.5	369.1
기타곡물	1.2	0.1	0.1	-91.0	-28.2	0.7	0.1	0.1	-90.7	-16.2	0.7	0.1	0.1	-89.3	0.7
멜론	0.0	0.0	0.0	32.0	-39.4	0.0	0.0	0.1	267.1	43.3	0.0	0.1	0.1	74.5	-33.1
대두	0.1	0.0	0.0	-69.2	-	0.0	0.0	0.0	-	-	0.0	0.0	0.1	-	-

주: 2020년 4월 수출량 기준 상위 21개 품목만 제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표 2-61 가공식품 2020년 1~4월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1~2월					3월					4월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19	'20	변화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혼합조제 식료품	60.6	72.6	73.0	20.5	0.6	31.1	36.0	43.1	38.4	19.7	31.8	41.2	35.0	10.0	-15.0
기타음료	34.0	37.9	39.2	15.4	3.4	25.2	25.9	30.2	20.0	16.6	25.8	29.1	24.9	-3.6	-14.5
자당	32.1	32.7	36.1	12.5	10.5	27.9	18.4	20.6	-26.1	12.1	27.5	21.9	23.1	-16.1	5.2
라면	14.6	18.4	23.6	61.9	28.2	8.8	11.5	15.7	78.8	36.8	8.1	12.1	18.5	128.8	53.7
물	18.4	24.3	20.0	8.5	-17.9	11.5	12.5	13.3	15.5	6.5	11.8	14.5	13.3	13.1	-8.5
에틸알코올	3.8	6.9	3.7	-2.8	-46.2	2.6	7.1	1.7	-35.5	-76.5	2.5	5.5	7.3	194.9	32.5
맥주	19.3	28.0	21.3	10.1	-24.1	11.9	15.2	12.4	4.0	-18.8	13.7	20.0	6.6	-52.1	-67.2
소주	10.7	11.3	10.3	-4.0	-9.1	6.6	5.7	4.9	-25.9	-13.4	6.7	5.1	6.0	-9.7	18.9
커피조제품	11.1	12.4	11.2	1.6	-9.4	5.8	5.9	7.1	24.1	21.3	6.8	6.9	5.7	-16.4	-17.5
기타사용용 조제품	8.9	5.1	6.1	-31.4	19.3	5.6	3.0	4.1	-27.4	37.0	5.7	1.9	4.4	-23.8	128.8
기타설탕과자	9.1	9.2	8.3	-9.2	-10.3	5.1	4.4	4.5	-11.8	1.8	4.6	4.3	4.4	-4.5	0.8
기타곡물 발효주	20.3	6.3	7.9	-61.3	25.8	12.3	4.2	5.2	-58.0	21.9	11.6	4.2	4.2	-63.8	0.8
김치	4.0	4.7	5.3	30.4	11.3	2.3	2.5	3.2	41.4	30.0	2.1	2.6	4.2	97.7	58.6
기타소오스 제품	4.1	4.8	6.2	50.4	29.6	2.6	2.8	4.1	57.3	45.6	2.3	3.1	3.9	66.8	26.5
권련	10.0	7.9	6.3	-36.9	-20.6	6.1	4.9	5.8	-4.4	19.4	5.4	5.3	3.7	-30.2	-29.2
옥수수전분	7.3	5.2	6.7	-8.0	29.8	4.0	3.1	3.7	-7.6	20.5	4.1	3.5	3.7	-8.9	4.8
단일과실 조제품	9.9	8.9	7.5	-24.1	-16.3	5.4	4.7	4.6	-15.3	-1.8	6.6	4.9	3.5	-47.5	-29.5
기타당	4.6	4.8	4.8	5.1	-0.5	2.4	2.0	2.9	23.3	42.8	2.0	2.5	3.1	50.4	24.3
베이커리반죽	5.4	5.5	5.1	-5.6	-7.2	2.8	3.0	2.5	-10.3	-15.0	2.8	2.4	2.9	3.7	23.9
기타조제 식료품	2.7	4.3	4.9	77.2	14.1	1.5	2.3	2.9	85.1	22.7	1.4	2.4	2.9	106.3	21.0
기타파스타	3.0	3.7	3.8	25.4	3.7	1.9	2.1	2.5	29.4	20.2	1.8	2.2	2.7	53.8	20.6
아이스크림	1.6	1.8	1.9	22.2	8.3	1.2	1.3	1.6	34.0	16.8	1.4	2.0	2.7	99.0	35.6
글리세롤 (조상의 것)	1.3	3.0	4.1	226.1	38.9	1.1	2.1	3.4	207.4	59.5	1.0	2.2	2.7	183.0	22.1
곡류조제품	1.9	2.7	3.1	68.5	14.7	1.2	1.4	2.1	75.9	50.2	1.0	1.6	2.6	161.2	63.0
기타베이커리 제품	3.1	3.5	4.3	37.4	22.2	1.8	1.6	2.7	50.6	66.0	1.9	2.0	2.4	29.4	21.0
리큐르	1.7	2.1	2.9	71.8	41.2	1.0	2.0	2.3	133.3	17.4	0.9	2.1	2.4	170.3	15.7
전분박	3.5	3.3	3.3	-5.7	1.5	1.8	1.5	2.1	14.9	34.1	1.9	1.5	2.4	27.4	61.8
인스탄트면	3.1	3.1	3.9	25.6	28.2	1.8	1.8	2.5	37.7	38.8	1.6	1.6	2.3	46.5	46.5
코코아분말	4.6	3.9	5.1	9.5	29.5	2.5	2.3	2.1	-16.4	-7.5	2.0	2.4	2.3	13.7	-4.9
대두박	19.5	14.3	13.3	-31.8	-7.3	8.9	7.0	3.0	-66.4	-57.3	4.2	1.4	2.0	-52.1	47.1

주: 2020년 4월 수출량 기준 판지·기타 원석 등의 입산물은 제외한 상위 30개 품목만 제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표 2-62 주요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

구분	반응 및 대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노동자(Guest Worker)들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 내 체류를 가능하도록 함. H-2A 비자 소유 농업종사자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 Pro Labor's Rebecca Raniney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추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35,000명에 대한 H-2B 비자를 제공할 계획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여 중국 내 드론 판매량이 급증하였음. 드론을 활용하여 노동력과 요소투입을 절약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임. 중국은 농업 회사 및 중소기업들에게 대출금 상환일 연장, 사회보험금(Social Insurance Payments) 면제 등의 지원책을 도입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부문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침체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된 중국 및 다른 외국인 기술직 인턴들의 재교육으로 채소 수확과 같은 농업부문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6억 엔을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에 포함하여 특히 농업 생산자 및 가공업자들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기로 함. 이 기금은 농업계 고등학교와 대학 학생들의 고용을 지원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의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농업 고용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최대 500엔 지원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는 농업부문에 대한 임시 지원을 위해 농가당 최대 100,000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4월 2일 독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부문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노동자 수송 계획을 발표 구체적으로 4월과 5월에 각각 40,000명씩 해외노동자를 비행기를 통해 수송하기로 정하고, 해외노동자들의 독일입국 전 건강검진 및 입국 후 숙박에 대한 엄격한 규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농업연합체인 FNSEA는 농가와 잠재적 농업근로자를 매칭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시작함.

자료: politico(2020. 4. 3.), fortune(2020. 3. 18.), S&P Global(2020. 4. 2.), China Briefing(2020. 5. 29.), Fruitnet(2020. 4. 21.), Agricultural and Rural Convention EU(2020. 3. 24.), IHS markit(2020. 4. 9.).

표 2-63 코로나19 대응 국가별 농식품 수출제한조치현황

구분	국가	시작일	종료일	품목	
유호 조치	수출 금지 조치	아르메니아	04/10	06/30	양파, 마늘, 순무, 호밀, 쌀, 메밀, 기장, 통밀 및 곡물 알갱이, 메밀(껍질 포함), 분쇄 및 분쇄되지 않은 콩 및 해바라기 씨
		벨라루스	04/10	06/30	양파, 마늘, 순무, 호밀, 쌀, 메밀, 기장, 시리얼, 통밀 및 곡물 과립, 메밀(껍질 포함), 분쇄 및 분쇄되지 않은 콩 및 해바라기 씨
		캄보디아	04/05	05/05	쌀
		이집트	03/28	06/28	두류
		온두라스	03/31	04/30	팥
		카자흐스탄	04/02	09/01	메밀, 백설탕, 감자, 신선냉장 양파, 샬롯, 마늘, 파 및 기타 양파, 야채류,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유, 메밀, 당근, 순무, 사탕무, 양배추, 콜리플라워, 배추, 양배추
			04/10	06/30	양파, 마늘, 순무, 호밀, 쌀, 메밀, 기장, 시리얼, 통밀 및 곡물 알갱이, 메밀(껍질 포함), 분쇄 및 분쇄되지 않은 콩 및 해바라기 씨
			04/14	09/01	감자(종자 제외), 메밀, 곡물 껍질,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오일, 백설탕
		키르기스스탄	03/23	09/22	밀, 밀가루, 식물성 기름, 설탕, 닭고기 달걀, 쌀, 파스타, 소독제 및 항균제, 넉긴, 복합 사료 및 밀기울
			04/10	06/30	양파, 마늘, 순무, 호밀, 쌀, 메밀, 기장, 시리얼, 통밀 및 곡물 알갱이, 메밀(껍질 포함), 분쇄 및 분쇄되지 않은 콩 및 해바라기 씨
		북마케도니아	03/20	04/30	밀, 메슬린, 밀가루
		러시아	03/20	06/30	가공곡물
			04/10	06/30	양파, 마늘, 순무, 호밀, 쌀, 메밀, 기장, 시리얼, 통밀 및 곡물 알갱이, 메밀(껍질 포함), 분쇄 및 분쇄되지 않은 콩 및 해바라기 씨
		세르비아	03/21	04/21	해바라기 오일, 당밀, 호모
		시리아	04/08	05/08	계란, 치즈 및 요구르트, 통조림 또는 포장 된 곡물 및 콩
	태국	03/26	04/30	계란	
	터키	04/08	08/31	레몬	
	우크라이나	04/09	07/01	메밀	
	베트남	03/24	06/01	쌀	
기타 정책 시행	러시아	04/05	06/01	밀	
	우크라이나	04/05	06/01	밀	
종료 / 보류	수출 금지 조치	카자흐스탄	03/22	04/01	밀가루, 설탕, 감자, 당근, 순무, 사탕무, 양파, 양배추, 해바라기 씨 및 오일, 메밀, 밀, 호밀
		루마니아	04/10	04/17	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밀가루, 콩, 해바라기 오일, 설탕 및 일부 베이커리 및 페이스트리 제품
	남아공	03/25	04/07	와인	
			04/16	맥주 및 주류	
정책 고려	몰도바	04/15	-	곡물류	

자료: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0. 4. 27.).

표 2-64 주요 작물의 파종 및 수확 작업에 대한 국제식량기구(FAO) 권장사항

과정	품목	국가	시작	마감	누적확진자 (20. 4. 22. 기준)
파종 (Planting)	밀	호주	4월	6월	6,647
	쌀	인도	3월	1월	19,984
		인도네시아	8월	5월	7,135
		일본	4월	6월	11,496
		중국	4월	8월	83,864
		캄보디아	4월	1월	122
		미국	4월	5월	825,041
	옥수수	세르비아	3월	6월	6,890
		우크라이나	4월	5월	6,592
		중국	4월	6월	83,864
<hr/>					
수확 (Harvesting)	대두	브라질	3월	6월	43,079
		아르헨티나	3월	6월	3,132
		우루과이	3월	5월	613
		파라과이	3월	7월	213
	밀	인도	2월	7월	19,984
	쌀	라오스	9월	5월	19
		미얀마	11월	7월	121
		방글라데시	11월	8월	3,382
		베트남	4월	10월	276
		인도	9월	6월	19,984
		태국	11월	6월	2,811
		필리핀	9월	4월	6,599
	옥수수	남아공	4월	6월	3,465
		아르헨티나	3월	6월	3,132

주: FAO에서 파종(Planting) 및 수확(Harvesting) 작업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한 국가들 위주의 정리이며, 나머지 국가들 또한 지속적인 코로나19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파종 및 수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함.

자료: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20. 4. 22.) 재가공

표 2-65 주요 농식품의 운송방법별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

품목	국가	운송 방법	2018년			2019년			2020년			B/A	
			1~2월	3월	4월	1~2월	3월	4월 (A)	1~2월	3월	4월 (B)		
신선 딸기	세계	전체	18,308	9,479	6,538	21,350	9,714	7,170	20,493	9,446	6,664	-7.1	
		항공	18,265	9,471	6,538	21,178	9,653	7,157	20,406	8,956	6,519	-8.9	
		해운	43	7	0	172	61	13	87	489	145	1044.3	
	홍콩	전체	7,094	3,816	2,074	7,545	3,050	2,035	6,028	3,562	2,471	21.4	
		항공	7,094	3,809	2,074	7,381	2,989	2,023	5,951	3,142	2,327	15.0	
		해운	0	7	0	164	61	12	77	420	143	1075.0	
	싱가포르	전체	4,474	2,577	1,848	5,803	2,801	2,021	5,448	2,592	2,087	3.2	
		항공	4,434	2,577	1,848	5,803	2,801	2,021	5,448	2,547	2,087	3.2	
		해운	40	0	0	0	0	0	0	44	0	-	
	태국	전체	2,419	915	1,073	2,797	908	871	3,409	1,051	865	-0.8	
		항공	2,419	915	1,073	2,797	908	871	3,404	1,051	865	-0.8	
		해운	0	0	0	0	0	0	5	0	0	-	
	베트남	전체	1,252	566	303	2,045	1,343	930	2,313	1,089	463	-50.2	
		항공	1,252	566	303	2,045	1,343	930	2,313	1,065	463	-50.2	
		해운	0	0	0	0	0	0	0	24	0	-	
	말레이시아	전체	1,558	1,027	939	1,477	914	987	1,517	742	589	-40.4	
		항공	1,558	1,027	939	1,477	914	987	1,517	742	589	-40.4	
	파프리카	세계	전체	14,347	8,490	9,657	15,005	7,351	10,342	13,297	6,789	8,635	-16.5
항공			1	0	0	0	4	0	2	2	1	5718.2	
해운			14,346	8,489	9,657	15,005	7,347	10,342	13,295	6,788	8,635	-16.5	
일본		전체	14,322	8,473	9,636	14,972	7,329	10,319	13,271	6,766	8,618	-16.5	
		해운	14,322	8,473	9,636	14,972	7,329	10,319	13,271	6,766	8,618	-16.5	
홍콩		전체	24	16	21	31	18	24	25	21	17	-30.8	
		해운	23	16	21	31	18	24	25	21	17	-30.8	
신선 토마토		세계	전체	1,802	897	1,183	1,916	1,369	1,360	1,935	990	802	-41.1
			항공	15	10	32	22	9	20	23	18	11	-45.5
	해운		1,787	887	1,151	1,894	1,359	1,340	1,912	972	791	-41.0	
	일본	전체	1,778	850	1,118	1,854	1,357	1,339	1,860	970	786	-41.3	
		해운	1,778	848	1,118	1,854	1,357	1,339	1,860	970	786	-41.3	
	홍콩	전체	0	0	17	12	7	12	0	8	7	-45.6	
		항공	0	0	17	12	5	12	0	7	5	-61.1	
		해운	0	0	1	0	2	0	0	1	2	-	

(계속)

품목	국가	운송 방법	2018년			2019년			2020년			B/A
			1~2월	3월	4월	1~2월	3월	4월 (A)	1~2월	3월	4월 (B)	
평이 버섯	세계	전체	4,129	1,608	1,629	3,853	1,550	1,681	4,673	1,328	699	-58.4
		항공	175	96	80	295	141	96	302	89	41	-57.0
		해운	3,955	1,512	1,550	3,559	1,409	1,585	4,372	1,239	658	-58.5
	미국	전체	1,814	794	649	1,686	616	629	2,019	321	121	-80.8
		해운	1,814	794	649	1,686	616	628	2,019	321	121	-80.8
	호주	전체	429	257	323	491	229	371	523	279	125	-66.4
		항공	5	1	6	6	3	4	4	2	0	-
		해운	424	256	317	485	226	368	518	277	125	-66.1
	캐나다	전체	425	135	108	422	190	167	623	124	88	-47.3
		해운	425	135	108	422	190	167	623	124	88	-47.3
	인도네 시아	전체	286	117	155	222	165	118	460	161	39	-66.9
		해운	286	117	155	222	165	118	460	161	39	-66.9
	네덜 란드	전체	249	140	134	335	161	125	349	128	52	-58.3
		항공	162	90	72	281	134	85	269	86	41	-52.2
		해운	87	50	62	55	26	40	80	43	11	-71.4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2020. 5. 27.) 재가공.

표 2-66 주요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항만관리 대책

국가	항만	항만관리 및 특이사항
미국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사망자 있을 시 입항 15일 전 보건당국 신고 - 14일 이내 중국 기항 또는 중국 방문자/승선자 있을 때 관련 당국 신고, 당국 통제하에 작업시행 및 상륙금지 - 질병선원 있을 경우 미국해안경비대(USCG)에 통보 - 항만당국승인(COTP authority)을 받으면 중국궤 선박 또는 중국에서 최근 14일 이내 승선한 선원이 건강하다는 조건하에 작업 가능 - 중국인 선원 또는 중국에서 14일 이내에 출발했던 선원은 선원 교대 불가 - 14일 이내에 이란, 중국에서 출항한 선박의 경우 선원 건강 상태 확인 필요, 확인 후 작업 가능 - 미국 입항 시 선장은 선원들의 건강 상태 제출 필요 - 고위험 국가 지정국 기항 후 14일간 발병 선원 없는 경우 기항 가능
브라질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입항 전 14일간 검역기간 시행. 검역시작 지점은 전 항만 출항 시점임. - 허가 없이 선원 하선 불가, 항만 작업자 승선 불가 - 증상이 의심될 경우 조사 실시, 선원 하선불가 및 작업 불가 - 확진자 발생시 격리 조치 - 건강상태 증명 없이는 선원교대 불가 - 선원 건강증명서 제출(필수)
에콰도르	만타 (Man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 교대 불가
아르헨티나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궤/중국기항 선박은 입항 48시간 전 메디컬 로그북 제출, 24시간 전 선원 체온 기록 신고 - 선원 교대 금지, 긴급 하선만 긴급상황 시 2시간 내에 공항으로 도착하는 조건으로만 가능, 단 승선자는 입국 불가
	사라테 (Za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alada anchorage에서 전 선원 발열 검사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접안 가능
프랑스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 강 바지 운영 시간 허가가 24hr → 10hr로 축소됨에 따라 바지선 이용 시 혼잡도 증가 및 바지 전용 파리 터미널 내 컨테이너 적재량 증가 야기
네덜란드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미널 내 컨테이너 적체 증가로 화물이 없는 컨테이너 반입 금지
이탈리아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적체 및 항만 노동력 부족으로 혼잡 심화 -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권장, 투입가능 인력 감소로 생산성 감소 - 기타화물 작업정상 운영하지만 생산성 저하, 선원 교대 불가
스페인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상황 외 선원 교대 불가, 선원 상륙 불가, 하역인부들과 접촉 금지, 선박에 보급 물자 제공 어려움 - 각 항만 작업 일정이 상이하여 기항 전 확인 필요 - 3/14일부터 정부에서 4/11일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권장, 대부분 재택근무 중이나 항만은 아직 가동 중 - 선박기항 24시간 전 검역당국에 코로나 관련 증상 신고 필수 - 해안 접안 시 코로나 키트 검사 예상 - 철재 관련 공장들은 현재 공장 중단 상황으로 확인
독일	엠덴 (Emd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8일 이후 모든 RORO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하역작업 중지
영국	리버풀, 맨체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당국에 건강검사기록 송부 필수 - 중국 선원 또는 중국에서 승선한 선원 교대 제한

(계속)

국가	항만	항만관리 및 특이사항
중국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만마다 입국제한 규정이 상이함. 중국 기항 계획 시 개별 확인 필요 - 주요 항만 규제 조치 (톈진) 한국/일본/말레이시아/이란/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미국을 기항한 선박의 선원이 기침, 발열 시 입항 금지 (칭다오) 한국/일본/말레이시아/이란/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미국을 기항한 선박들은 도착 7일 전 매일 선원 체온 확인 필요. 만약 기침, 발열 있는 선원 발생 시 접안 금지. 접안 24시간 전 항만당국 접안 승인 필요. (상하이) 14일 이내 한국/일본/말레이시아/이란/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미국을 기항한 선박의 선원은 지속 체온 체크 필요
	상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한 공장 가동률 저하로 집하장 혼잡 발생
대만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일부터 중국인 선원 대만 입국 및 승하선 금지, 2/4일부터 14일 내 중국/홍콩/마카오 기항 선박의 선원들의 승하선 제한 및 열/기침/호흡곤란 증세 발견 시 검역당국에 신고 - 항구 내 정박 중인 선박의 선원들 마스크 착용 필수,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불가 - 홍콩, 마카오 포함 14일 내 중국 방문 선원, 감독, 서베이어 입국 불가 -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 경유 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 3/14 일부 유럽국가 해당국 방문자 14일 자가 격리 실시 - 기항 예정 선박의 중국인 선원 입국 허가 또는 임시 체류 허가증 발급 중지 - 모든 중국인 선원 대만 전 항만에서 승하선 금지
일본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일 부 Zhejiang Province 방문자 입국 금지 - Hubei/Zhejiang 여권 소지자 및 Hubei/Zhejiang 지역 14일 내 방문자 입국 제한 - 대부분의 터미널에서 본선 선원 마스크 착용 또는 선원 하선 금지 - 선박 입항 전 건강질문지 작성 후 제출 필요 - 3/7일부 14일 내 한국 경북지역, 이란의 Tehran and Gilan 지역 방문자 입국 금지 - 3/11일부 14일 내 Mazandaran, Isfahan, Alborz, Markazi, Qazvin, Semnan, Golestan and Luristan provinces of the Republic of Iran, Lombardy, Veneto, Emilia-Romagna, Marche, and Piedmont regions of Italy, San Marino (entire country)를 방문한 외국인인 일본 입국 금지 - Westerdam(Cruise ship) departed Hong Kong on 1st Feb., 2020 에 승선했던 외국인 일본 입국 금지
호주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한 선박 입항 제한 관련 국가 출항 후 14일 후 접안 가능하나, 스케줄 변경 및 선석 확보 어려움 - (14일 지연 룰) 중국, 이란, 한국, 이탈리아 항만에서 모든 항만으로 확대 적용 - (14일 자가 격리 룰) 항공기를 이용해 입국하여 선박에 탑승하는 인원 포함 - 해외에서 호주에 입국한 선원은 국내항공편 이용 본선 승선 및 자가 격리: 항공기 탑승까지 공항에서 계속 대기 / 항공편이 다음 날이라면 호텔에 자가 격리 - (하선) 선박에서 공항으로 경유 없이 이동 / 항공편이 다음 날이라면 호텔에 자가 격리 - (상륙) 최종 출항일로부터 14일 격리일 경과 후 상륙 가능(입국심사 허가 후)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4/5일 23:59부터 서호주 주 경계 일시 봉쇄(FIFO(fly-in fly-out) /근로자는 예외이나,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함.
	뉴사우스 웨일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기항지 5곳 승부 및 전 선원 무증상 신고 - 14일 이내 중국 기항 선박은 Pilotage Service 지연 가능 - 본선이나 본선의 선원이 중국을 떠난 지 14일(2시간 Time zone Change 추가) 이내의 경우나 본선의 선원이 중국에서 승선했던 경우, 모든 선원 본선 대기/선원의 필수적인 업무 수행의 경우에만 보호 장구 착용 후 상륙 가능

(계속)

국가	항만	항만관리 및 특이사항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기항 후 14일 경과 (Anchorage 시간 포함) 선박 Pilot Service 가능 - 당국 검역 후 질병이 없는 경우 정상 진행, 질병이 있다면 14일 추가 지연 후 검역 - 본선이나 본선의 선원이 중국을 떠난 지 14일(2시간 Time zone Change 추가) 이내의 경우나 본선의 선원이 중국에서 승선한 경우, 모든 선원 본선 대기/선원의 필수적인 업무 수행의 경우에만 보호 장구 착용 후 상륙 가능
	퀸즐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사 승선 2시간 전 VST 통보 사항 : 지난 14일간 허베이성을 방문한 선원 여부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선원 여부(열, 감기 증상, 인후염, 두통, 호흡곤란) - 해당사항이 있다면, 정부의 승인이 날 때까지 해상이나 모박지로 이동 - 본선이나 본선의 선원이 중국을 떠난 지 14일(2시간 Time zone Change 추가) 이내의 경우나 본선의 선원이 중국에서 승선한 경우, 모든 선원 본선 대기/선원의 필수적인 업무 수행의 경우에만 보호 장구 착용 후 상륙 가능
인도네시아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입항 시 검역시행으로 하역작업 지연 발생(1~2시간) - 신종 코로나19 발생국가 기항선박 입항 24시간전 검역 신청, 검역 완료 후 입항 가능 - 전염국을 방문하였을 경우 격리검역지로 이동하여 검역당국의 검사를 재차 받은 후 통과 시 접안 혹은 선적 가능 - 출항 전 보건 당국 선박점검 시행 후 출항 가능 - 검역관 운송선 비용 발생, 검역 및 검사 비용 발생(각 port 마다 상이, FDA 청구)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국으로부터 출항하여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의 상륙을 금지. 응급환자 혹은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하여 응급 조치 및 검사가 필요할 시 하선 가능 - 마지막 기항지가 감염국일 경우 출항으로부터 14일 이후 선원 교대 가능 - 선원 교대를 위해, 지정 대리점은 선박의 이동 경로, 도착 정보, 교대자의 비행스케줄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함. - 선원 교대를 위해, 예상 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선박 내 자체적으로 선원의 체온을 매일 확인 및 기록해야 하며 관할 항만 당국에 보고해야 함. - 인도네시아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Jakarta, West Jwa, Middle Jawa) 지역으로부터 출항한 선박의 선원일 경우 상륙이 불가하며, 선박 내 자체적으로 선원의 체온을 매일 확인 및 기록해야 하며 관할 항만 당국에 보고해야 함. - 감염국으로부터 출항하여 인도네시아를 기항하는 선원 및 모든 사람들은 38도 이상의 열이 있었던 적이 있거나, 기침, 후두부 통증, 그리고 호흡이 힘들 때 반드시 해당 관할 보건 당국에 통지해야 함. - (승선) 3월 20일부터, 인도네시아 국제공항에서 발급하던 도착비자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사전비자 없이 입국이 불가함. - (승선) 각국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사전에, 관련 비자(B211A)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함. 다만, 국가별로 발급 가능여부 및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하선) 감염국으로 지정된 국가(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항한 지 14일이 경과하였거나, 그 외 국가에서 출발한 경우, 선원의 하선이 지역에 따라 가능한 곳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한을 강화하는 경향 - (하선) 상기 반자르마신 항만청의 공고문 3번과 같이, 외국 선박 선원의 하선 자체를 금지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기 및 지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갑작스러운 금지에 대처 가능함. - 중국궤 선박의 경우, 14일 규정 적용(중국 포트 출발로부터 14일 이후 입항 가능): - 한국, 이탈리아, 이란의 일부 포트에서 온 선박의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

(계속)

국가	항만	항만관리 및 특이사항
말레이시아	전 항구	- 코로나로 인한 선박 입항 제한 관련 국가 출항 후 검역 작업 필요하여 접안 지연 - 도시 간 이동 제한으로 하역/운송 노동력 일부 부족 - 대형선 우선 접안으로 기타선 스케줄 지연
	라부안 (Labuan)	- 항만봉쇄(~4. 14.), 선박 외항대기, 추가연장 위험
	포트클랑 (Port Klang)	- 직전 기항지 중국일 경우 중국 출항일+14일 경과 후 접안 가능 - 의심환자 있을 경우 검역&대기 후 접안 가능 - 중국인 선원 승선 시 입항 전 검역 강화(전 선원 건강상태 체크) -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국가 안보리와 협의, 4/4일부터 전국의 혼잡한 항구에서의 화물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 운송업자/회사들에게 화물이동/포트정리작업 관련 추가 4일 허용함
필리핀	전 항구	- 선박 입항 시 검역 시행으로 하역 작업 지연 발생(1~2시간) 및 세관 업무 공백으로 작업 지연, 컨테이너 집하장 혼잡으로 선박 입항 추가 지연 - 필리핀 북항 세관 폐쇄로 인한 세관 인력 부족으로 통관 지연 - 코로나19로 인한 마닐라 통행금지 증으로 검문소 경우 및 하역/운송 노동력 부족
싱가포르	전 항구	- 코로나19 관련 항만의 입항 제한 일수 적용을 위한 저속 운항으로 싱가포르 항만 기항 선박의 혼잡 일부 발생 - 상기 사유로 집하장 내 컨테이너 작업 지연되어 혼잡 발생 - 14일 이내 중국 기항 또는 중국 방문자/승선자 있을 때 24시간 전 관련 당국 신고 - 입항 전 공용구역 소독 - (권고사항) 선원/승객 대상 교육, 일 1회 체온 체크, 38도 이상자 격리 및 마스크 착용 - 기항 14일 이내 대구, 경북,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기항/체류 이력 있는 선원의 상륙 불허 -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체류 이력 있는 선원의 상륙 불허(3/15 2359LT부)
태국	전 항구	- 선박 입항 시 검역 시행으로 하역작업 지연 발생(1~2시간) - 방콕 전역에 강화된 검역을 적용(3/18~3/31) - Bangkok port operation과 외항선 작업을 위한 항만은 정상 작업 중. 그러나 강화된 제약을 적용 - 한국, 홍콩, 중국, 이탈리아에서 온 모든 선원을 14일 동안 격리 - 태국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입항 3일 전까지 마지막 10항구 기항 이력 및 검역검사질문지 제출 필요 - 선원 교대를 위한 승하선은 조건부 승인 - 현재까지 감염국에서 온 선박들의 작업 관련,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문제없이 진행 중
캄보디아	전 항구	- 코로나로 인한 선박 입항 제한 관련 국가 출항 후 14일 후 접안 가능하나, 스케줄 변경/선석 확보 어려움
베트남	전 항구	- 선박 입항 시 검역 시행으로 하역 작업 지연 발생(1~2시간) - 전 항구 코로나19위험국가 기항한 모든 선박은 입항 시 지정된 해안장소(묘박지)에서 검역 시행 - 선원 중 37.5도 넘는 사람 있으면 선박 14일간 묘박지에서 검역격리 시행 - 선원교대 및 상륙 금지

(계속)

국가	항만	항만관리 및 특이사항
인도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제한 및 재택근무 시행으로 생산성 감소되어 터미널 혼잡 발생- 트레일러 이동 제한 및 드라이버 부족으로 내륙운송 거의 마비* 선사, CFS 등 협회 요청으로 추후 일부 해소 예상- 3/24일 자정~4/14일간, 21일간의 전국적인 Lockdown 실시(식료품, 유제품, ATM, 약국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철도, 항공사, 공공 및 민간 운송, 쇼핑물, 레스토랑 및 상점이 문 닫음)/ 화물 작업 속도 저하 및 적체 증가- 3/31일, 인도 정부는 인도 내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요 항만에서 3/22~4/14일 간의 lock-down으로 인한 접안, 화물 도착 지연 관련 비용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4월 14일까지 하역작업 중단(국가 봉쇄)
이집트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교대 불가: 3/19 ~ 4/15까지.- 아시안 선원은 상륙 금지 / 타국 선원에 한해서는 검진 후 결과 여부에 따라 가능
남아공	전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아공 Lock-Down으로 인한 작업불가 선언으로 하역 불가- 사전 접안 허가 필수(~4월 16일까지)- 모든 RORO 화물(자동차 등) 터미널 하역작업이 중단됨.-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항만 폐쇄(Saldanah Bay)* 기간: 3월 26일 ~ 4월 16일* 필수 산적화물(곡물, 대두 및 비료 등) 항만 제한적 운영

자료: 한국선주협회(2020. 4. 17.). 『코로나19 관련 각국 정부의 항만관리대책』.

표 2-67 주요 농식품 공급 및 수출 현황(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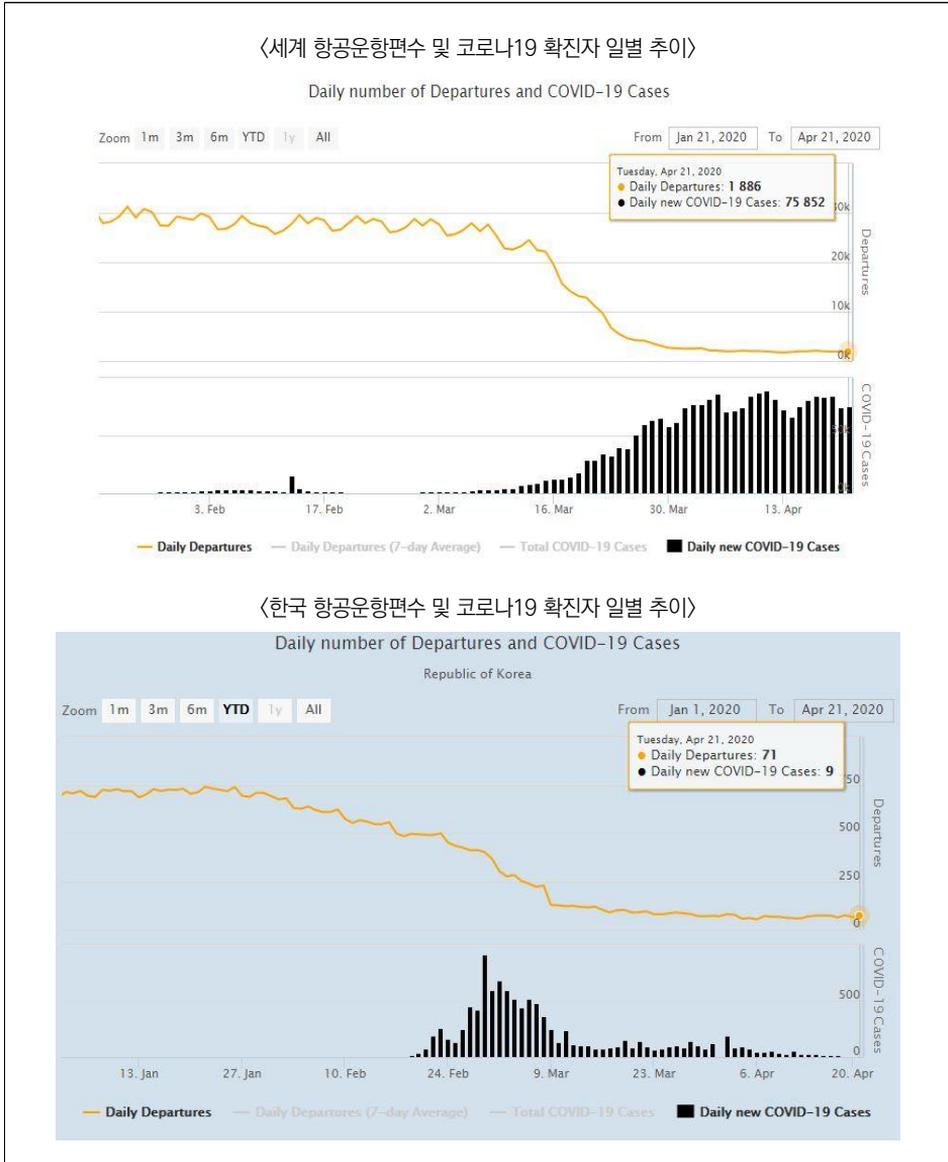
품목	생산/원재료 공급 동향	수출 현황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국내가격 영향
파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일조량 부족) 등 영향으로 평년 대비 소폭감소 4월 생산·출하 물량 증가로 공급량 포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물량이 수입하는 일본의 올림픽 연기와 긴급 사태 선언으로 수출 감소 현지 바이어 수입 요청 물량 40% 이상 감소 5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출 감소폭 확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외식·외출 제한으로 마트 및 외식업체 공급 물량 감소 對중국 수출개시는 농장실사작업 계류 중이며, 정부에서 ①한국자체 실사, ②주한중국대사 실사, ③중국검역관 입국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중국에 제시 비대면 홍보강화와 생산자조금단체 수급조절 위원회 개최·유통폐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생산량 증가와 수출 감소로 내수시장 공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국내가격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됨.
신선농산물 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종기 날씨 영향으로 수출용 딸기(매향) 모종 고사 수확기 일조량 부족으로 기형과 발생, 품질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기 운항감소와 화물기 대체 운항 등으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품질(신선도)도 떨어짐. 홍콩·싱가포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항공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에 제약 발생 딸기 수출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피해가 더욱 증폭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의 제한적 운항과 그에 따른 운송비 상승 지속 정부의 물류비 추가지원정책은 일부 도움이 되고 있으나, 항공사가 對미국 진단키트 및 의약품 수출을 위해 공편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물류지원정책의 효과가 저감됨. 선박운송도 컨테이너 물량을 채우기 위한 운항대기로 품질 하락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 향후 신선농산물(딸기, 사인머스켓 등) 관련 심각한 물류대란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용 딸기(매향) 국내시장에 투입될 경우, 가격 하락이 예상됨.
토마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 낮은 일조량으로 생산량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년의 경우, 4월 이후 수출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월 대비 수출 감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올림픽 연기,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호텔 뷔페, 외식업체 수요 감소 향후, 내수전환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으로 국내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었으나, 군납품·대형마트 행사 납품 등으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됨. 5월 연휴기간 이후 가격 하락 전망

(계속)

품목	생산/원재료 공급 동향	수출 현황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국내가격 영향	
버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수요 증가로 생산량 증가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함에 따라 해외발주 취소 증가 •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이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외 바이어에 공문발송, 안전성 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유럽 등 수입업체, 식당 등 영업중단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 불가피 • 정부 물류비추가지원 정책으로 항공 운임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한국산 팽이버섯 검역 강화로 발주 취소 및 국내 팽이버섯 가격 하락 • 팽이버섯 도매 가격(aT, 상품) : 2,102원/kg (19.4)→1,745원/kg(20.4) 	
가공식품	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한국산 불매운동으로 일본 현지생산·판매 및 수출 감소 • (미국)인삼류와 함께 건강식품으로 수출 호조(매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성공한 방역모델로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면역력 증가와 건강한 이미지의 한국음식(K-Food) 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년과 전년 대비 가격변동 크게 없음. 	
	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원재료는 비축구매(2~3개월) 형식으로 단기적 영향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곡물 작황이 호황이 상태로 공급 문제 발생 가능성 낮음. • 장기적으로 주요 수출국 원재료(곡물, 원당) 수출 제한 시 원재료확보 애로 예상 • 환율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했으나, 글로벌 물동량 감소와 유가 급락으로 원가 부담은 낮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수출과 물류 차질을 우려한 해외바이어 측에서 주문량을 늘린 것도 증가요인으로 작용 • 라면 수출량은 평년 및 전년 대비 크게 증가(전년 대비 중국 50%, 미국 10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재기로 현지 수요 대비 수출 및 공급 부족 • 외출·외식 제한으로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상품주문 증가 • 정부에서 생산 증가에 따른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판촉 등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로 14일 정도 입출항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지 항구직원/선원의 코로나19 감염 시 상하역 지연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 단기적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글로벌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원당(호주, 과테말라, 태국 등)의 수입처를 다양화하며 유동적인 현 상황을 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산 어린이 음료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제한 및 개학연기 등으로 외식업체 수요 보다는 가정 내 실소비가 크게 증가 	

자료: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신선 농산물 6개, 가공식품 4개) 전화조사 내용 정리.

그림 2-23 코로나19 항공 여객 수송 변동추이



자료: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020. 4. 21.).

9. 농촌 복지(보건,교육)

9.1. 현황과 영향 전망

9.1.1. 현황

- 4월 말까지, 농촌 지역 코로나19 확산은 제한적임.
 - 2월 22일 기점으로 신천지교회 중심 대구·경북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3월 중순부터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었고, 5월 생활방역 전환 이후 이태원 클럽과 물류창고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
 - * 5월 29일 기준 도별 경북이 1,379명(12.1%)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815명(7.1%)으로 두 번째임.²¹⁾
- 집단 시설 중심 지역사회 감염 증가로 농촌 지역도 안심할 수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농촌지역 감염이 진행될 수 있으며, 농촌 특성상 마을 단위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농촌 인구 구조상 고령화율이 30%가 넘는 지역이 많아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 5월 29일 현재 농촌 지역은 대구 달성군 대실요양병원 100명, 경북 대남병원 관련 120명, 경산 서요양병원관련 66명, 봉화 푸른요양원 68명, 경산 참좋은 재가센터 18명 등 집단시설 중심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신규환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²²⁾
 - * 경북 예천은 3월 9일 확진자 이후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6차 감염까지 이어졌으며 4월 18일에도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5월 말 이후 지역보다는 수도권 중심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1)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 검색일: 2020. 5. 29.

22)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 검색일: 2020. 5. 29.

9.1.2. 영향 전망

□ 시나리오 1: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국내 상반기 종식), 국외 확산 지속

○ 6월 말 이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면 농촌 주민의 생활은 회복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받지만, 생활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공동 시설사용 제한으로 공동체 활동의 축소와 대면 접촉을 통한 사회적 활동 감소로 인해 노인, 아동, 취약계층의 고통 증가 예상
- 돌봄이 필요한 중증 질환자, 특히 노인 질환자 경우 적절한 관리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기저질환 노인의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노인은 운동 부족과 영양 부족으로 건강 악화가 예상되며 또한 응급 상황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음.
- 농촌 노인(70세 이상)은 주로 대중교통(43.3%)을 이용하여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농촌지역 대중교통의 단축운행으로 식료품 및 물품구입에 어려움을 겪음.
- 조손가정이나 부자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은 식사를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식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며, 식사 준비 부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집에만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쌓여감.

○ 코로나19로 3월 개학이 연기되었으며, 4월 9일 중고생 3학년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4월 20일 초등 1~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어 전 학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고, 5월 20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등교와 등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코로나 지역감염으로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음.

* 5월 28일 기준 등교 연기 현황: 서울 117곳, 인천 243곳, 경기 261곳, 강원 2곳, 충남 28곳, 대구 1곳, 경북 186곳(한국일보 2020. 5. 28.)

- 도시보다 열악한 정보화 인프라로 인해 농촌 지역 다자녀 가구 및 취약가구가 원격수업의 부정적 영향에 더 노출될 수 있음.

* 전남도는 전체 학생의 3%(5686명)를 원격 교육 소외 학생으로 추산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진행으로 농촌 지역 가구와 아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원격 수업 실시로 인해 농촌지역 저학년 아동이 있는 가구나 취약아동이 다자녀인 경우는 어려움을 겪게 됨. 저학년 경우 보호자가 원격수업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음. 또한 다자녀의 경우 충분한 컴퓨터 확보가 필요하며, 농촌 학교 역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원격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수동적 참여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적절한 지도가 없는 경우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예상됨.

□ 시나리오 2: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 국내와 국외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농촌 지역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농촌 마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마을이 폐쇄되면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서비스는 멈추어버리게 되고, 사회적 관계망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노인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됨.

-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은 노인 돌봄 시설도 폐쇄가 되고, 응급돌봄으로 대체가 되면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의 돌봄 문제가 심해질 수 있음.

- 재가서비스 대상 노인 경우 방문요양사의 방문이 어려워지게 되고, 대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건강에 급격한 악화가 진행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 집과 같은 아동 돌봄시설 폐쇄되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의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됨.
 - 노인과 아동의 영양 공급 필요성이 대두하게 됨. 특히 독거노인과 노인 가구의 경우 신선식품 구매와 조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농촌 마을까지 확진자가 확산될 경우 노인 사망자 증가가 예상되며 해당 마을은 패닉에 빠지게 됨.
- 이동제한이 장기화되면, 모든 연령대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가정 안에서 모든 가구원의 교육, 건강을 포함한 일상생활 활동 등을 모두 관리하기는 불가능함.
- 미취학 아동의 보육문제가 커지며, 취학아동의 일상생활과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 능력 퇴보가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원격수업이 장기화될수록 정보 인프라와 다양한 학습도구 및 학원 등이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예상됨.

□ 현장의 의견

- 사회복지 시설 휴관(자활시설, 노인복지관, 치매 안심센터 등)과 공공장소 이용 금지(노인정, 마을회관 등),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에서 긴급돌봄 실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운영 중이며 필요시 긴급돌봄 제공
- 정부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더 강한 대응이 있을 경우 취약계층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함.

- 농촌의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함.
-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짐.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게 됨.

9.2. 대응 방안

□ 방안 1: (시나리오 1) 공공예방활동 강화

- 농촌지역 집단시설과 공공이용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함.
 - 집단시설 중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열감지 카메라 설치, 개인위생품 구비, 교육 강화, 외부인 모니터링 강화 등을 조치가 필요함. 종교시설이 주요 감염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밀접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 자제가 필요함.
 - 대중교통에 손 세정제 및 비접촉 체온기 설치로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방안 2: (시나리오 1) 취약 계층 영양공급 프로그램

- 도시락 및 생필품 제공이 필요함.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해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식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취약계층인 조손가정, 노인 가구 또는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방안 3: (공통) 마을 공동체를 이용한 돌봄 프로그램

- 마을 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공급망을 마련하고, 서비스 공급자가 생필품을 공급하면서 마을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건강 등을 모니터링함.

- 사회적 협동조합인 여민동락의 동락점빵은 트럭을 이용하여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여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음. 또한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찾아가 생필품을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안부를 챙기고 있음.

□ 방안 4: (공통) 디바이스를 이용한 관계 유지 어플 개발

-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농촌 노인가구에 태블릿을 지급하고 노인용 어플 개발과 보급을 통해 TV를 대신하는 정보 제공 창구로 이용함.
 - 정확한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건강관리 정보 제공, 보건소 또는 면과 군의 공무원과 의사소통, 마을 주민들과 사이버상 만남 마련을 가능하게 함.
 - Social network를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하는 방안 마련.
- 디바이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 필요함. 온라인 클래스 이용 및 개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방안 5: (공통) 주치의 제도 및 농촌형 원격 돌봄 및 진료 시스템 개발

- 마을 주치의 제도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보건소 또는 민간 병·의원에 자신의 주치의를 지정하고 전화 또는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건강 조언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소와 사회복지기관에서 전화를 통해 관리대상자의 운동, 건강, 영양, 약복용, 일상생활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방문 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본적인 생활 상태(식사, 빨래, 청소, 약복용 등)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형 보건·의료(원격 진료, 원격 돌봄 시스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이해집단 간의 갈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농촌 지역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감소,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농촌지역 원격의료·진료는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의료체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공적복지체계하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농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확충하고, 연구 중심 역할을 예방, 진료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안전보건센터에서 요양원/요양병원/주간보호센터/마을회관 같은 공동생활 시설에 돌봄·진료·교육 등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원격의료 서비스는 건강 상담, 건강 프로그램(운동 프로그램, 영양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건강교육), 원격 회진 등을 포함함.
 - 지역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대면 서비스 강화를 도모함
 - 예) 집단거주시설 + 방문간호(보건(지)소) + 원격회진(안전보건센터): 대면서비스와 쌍방향 원격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Wearable device를 통한 환자의 혈압, 혈당, 심전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 미국은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원격의료(Telehealth, Telemedicine) 제공 중.
 - * 국내 대학병원의 해외 원격의료 사례: 고신대복음병원 + 베트남 호찌민: 원격거점센터,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 캄보디아: 원격 협진 시스템 건강검진, 부산대병원 + 카자흐스탄: MPK클리닉

□ 방안 6: (시나리오 2) 보건소가 마을 출입자 관리

○ 외부 출입자의 마을 출입 통로를 보건소로 일원화하여 보건소에서 출입자를 모니터링함.

- 택시나 버스 도착지를 보건소로 지정하고 외부 출입자를 보건소에서 관리함.

□ 방안 6: (시나리오 2) 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지역 보건체계 확립

○ 농촌지역의 감염 확산에 대비해 전문 인력을 포함한 의료 자원 확충 등 전반적인 보건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함.

- 전문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와 같은 제도를 농촌에서 실시하여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하여야 함.

- 의료 시설 확충 및 지역 보건체계 확립: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보건 체계 확립과 역할 정립이 필요함.

□ 방안 7: (공통) 원격 수업 인프라 보강 및 디바이스 지원

○ 농촌지역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취약아동의 학력 증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촌학교 인프라 확충과 취약아동들에 대한 충분한 수업 관련 디바이스 지원이 필요함.

- 원격 수업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촌 아동들이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10. 농촌 관광

10.1. 현황과 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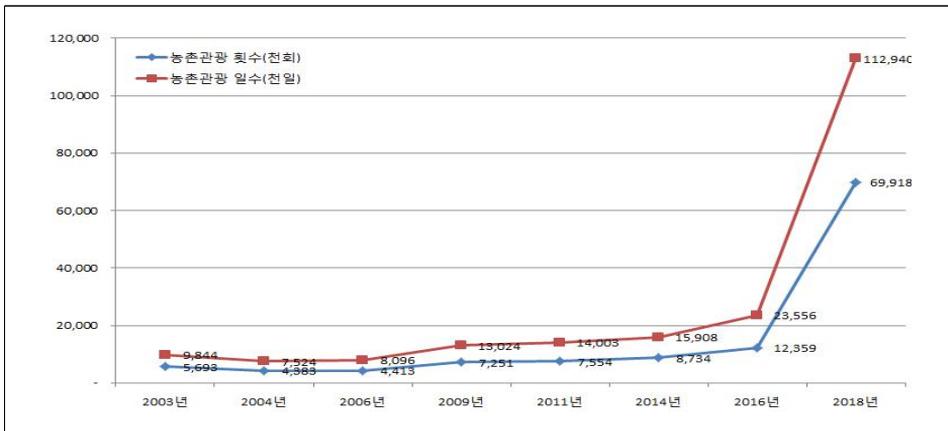
10.1.1. 현황

○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 격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03년 대비 2016년의 국민 농촌관광 횟수와 일수가 각각 2.2배 및 2.4배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각각 12.3배 및 11.5배 증가함.

* 2018년부터 조사 방법의 변화로 2016년 대비 2018년 수치가 급증함.

그림 2-24 농촌관광객 변화 추세



자료: 농촌진흥청(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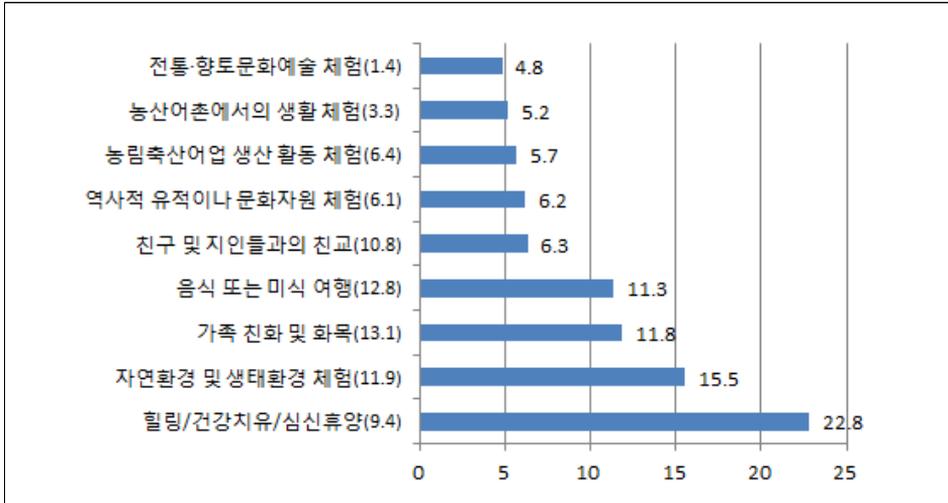
- 농촌관광 경험률도 2003년 전 국민의 8.1%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2018년에는 41.1%까지 증가함.

* 농촌관광 경험은 농촌 둘레길 걷기(19.1%), 농특산물 직거래(17.0%), 농촌 맛집 방문(16.6%), 농촌체험활동(11.3%), 농촌지역 캠핑(8.5%), 농촌숙박 경험(8.2%) 등을 의미

○ 농촌관광 행태의 특성과 향후 수요(김광선 외 2016)

- 대안관광으로서의 농촌관광: 가족, 미식, 자연·생태, 힐링·치유, 참여와 체험 등이 핵심 키워드
 - * 농촌관광의 주요 목적은 ① 가족 친화 및 화목(13.1%), ② 음식 또는 미식 여행(12.8%), ③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체험(11.9%), ④ 친구 및 지인들과의 친교(10.8%), ⑤ 힐링 또는 건강치유(9.4%), ⑥ 축제 참여(7.8%), ⑦ 단순 유람(7.8%), ⑧ 농업·임업·축산업·어업 생산활동 체험(6.4%), ⑨ 역사적 유적이나 문화자원 체험(6.1%) 등
 - * 20대는 가족 친화, 30대는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체험, 40대는 음식 및 미식 여행, 50대는 친구 및 지인들과의 친교, 60대 이상은 단순 유람 선호
-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큼
 - * 가족과 함께 농촌관광을 다녀온 경우 61.1%, 친구와 함께는 25.6%, 나홀로 여행도 3.9%. 동반자 수는 4명 26.7%, 2명 23.3%, 5~9명 18.3명, 3명 16.7명.
- 인근 지역 농촌 방문과 높은 숙박률을 보이는 농촌관광
 - * 대도시 주민 중 농촌관광 유경험자들의 경우 최근 3년간 농촌관광을 다녀온 횟수는 평균 연 1회 이상. 서울과 인천 거주자들은 주로 강원도와 전라남도로, 이외 대도시 주민들은 주로 가까운 도의 농촌으로 관광.
 - * 숙박을 한 경우는 77.8%. 숙박의 경우 1박 2일 46.6%, 2박 3일 42.9%
- 향후 농촌관광의 목적은 힐링·치유, 자연·생태, 가족친화, 미식
 - * 이제까지 농촌관광이 가족친화나 미식여행을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농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힐링·건강치유·심신휴양,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체험, 가족친화, 미식여행 등의 목적여행이 가장 크게 확대

그림 2-25 과거 농촌관광의 목적과 향후 수요



주: 괄호는 농촌관광 유형체험자들의 기존 농촌관광 목적 비중.
 자료: 김광선 외(2016).

10.1.2. 영향과 전망

○ 농촌지역 방문의 축소

- 일부 농촌지역에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 이동, 모임 자제에 따른 농촌방문객 감소. 가족 중심의 소규모 관광은 이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음식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피로 농촌지역 활성화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축제 개최 대부분 취소
- * 올해 3월, 4월의 축제는 모두 취소된 상황이며 이후의 봄 축제 역시 모두 취소 가능성 높음. 코로나19의 확산이 그 이상 지속될 경우 올해의 모든 축제가 영향 하에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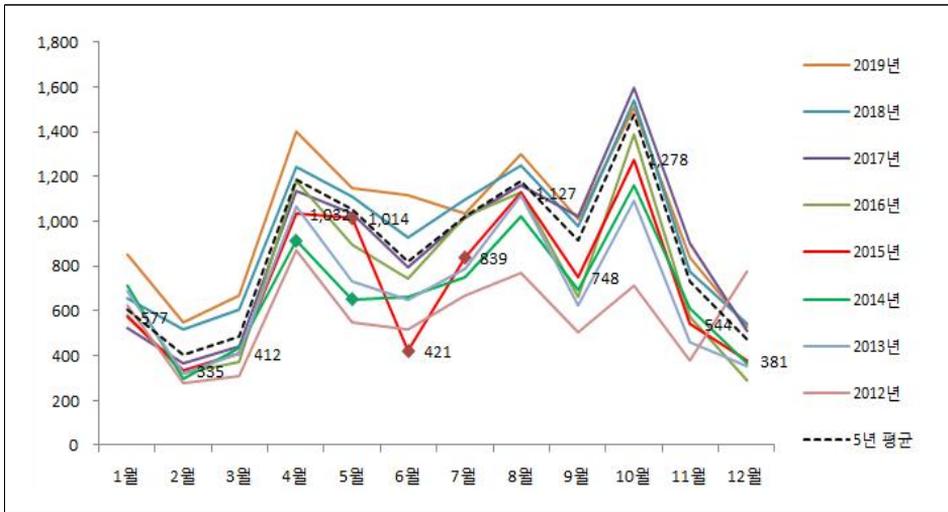
○ 2015년 메르스 확산 시기와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농촌관광

- 2015년 메르스 확산 시기 체험마을 방문객 수와 매출액이 2013년 동월 대

비 64.8%와 46.2% 수준에 머물렀음(6월 기준).

- *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는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총 186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8명이 사망함(치사율 20.4%). 동년 7월 28일 자가 격리자 전원이 격리 해제되면서 사실상 종식.
- * 참고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으로 전 국민적인 충격과 애도 분위기로 동년 4월부터 8월까지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2013년 동월과 대비해 감소

그림 2-26 연도별/월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 변화 추이



자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관리시스템(ROCUS).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와 매출액이 2019년(1월~3월 3주) 대비 2020년(1월~3월 3주) 각각 49.6% 및 38.2% 감소함.
 - * 전년 동월 대비 1월은 22.1%(방문객) 및 17.4%(매출) 감소, 2월은 66.5%와 64.8% 감소, 3월(3주)은 86.4%와 68.8% 감소함.
- 코로나19는 메르스(2015년)와 비교 시 치명률(약 2.3%)은 낮으나 감염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세계적 대유행을 겪고 있어 농촌관광에 대한 악영향이 더욱 장기간에 걸쳐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 현재(2020. 4. 28.) 국내 확진자는 10,752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1일 신규

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10명 내외에 머물면서 안정세 국면을 보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누적 확진자가 3백만 명을 넘고 사망자 역시 20만 명을 넘는 대유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감염의 공포는 향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 농촌의 실정을 고려한 긴급 대책은 부족
 - * 긴급 대책이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농촌과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긴급대책은 부족한 실정임.
 - * 농촌은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지역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낙후지역이기도 함.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실을 정부 및 지자체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관광의 영향

- (시나리오 1) 2020년 전반기 종료 시나리오의 경우 여름부터 농촌관광 회복 가능성은 높으나, 전반기 손실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후반기 농촌관광이 확대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 * 지난 3월 이미 전년 대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86.4% 감소한 것에 더해 4~5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음. 농촌지역 방문객들의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인해 매출액은 더욱 큰 감소세를 이어갈 수 있음. 이에 따라 2~3개월에 걸친 긴급대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할 수 있음.
 - * 그러나 현재의 추가확진자 수 증가세가 더욱 안정된다면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부터 농촌관광 방문객이 서서히 증가하여 후반기에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 2020년 말까지 지속 시나리오의 경우 연간 농촌관광객과 매출은 전년 대비 90% 이상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농촌관광의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긴급히 필요할 수 있음.
 - * 감염확산의 장기화 시 농촌관광 분야 여행업(사업체) 붕괴, 농촌관광 시설 및 인력 유지·관리의 어려움 증가, 일자리 감소, 참여 농가 및 주민의 소득 감소 등의 문제 심화
 - *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촌관광 소비자의 관광패턴 및 소비패턴 변화 분석과 농촌관광의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선 노력 필요

- 시나리오 1·2 모두 국내 코로나 사태가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우리 국민들의 향후 해외관광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국내관광 수요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농촌관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 단, 이러한 관광수요 전환 추이는 국내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포스트 코로나 농촌관광 전략을 새로이 구상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19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 심지어 관광활동까지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귀 기울여, 향후 농촌관광의 구조 개선과 전략 마련 필요

10.2. 대응 방안

□ 방안 1: (공통) 농촌관광 피해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관광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세제 감면, 저리 용자 공급, 고용인력 유지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자 지원,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마을 사무장 등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 지원, 농촌관광 방문객의 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의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의 단기(일정기간) 대책을 통해 농촌관광 분야 손실분 일부를 공공에서 보상
-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위생, 방역 지원
- 숙박업소, 음식점소, 체험시설, 방문객 차량, 운행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이 매일 1차례 이상 실시되도록 관련 장비와 재료, 인력, 교육·지도 제공
- 열감지 카메라, 귀 체온계, 손 세정제 등 증상 확인 도구 및 위생도구 공급 지원

□ 방안 2: (공통) 청정농촌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 및接客 행태의 전환 필요

○ 확진자 수 강원 31명, 충북 38명, 전북 10명, 전남 8명, 제주 6명 등 대부분이 농촌인 지역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청정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음 → 청정 이미지 마케팅 추진

- 경기,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도 농촌지역의 경우 낮은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 청정 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음.

○ 농촌관광 행태 및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응한接客 행태 전환

- 단체여행에서 가족, 친구 단위의 소집단 여행이나 나홀로 여행이 중심이 되는 Micro Tourism 확산에 대응한接客시스템 발굴 필요. 감염병 확산의 경우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Micro Tourism이 단체관광보다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음.
-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힐링·건강치유·심신휴양,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체험, 가족친화, 미식여행 등에 맞는 물적 기반, 인적 기반,接客 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방안 3: (공통) 농촌관광의 중장기적 체질 변화 등 구조 개선

○ 마을 중심의 농촌관광 공급 체계를 지역 단위로 재편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이제 10년 이상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 리모델링이 대거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많은 농촌관광 마을경영체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대안으로 개별 마을이나 경영체들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네트워크화되고 특화된 농촌관광 산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예로 마을을 포함한 농촌관광 자원들을 지역 내에서 특화된 주제로 네트워크화하고 지역 내외에 관련 전문가(전문기관)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서포트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 농가 및 마을주민들의 비전문적 경영에서 전문기업 육성으로의 공급태세 전환

- 농가, 마을주민 등의 참여를 유지한 채 전반적인 지역 내 농촌관광을 경영할 수 있는 농촌관광 여행업 육성
- 청년 기업가 육성을 통해 농촌관광 여행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의 자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소비자 관계 관리 등의 전문적인 경영을 맡도록 하여 지역의 농가,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증가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을 경영 목표로 하는 농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지역관광과 연계 및 융·복합화를 통해 농촌관광 시장 확대

- 농사체험, 농촌생활체험 등의 단편적 프로그램에서 확대된 지역연계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
- 체험뿐만 교육, 문화·예술, 역사·전통, 자연·생태, 힐링·치유, 미식 등이 융·복합된 다양한 적소시장을 발굴

○ 농촌관광 관련 개별 경영체 중심의 정책 대응에서 지역 단위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개별 숙박업소, 음식점, 체험 경영체 등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조직화된 경우 지역 단위에서 위생관리, 보험가입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지역 단위 농촌관광의 경우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파급효과(일자리, 소득, 환경 등)가 성과목표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빈집 등 농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농촌 숙박업을 하는 경우 개별 업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

○ 농촌관광 수요층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준비태세 구축

- 국민의 41.1%가 농촌관광 경험이 있지만, 반대로 절반 이상이 국민이 농촌관광 경험이 없는 상황 → 국민 절반 이상이 잠재 수요

* 농촌관광 무경험 이유: 관심이 없음(23.8%), 정보 부족(17.5%), 교통 불편(14.2%), 숙소 부족과 불편(9.6%) 등(김광선 외 2016)

11. 농업자금 및 농가경제

11.1. 현황과 영향 전망

11.1.1. 현황

□ 시나리오 1: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국내 상반기 종식), 국외 확산 지속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물경기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대비한 정부지원이 확대될 전망

- 미국, 유럽 등 양적 확대 및 우리나라 재정지원 확대 추세로 정책금융 총공급 확대

○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 대책으로 정책금융 공급지표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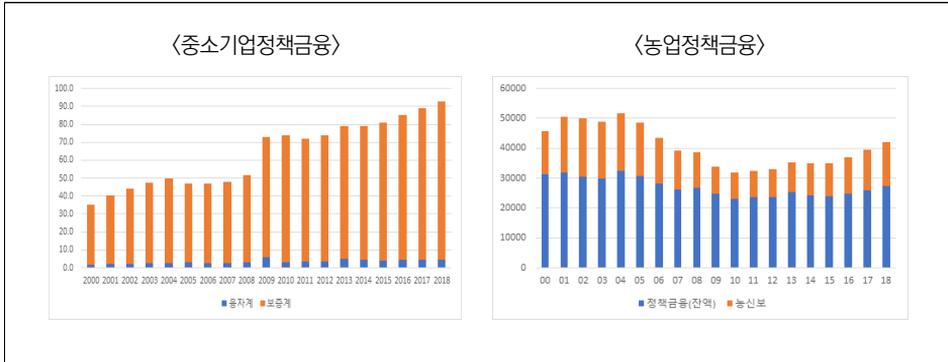
-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상공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전환이 확대될 전망

- (농업정책금융) 부채대책 이후 투자 정체로 꾸준히 용자잔액이 정체되었으나, 최근 농신보 제도개선으로 보증잔액은 증가한 상황임.

* 2018년 정책금융 잔액: 약 27조 원, 보증잔액: 약 14조 원

- (부채비율) 코로나19 이후 농가 부채비율은 높아질 전망이지만, 정책금융 활용도 여부는 보완대책에 따라 변동 예상

그림 2-27 정책금융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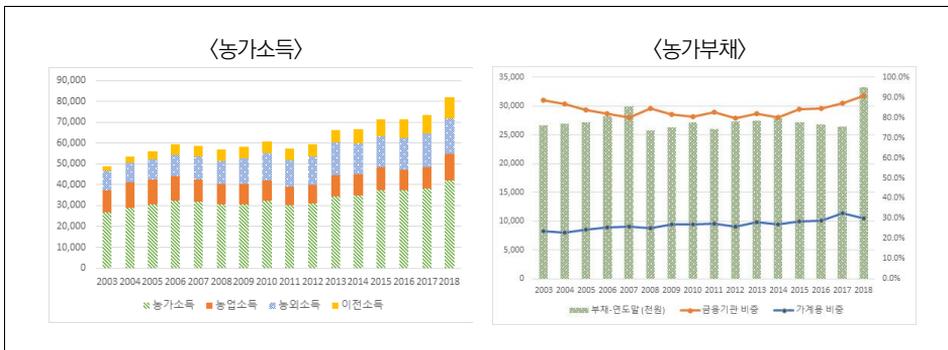


주: 중소기업정책금융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및 투자(벤처 등) 부문 정책금융은 제외된 수치.
 자료: 통계청, 농식품부 내부자료.

○ (농가경제) 전문농가 중심으로 수익성 하락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농가소득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전문농가 중 농외수입(겸업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가, 축산농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
 - * 부채비율: 논벼(3.3%), 과수(5.3), 채소(6.7), 화훼(12.0), 축산(14)
- 영세농가 대상 가계자금 지원책도 모색할 필요
 - * 농촌관광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영세농의 농외수입이 크게 감소

그림 2-28 농가경제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 시나리오 2: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 시나리오 1과 달리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전망에 따르면 성장률 0.21%, 물가상승률 0.55%로 급속한 경기 하락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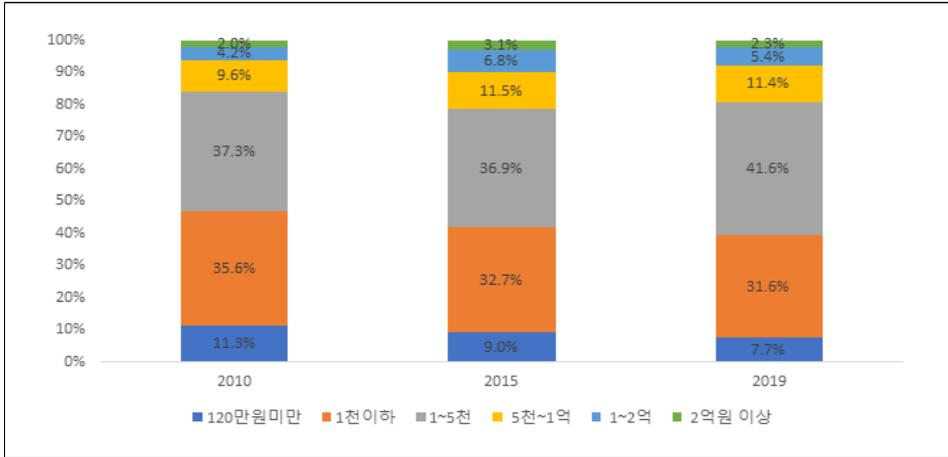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물경기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대비 정부지원 확대가 지속될 전망
- 장기화될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부실기업 위주로 도산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금융위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증가
- 장기적으로 시중 은행 중심으로 금융기관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

○ 단기적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 금융 지원으로 전환될 전망

○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농업성장동력 측면에서 악영향

- (농업정책금융) 경기 침체로 실질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잔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농업성장 활력 측면에서 악영향
- (부채비율) 코로나19가 장기적일 경우 규모 있는 농업(법)인부터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부채비율이 높은 청장년 농가의 경영이 악화된다면, 농업 구조 전체에 악영향
* 부채비율: 40대(21.3%), 50대(11.5), 60대(7.3), 70대(3.4)
- (인력조달 등) 판매금액별 고용원이 있는 농가 비중 변화로 보아, 농업 분야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5천만 원 내외 평균 농가의 인력 조달 어려움으로 경영 악화 우려

그림 2-29 판매금액별 고용원이 있는 농가 비중



자료: 통계청.

○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

- 다양한 감세정책

* 2008년: 난방용 유류 소비세율 인하, 퇴직소득공제제도, 부동산 세제, 소득세율 인하, 설비투자 임시세액공제, 승용차소비세율 인하, 구조조정 세제혜택 등

-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

* 2008년: 지방 SOC, 유류비 환급, 농어민 유류비 지원 등

○ (농가경제) 경기 침체가 1년 동안 지속될 경우, 농번기인 여름, 가을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수익성 하락을 겪을 품목이 크게 확대될 전망

- 반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될 때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축수산물 소비 등에 다소 긍정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생산농가가 직면할 위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

11.1.2. 영향 전망

□ 시나리오 1: 6월 말 이후 국내 안정화(국내 상반기 종식), 국외 확산 지속

○ 전문농가(농업법인) 중심으로 농가수익성 하락 전망

- (생산) 외식산업 연계성이 높은 품목(축산 등), 화훼, 과수 농가의 농가수입이 크게 하락 전망
- 쌀 등 필수재 품목보다 화훼, 수출품목 등 특정품목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상대적으로 규모 있는 농가(농업법인)의 경영 악화 우려
 - * 화훼농가당 판매액 7,700만 원(6,918호/5,385억 원)
- (유통 등) 체험농장, 친환경학교급식 등 농업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의 경영악화 우려

○ 농업정책금융잔액 확대폭은 일반정책금융에 비해 작은 편

- 신규 대규모 투자는 감소한 반면, 소액 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책금융총잔액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
- 정부의 소상공인지원대책은 주로 신보, 지역신보, 은행 대상으로 현재 우리 농업인 대상 지원정책을 통해서는 정책금융잔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향후 영세규모 농가의 가계비 부담 및 중·대규모 농가의 운전자금 부담 완화 등 적극적 공급확대 정책이 이루어지면 총잔액 증가

○ 보증잔액, 보증배수 증가 전망

- 농신보 보증잔액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 농축산경영자금 등의 공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보증잔액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대규모 신규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대규모 대위변제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임.

□ 시나리오 2: 연간 국내 및 국외 확산 지속

○ 중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악성부채 발생 가능

- 금융지원 집중 대상인 중·대규모 농가들의 경우, 여러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이고, 상환연장, 이자납입 유예 등에 대한 제도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담
- 대·중견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계열화 또는 출하 농가의 연쇄 경영 악화 가능

○ 정책금융기관은 외부 경기 악화로 연쇄적으로 위험 직면

- 내부 악성대출채권, 대위변제 증가보다는 외부 경기 악화로 연쇄적으로 금융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투자 정체로 농업 성장을 위한 활력을 잃을 가능성

- 중·대규모 농가의 경영 악화, 농업 미래 성장 기반인 청장년 농가의 경영 악화로 코로나19 충격이 농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위기(2008년) 전후 정책금융·농가경제 변화 추이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속히 악화된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실물경기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을 마련하였음.

- (금융안정화정책)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대출정책이 포함됨.

* 한국은행 정책금리 인하: 5회 3.25%p('08년 4회, '09년 1회)

* 한국은행 총액재할인 한도 확대(6조 원→10조 원)

* 정부 출자 확대(산은, 기은, 수출입), 보증기관 출연 확대 등

- (구조조정정책) 경기 악화에 따라 나타날 부실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사전에 준비

* 구조조정 재원 확충: 은행자본확충펀드설립(20조 원)

*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설치

- (경기부양정책) 수출급감, 내수 위축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영업의 경영안정화, 서민생활지원, 일자리 창출, SOC 투자 등을 통한 경기 부양

* 추경 4.6조 원('08. 6.), 10조 원 확대 편성('09년 수정 예산), 추경 28.9조 원('09. 3.)

○ 2008년 금융위기 중소기업지원대책의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음.

- 대출기관인 은행 역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확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2008년 금융위기 지표 추이) 지원대책에 대응하여 일반 금융지표 변화가 있지만, 농업 부문 지표에 의하면 금융위기 자체보다 경기 하락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됨.

- 08년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 확대 시 대출 절차, 금융기관 위기관리 등의 요인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보완된 제도 개선으로 09년 이후 금융공급 확대

- (농업정책금융)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신규 투자 회피 등 장기적 투자 정체 시기 도래

- (농가경제) 동일 코호트인 '08~'12년 추이를 볼 때, 이전과 달리 소득증가율이 정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실제, 농가소득은 소비 및 경영비와 연계되어 경기 하락 영향을 크게 받음.

* 2008~2012년 농가소득 증가율은 1.7%에 불과하여 도시가구 18.3%, 도시근로자 15.2%에 비해 크게 정체

그림 2-30 도농 소득비교



자료: 통계청.

○ (시사점) 재정·금융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보완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희생 등 재기 정책을 동반할 필요

- 보증수수료 폐지, 보증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 정부 출연금 확대 필요
- 희생지원자금 활성화

11.2. 대응 방안

□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주요 대책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피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 용자

- 대출조건: 고정 1.8%(변동 1.21%, 6개월 변동), 최대 5천만 원

○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 483억 원 지원

- 출하선도금 금리 인하(1.5%→1.0%),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 지원 200억 원 확대(2.5~3.0%→2.0~2.5%)

○ (문제점) 농업(법)인이 마주하는 여러 유형의 위험에 대해 경영안정정책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와 같은 거대하고 갑작스런 시장위험에 대응한 정책은 부족함.

- ① 금융지원: 식품 분야 금융지원은 주로 경영위험, 회생보다는 매출, 투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보전 및 경영회생지원 정책이 부족
- ② 보험: 자연재해에 대한 생산위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과 무관한 외부 충격, 소비를 포함한 시장위험 대응엔 역부족

○ (단기대책 방향) 추경('20. 3.) 11.7조 원 및 민생·금융안정 패키지(50조 원+)에 대응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빠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

○ 장기대책 방향

-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회생자금 마련 및 제도 개선으로 선제적 대응 및 보험, 세제기반 확대로 지원체계 효율화

- 안정적 농산물 공급의 정부 역할 확대로 농가경제 안정화

□ 방안 1: (시나리오 1) 농축산경영자금 및 종합자금 등 운영자금 공급 확대

○ 2019년 기준 정책금융 이용실태에 의하면, 농안기금 등 기금융자사업보다 종합자금이 이용이 활발함. 식품외식종합자금 및 종합자금 운영자금의 제도 변경을 통해 운영자금 공급 확대

○ 농협은행 대출실태 기준, 농안사업 계좌 수 332개에 불과해 융자지원 확대로는 파급효과 미미

* 종합자금(20만 개+)

○ (화훼 등 대상품목 특정 금융지원 확대) 재해대책경영자금이 既 공급확대되었으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출금리 및 대출조건 조정 필요

- 대출금리 1.8%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

- (개선 1) 초저금리 적용, 대출심사 간소화 등

- (개선 2) 무보증 농안기금 직접대출 사업 확대

○ (생산 연관 2·3차 산업 보호) 유통, 가공, 서비스업 등 농가와 연계된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생산농가에 위협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금융지원

- (개선)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 지원

□ 방안 2: (시나리오 2) 재기 위한 회생자금 및 신산업 육성 투자 확대

○ 既 공급된 자금을 대한 상환조건 조정 및 신규투자 확대로 실물경기 활성화 노력

- (Untact, New Normal) 새로운 소비경향 대응, 신유통경로 확대 등에 대한 투자 대상변경

○ 재기를 위한 경영회생자금 확대

* 경영회생자금 계좌(2,566개)

□ 방안 3: (공통) 보증제도 개선

○ 금융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

- 금융위기뿐 아니라 코로나19 1차 대책에서도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해 단기적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였으나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임.

- 보증공급 확대가 동반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 실현이 어려움.

○ 단기적 농신보 제도 개선

- 한시적 보증수수료 폐지, 특례보증 확대

○ (시나리오 2) 농가 연쇄 도산에 대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 경기 침체에 대비한 금융기관 경영 악화 대응

- 상환 연장, 회생자금 보증 확대
- 가치사슬 연계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한 한시적 보증 대상 확대

□ 방안 4: 출연 확대 등 재정지원 방식 다양화

○ 현재 농신보 보증배수는 적정운용배수 초과

- 소액보증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보증배수 부담 높아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 적극적 지원이 어려움.
 - 하지만, 농신보의 보증배수는 자본금의 농특회계 전입으로 인한 단기적 증가로 최근 보증잔액 증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님.
- (개선) '08년 신보, 기보에 출연 확대한 사례와 같이 재정출연을 확대하여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면서 보증공급 확대 필요
- (개선)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고려
- 농신보 등 원활한 대출심사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 고려
- **방안 5: (공통) 농가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
- 현재 국내 농산물 수요 변동성 존재
- 소비 측면의 변동성은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 중 가격 위험(시장위험)에 해당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 변동이 코로나19 이후 다수 품목으로 확대
 - 푸드뱅크시스템을 통한 수요안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
- 현재 농업정책보험은 생산위험 완화에 중점
- 시장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넓은 범위의 거대 위험에 대비가 필요
- (개선) 국민에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역할에서 안전한 식품공급으로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통해 농가경영안정 도모
- 시장위험 완화 보험 제도, 푸드뱅크, 푸드 스템프 도입

□ 미국 코로나19 대응 농업부문 지원

○ (규모) \$19B 프로그램*

- USDA fund(가격지지)와 별도로 Coronavirus economic relief bill 에서 지원

* 전체 구조 지원 규모 대비 0.86%

- Covid-19 relief bill 규모: \$2.2Tril

○ (대상) Supply chain이 망가진 농업인(farmers & ranchers)

○ (지원방법) 직접공여(direct grant), 구매

- (직접 공여) 수요 하락과 과잉 공급으로 인한 단기 하락 보상
- (구매) 신선농산물, 유제품, 축산물 구입하여(\$3B) 지역사회, charities, food bank에 지원 store-ready 축산물 등 과잉공급 해결 기대

11.3.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책과제

11.3.1. 현황

○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함.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 가구임.

- 농업인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분포를 파악하여 선정 기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면 대응해야 함.
 - 소득과 관계없이 농지 평가액이 높아 긴급재난지원금 선정에 제외되는 농가 비율을 파악 필요가 있음.

11.3.2. 영향 전망

□ 시나리오 1: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

- 농가 중 최대 86.6%(농외소득 기준), 최소 69.4%(농가소득 기준)의 농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추정(농가경제조사)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농업인의 비율이 소득 하위 70%와 비교하여 높을 것으로 예상함.
 - 하위 70%가 아니더라도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지원금 대상

표 2-68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 추정

단위: 명, %

	농외소득 기준		농가소득 기준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지원대상	884,443	86.6	708,260	69.4
지원제외	136,395	13.4	312,578	30.6
합계	1,020,838	100.0	1,020,838	10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시나리오 2: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은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농가는 3.8%로 추정(농가경제조사)

11.3.3. 정책과제

○ 농업 소득 감소를 증명할 방안이 필요

- 농업소득은 비과세가 많아 소득 감소 증명에 애로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인정 등 소득 감소 증명 방안을 강구

○ 농업인의 건강보험 납부 자료 연계 분석

- 전체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긴급지원금 지원 시 대상 농업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가입자 관련 D/B와 농업경영체등록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전체 농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제금융협회(IIF) 자료. 2020. 3. 24.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내부자료.
김광선·안석·박지연. 2016.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8.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현황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내부자료. 2020. 코로나19 관련 외식업 동향 모니터링 (4.2주).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귀농·귀촌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화훼재배현황』.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2018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농촌진흥청. 2020.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농촌진흥청. 2019.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뉴데일리 경제. 2020. 3. 18.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연 속 호텔 점유율 소폭 회복세.”
법무부 내부자료.
엄진영·박준기·유찬희·김선웅. 2018.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이용선·김경필·홍연아·임승주·박시현. 2019. 『2019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임정빈·안병일·김상효·이승훈·김미화·주준형. 2019. 『바른 식생활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정학균·김상효·홍연아·추성민. 2019.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2019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대학교. 2019. 『2019년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한국선주협회. 2020. 4. 17. 『코로나19 관련 각국 정부의 항만관리대책』.
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20. 외식업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 모니터링 조사(5
차, 2020. 3. 12.).
한국은행. 각 연도. 『산업연관표』.

한국일보. 2020. 3. 18. “코로나 장기화에 ‘사회적 거리두기’형 숙소 주목.”

한국일보. 2020. 5. 28. “쿠팡발확산, 전국 838개교 등교 중지.”

Agricultural and Rural Convention EU. 2020. 3. 24. “Effects of Coronavirus on Agricultural Production – a First Approximation (part 2).”

Alphaliner. 2020. Alphaliner Weekly 5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재인용). 2020.02. KMI 동향분석 제165호.

China Briefing. 2020. 5. 29. “China’s Support Policies for Businesses Under COVID-19: A Comprehensive List.”

Devex. 2020. 4. 2. “How to address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food systems.”

Fortune. 2020. 3. 18. “Global food harvests at risk as coronavirus travel bans block migrant labor.”

Fruitnet. 2020. 4. 21. “Japan’s agriculture workforce impacted.”

IHS markit. 2020. 4. 9. “Coronavirus triggers acute farm labour shortages in Europe.”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Kyodo News. 2020. 3. 5. “Grocery delivery firms get lift as virus confines people to home.”

Politico. 2020. 4. 3. “Coronavirus pushes farm labor failings into spotlight.”

S&P Global. 2020. 4. 2. “Global farming suffers from falling prices, labor shortages as virus spreads.”

The guardian. 2020. 4. 9. “‘A disastrous situation’: mountains of food wasted as coronavirus scrambles supply chain.”

US News. 2020. 3. 31. “Coronavirus and Food Safety.”

World Bank. 2020. 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참고 인터넷 사이트〉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검색일: 2020. 3. 20.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unipass.customs.go.kr/ets/index.do>>. 검색일: 2020. 5. 20.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일: 2020. 4. 14.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rucos.kr/>>. 검색일: 2020. 4. 14.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kr/>>. 검색일: 2020. 5. 29.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3. 20.

- 통계청 경제총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5. 29.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국제통계 국제구별통계 IMF 환율.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귀농귀촌통계.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농업총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실태현황.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5. 29.
-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 <<http://kosis.kr/>>. 검색일: 2020. 5. 29.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5. 29.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3. 20.
-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4.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20. 4. 18.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 <<http://www.kati.net/index.do>>. 검색일: 2019. 12. 15.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화훼공판장). <<http://www.at.or.kr/home/fmko000000/index.action>>. 검색일: 2019. 12. 15.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ktspi.or.kr/main.do>>. 검색일: 2020. 3. 20.
- 한국석유공사. <<http://www.petronet.co.kr/main2.jsp>>. 검색일: 2020. 3. 26., 2020. 4. 17., 2020. 5. 16.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0. 3. 26., 2020. 4. 17., 2020. 5. 16.
- CME. <<http://www.cmegroup.com>>. 검색일: 2020. 5. 20.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http://www.fao.org>>. 검색일: 2020. 4. 22.
- Global Insight. <<https://connect.ihsmarkit.com/home>>. 검색일: 2020. 3. 15., 2020. 4. 17., 2020. 5. 16.
- Global Trade Atlas. <<https://connect.ihsmarkit.com/gta>>. 검색일: 2020. 5. 27.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ttps://www.icao.int>>. 검색일: 2020. 4. 21.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https://www.ifpri.org/>>.
검색일: 2020. 4. 27.